금주의 법구-〈법구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 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5월 13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50호 2017년 6월 7일 수요일

종교인 과세 재유예 시민사회 비판 확산

김진표 의원, 2년 재유예 추진
시민사회 "더 이상 유예 안돼"
불교 · 천주교 '과세 찬성' 견지
정부 "내년 시행 문제 없다"
종교단체 대상 설명회 7월 예정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민사회계는 시행을 코앞에 두고 종교인 과세를 재유예하는 것은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논란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재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면서부터 불거졌다. 5월 26일 국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추진 중이다. 법안에는 과세 2년 유예를 포함, 교회나 종교단체에 대한 탈세 제보 시 국세청 대신 소속 종단 · 종파에 세무조사를 이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계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 한국납세자연맹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5월 31일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시행키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종교인 관련조항)은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김진표 위원장이 이마저도 2년 더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18년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세 징수 △원천징수 △세금탈루 의혹에 가산세 납부 등을 촉구했다. 보수 개신교를 제외한 불교 · 천주교 등 종교계에서도 종교인 과세 유예 논란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조계종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계종은 종단 산하 복지 · 교육기관에서 소임을 맡은 스님들은 현재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천주교는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조계종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다만 각 종교마다 특수성 및 상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뜻을 이미 정부에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 정부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수성향의 개신교 단체들은 김진표 위원장을 전폭 지지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연합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시의적절하다'는 논평문을 내고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경우 그 혼란과 마찰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정부는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기 전에 각 종단마다 가진 고유한 영역과 환경을 제대로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만한 과세 기준을 정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가열되자 기획재정부는 5월 31일 예정대로 내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발표, 오는 7월 종교인 및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소득세법 개정에 의거 2018년 1월부터 종교인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이를 안내하고 종교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또 국세청은 9~10월 중 종교인 과세에 대한 안내책자도 발행한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38% 세율로 세금이 차등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처음 추진됐지만 종교계 반발, 준비 부족 등 이유로 50여년 가까이 표류했다. 그러다 201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재석 의원 267명 중 195표의 찬성으로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종교인 과세 논란 일지

1968.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 부과" 표명
2012. 3.	박재완 당시 기재부 장관 "종교인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 국민개세주의 관점서 특별한 예외 인정하기 어려워"
2013. 8.	기획재정부, 종교인 과세 포함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 및 국회 제출
2014. 2.	임시국회, 종교인 과세 법안 처리 무산
2015. 8.	정부, 종교인 과세 포함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
2015. 11. 30.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의결
2015. 12. 2.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 1.	종교인 과세 시행 예정



"어르신, 창포물에 발씻고 건강하세요"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5월 30일 경내에서 '단오재 화기애애(和氣愛愛)'를 개최했다. 연중 양기가 강한 날인 단오를 맞아 스님들은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세족식'을 진행했다. 시원한 청포물에 발을 담그고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바라보는 어르신의 표정이 마치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모습과 닮아 보여 훈훈하다. 글 · 사진= 노덕현 기자

남북 종교인 "6월 평양서 만남" 합의

5월 18~22일 ACRP서 남북 종교인 만남 성사

5월 18~22일 북경 베이징에서 열린 ACRP(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 집행위원회의서 남북종교인들이 6월 평양에서 만나기로 뜻을 모았다.

남북종교인 모임을 시작으로 민간교류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 따르면 남북 종교인들은 회의 기간 중 이뤄진 몇 차례 만남을 통해 남북 화해와 평화, 남북 교류 재개를 위한 종교인들의 역할이 중차대함을 확인했다. 이에 남북 종교인들이 나서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교류를 재개해 갈등지수를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6월 17~20일 평양에서 남북종교인 교류를 갖기로 합의했다. 남북 종교인들의 만남은 지난 2015년 11월 금강산 종교인 대회 후 처음이다. ACRP도 남북 종교인의 합의에 환영을 표하며 "오랜 세월 분단된 남과 북의 화해를 위해 종교인들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를 깊게 인지하고 있으며 그들의 헌신에 격려를 보낸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남북 종교인들이 속히 만남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KCRP는 회원 종단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남북 종교인의 만남이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북한 인도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및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의 대북접촉을 잇달아 승인하며 민간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 내 대북교류 및 인도지원단체인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사)나누며하나되기 등도 정부의 남북 민간교류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추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민간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이 정해진 건 분명하다. 다만 대북접촉 승인은 그야말로 팩스 ·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허용하는 정도"라면서 "현재 민추본도 대북접촉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승인 후 북측과 협의를 거쳐 교류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총지종 · 대각종 종단협 부회장 종단 격상

5월 31일 이사회서 만장일치 결의

총지종과 대각종이 종단협 부회장 종단으로 격상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5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2017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총지종과 대각종을 부회장 종단으로 격상시키기로 결의했다. 이에 종단협은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태고종 등과 함께 6개 부회장 종단으로 확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위 설치를 통한 후보 추천 심사와 표결 처리 등 의견이 엇갈렸으나, 중재 끝에 만장일치로 두 종단 모두 승격 처리하기로 결정됐다.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총지종은 종립학교를 비롯해 사회복지재단 등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인선 정사



만청 스님

부회장 종단 승격을 계기로 회원 종단간의 소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도 "대각종은 적극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종단협 대소사에 협조,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승 스님은 "각 종단과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각 종단이 함께 힘을 모아 잘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종단협은 9월 6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리는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국민화합대회'를 함께 여는 등 올림픽 분위기 조성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의에 앞서 김학철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동계올림픽 현황을 브리핑하고, 불교계 동참이 절실하다고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노덕현 기자

한반도평화기원 금산사 5층석탑 (보물제25호) 사리친견 안내

유가종찰 · 미륵성지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모악산 금산사

"사리는 계 · 정 · 혜를 훈수한 결정체로서 매우 얻기 어려우며, 최상의 복전 (福田)이므로 일체 중생들은 마땅히 이 사리에 예배하고 공양하라"
〈금광명경金光明經〉권 4 사신품捨身品

사리는 한량없는 육바라밀(六波羅蜜)의 공덕으로 생기며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을 닦아 생김으로 매우 얻기 어렵습니다.
미륵성지 모악산 금산사 오층석탑 사리는 보물 제 25호 금산사 5층석탑의 해체 보수 과정에서 수습 된 석가여래 사리 5과와 정광여래 사리 2과, 정광여래 분신사리 1과입니다. 윤5월 삼사순례시 모악산 금산사 사리친견을 통해 부처님과의 무량한 인연공덕 맺으시기 기원합니다.



- 사 리 : 석가여래 사리 5과, 정광여래 사리 2과, 정광여래 분신사리 1과
- 사리친견기간 : 불기 2561(2017)년 9월 5일까지
- 장 소 : 금산사 대적광전



석가여래 사리 5과



정광여래 사리 2과, 정광여래 분신사리1과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모악산 금산사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전화 063)548-4441~2 | 팩스 063)548-1390
홈페이지 : www.geumsansa.org
이 메 일 : geumsansa@hanmail.net

총무원장 선출제도 종도의견 듣는다

〈조계종〉

선출제도개선특위 첫 회의, 추가위원 추천
종도 신청 받아 회의서 의견 개진 가능케

지난 3월 조계종 제208회 임시회서 구성된 총무원장선출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종도 의견을 폭 넓게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총무원장선출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는 5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1차 회의를 개최, 종회의원 외 5명의 추가 위원을 위촉키로 했다. 현재 특위는 위원장 초격 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 장명 · 덕조 · 화림 · 만당 · 선광 · 화평 · 일감 · 묘주 스님과 기획실장 주경 스님으로 구성됐다.

이날 특위는 추가 위원으로 교구본사 주지 · 율사 · 교육아사리 각 1인을 추천받기로 했다. 또 직선제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목종 스님과 젊은 세대 의견을 개진해줄 광주 문빈정사 법선 스님에게 참여 의사를 물어 총 15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일감 스님을 간사로 선출했다.

특위는 또 '종도의 소리(가칭)'를 통한 다양한 선출제도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 특히 매 회의에 2명 정도 초청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신청자격과 방법은 사무처에서 마련한다. 단 징계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체 위원회가 구성되면 소위원회가 아닌 분야별로 5명씩 위원을 나눠 집중적인 연구에 나설 전망이다.

본사주지 · 율사 포함
15인으로 위원 구성
제도 변천사 분석도

아울러 총무원장선출특위는 활동시한이 후반기 종회까지 주어진 만큼 장기간 논의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직선제와 간선제에 구분을 두지 않고 공청회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선거 폐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총무원장 선출제도 변천사를 돌아보고, 10여 년간 이어져온 입법과정을 분석하기로 했다.



총무원장선출제도개선특위는 더 나은 선거제도 마련을 위해 종도의견을 접수해 회의서 논의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서는 직선실현대중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허정 스님을 위촉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스님이 과거 직선제특위 위원들을 정유십적(丁酉十賊)으로 지칭한 바 있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위원장 초격 스님은 "(직선대중공사가) 제도권에 들어와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직선제특위 위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일에 대한 해명도 한 번쯤 들을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모두 애종심으로 일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선광 스님은 "그분들의 뜻은 가상하고 종단과 불교계를 염려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내 의견이 옳다고 다른 사람들 의견을 부정해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 정유십적 명단을 만드는 등 자기 생각과 배치된다고 누군가를 매도해선 안 된다"고 염려했다.

화림 스님도 "의견을 적극 수용하면 좋겠지만 회의하다보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또다시 종단이 싸잡아서 욕을 먹게 된다"며 "논의구조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사회원로들 "명진 스님 징계 철회하라"

조계종 호계원 "절차 적법, 명진 스님 자숙하길"

前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에 대한 조계종 호계원의 제적 징계와 관련, 시민사회원로들이 이례적으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명진 스님 승적박탈 철회를 위한 시민들의 모임(가칭)'은 5월 31일 서울 혜화동 모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진 스님 승적박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을 비롯해 김중배 前 MBC 사장,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함세웅 신부, 정지영 영화감독,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권영길 前 민주노동당 대표,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최병모 前 민변 회장 등 사회각계 원로들이 참석했다. 고은 · 신경림 시인 등은 개인 일정으로 인해 불참했지만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40여 명의 원로들이 함께한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백기완 소장은 "명진 스님이 승적박탈이라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폭력적인 탄압을 받았다. 명진 스님은 일생을 거짓말 한 번 안 한 사람이다. (조계종은) 이번 결정을 잘못했다고 국민에 사과하고, 명진 스님 승복을 다시 입혀드리는 절차를 갖기 바란다"면서 "종교 내부 문제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유신독재가 종교계에도 침입됐다고 생각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백 소장은 그러면서도 "다만 절집과 싸우자는 게 아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모임은 명진 스님 제적 징계가 촛불민심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촛불이 천지를 밝히는 이 역사의 전환기에 명진 스님의 승적 박탈은 촛불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짓"이라며 "이명박이 명진 스님을 절에서 쫓아낸데 이어 이참엔 불교에서 쫓아냈다. 피눈물의 역사 전진에 대한 마구잡이 칼질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계종 호계원은 5월 30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명진 스님은 근거 없이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을 비방하는 등 비승가적이며 비이성적인 언행을 자행해왔다"면서 "총 4차례의 출석 공고에 응하지 않고, 재심 청구 기회마저 포기했다. 마치 일방적으로 징계를 받은 것처럼 외부에 호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디 인과의 업보가 크고 무거운 줄 알아서 스스로 자숙과 참회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명진 스님 승적박탈 철회를 위한 시민들의 모임 구성원들이 5월 31일 기자회견서 "승적박탈을 철회하라"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승가교육 진흥에 마음을 보탭니다"

한마음선원, 교육원에 1천만 원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6월 1일 조계종 교육원에 승가교육 진흥 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 교육부장 진각 스님,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을 대신해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혜안 스님 등이 참석했다.

현응 스님은 "대행 스님의 수행과 사상을 선양하시기 위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승가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혜수 스님은 "앞으로도 종단 승가교육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성민 기자**

신행혁신 위해 〈불교입문〉 전면 개정

조계종 포교원, 신도교재편찬위 구성해 편찬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신행혁신 운동을 배가하기 위해 신도기본교육 교재인 〈불교입문〉을 전면 개정했다. 간화선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다양한 수행법을 소개하고, 수행일지 및 청규 등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개정된 〈불교입문〉은 조계종 신도기본교육이 도입된 1996년 이래 매년 2만권 이상 판매되는 불교계 대표 서적으로 불교대학에 입학하는 6000여 명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불교 입문서로 가장 선호하는 서적이다. 2012년 개정판이 나왔지만 다소 딱딱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포교원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 신도교재편찬위원회(위원장 일문)를 구성, 편찬을 5년간 준비해 왔다. 편찬위원으로 일지암 암주 법인 스님,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 교수아사리 정운 스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서재영 불광연구원 연구원, 목경찬 교수 등 포교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다양한 수행법 · 청규 담아
불교 가치관도 알기 쉽게

총 11장으로 구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교재와 확연히 다른 점이 드러난다. 개정 전 〈불교입문〉이 사찰예절과 기본교리 등을 전면에 배치한데 비해 개정판은 '왜 종교를 가져야 하는가'와 '불교에서 무엇을 믿고 이룰 것인가' 등 불교에 대한 불자들의 고민을 담았다. 사찰예절과 등은 부록으로 뒤쪽에 배치했다.

각 이론 설명뿐만 아니라 주안점도 친절히 설명한다. 예를 들어 연기법의 경우 초심자의 시각에서 여러 각도로 조명하며, 현실에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무아인데 왜 윤회하는가' '왜 천도재를 지내나' '사찰의 의미' 등 불교용어나 불교 가치관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포교원이 추진하는 신행혁신운동 '붓다로 살자'와 연계해 생활 속 실천을 강조한다. 실천과정으로 보살도의 삶을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신해행증의 '증'을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보다 현실 속에서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풀이해 새로운 신행관을 내세웠다는 특징을 지닌다. 책 가장 뒤에는 포교원이 공표한 신행청규와 공동체 청규도 담아 생활속 수행을 장려한다.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은 "〈불교입문〉은 불교에 입문하고자 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으로 그동안 시대 요구에 따라 책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신행혁신과 관련해 그동안 개인적 수행을 회향, 실천하는 것을 책 내용에 담고자 했다. 이번 개정된 불교입문을 보고 불교가 박제화 된 종교가 아닌,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종교임을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春 템플스테이' 외국인 '역대 최다'

6058명 중 43.3% 기록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수암)이 실시하는 '여행주간 행복만원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 비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화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87개 사찰에서 열린 '봄 여행주간 행복만원 템플스테이'에 외국인 2632명을 포함해 총 6058명이 다녀갔다고 6월 1일 밝혔다.

이는 예상 목표였던 체험인원 5000명을 21% 초과한 수치로, 특히 외국인 참석비율이 43.3%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외국인 참석비율은 지난 여행주간 행사 중 역대 최대다. 앞서 지난해 가을 여행주간에는 21.5%, 봄에는 37.3%를 차지한 바 있다.

한편 문화사업단은 앞으로 계절별 ·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올해 가을 여행주간(10월 21일~11월 5일)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예약이 집중되는 시기에 대비해 서버와 온라인 결제시스템도 확충한다.

황명선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이 국민들에게는 새롭게 다가가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우리나라 재방문 의사를 이끄는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87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한국최면지도사 협회장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국제 최면 전문가

대학교,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경찰관서, 사찰 등에서 최면학 강의 및 초청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 최면
최면요법의 이론과 실제, 전생 · 빙의 등

KBS 굿모닝 대한민국/ 무한지대-큐
MBC 생방송 오늘 아침/ 무한걸스
SBS 미워도 다시한번 JTBC 부모 찾기
채널A 그 여자 그 남자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각종 TV방송 다수 출연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접수중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매월 첫주 목요일 개강 – 1회 무료 수강 후 결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 원 (교재 및 수련 CD 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전생요법 도대체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전생 퇴행 요법은 무의식 속에 내재된 전생이라는 기억 속에서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게 하여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무의식의 틀을 재편성 함으로써 문제 해결은 물론 통찰력을 높여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찾게 한다.

빙의치유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 것일까?

빙의된 사람은 제3의 영적 지배 내지 간섭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심심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행동, 괴벽, 정서불안 등 일상생활에 많은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경우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인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게 하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영가 장애가 아닌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망상 빙의나 다중인격과 같은 빙의현상도 올바로 진단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사찰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문제/ 분노 조절
마음의 상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스포츠 선수 기록 향상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전생요법/ 빙의 치유 등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미래의 부루나들, 法을 說하다

[현장] 조계종 교육원, 제1회 학인 설법대회

"출가부터 지금까지 속세의 습관 때문에 끊임없는 고비가 옵니다. 그때 그때 고비를 극복하게 되고, 그런 경험이 반복돼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 지혜는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금후 스님〉

조계사 앞마당이 법(法)으로 채워졌다. 사자좌에 오르신 덕 높은 오늘의 스승님은 갈색 동정이 인상적인 학인 스님들이다. 20~30대 젊은 스님들의 설법은 무언가 달랐을까. 결론은 달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6월 1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특설무대서 개최한 제1회 학인설법대회는 미래의 부루나 존자들의 설법 능력을 경연하는 법의 현장이었다.

이번 대회에는 안거 중인 종립선원을 제외한 17개 종단기본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인 39팀(사미 24명, 사미니 16명)이 참여했으며, 오전 예선을 거쳐 12팀이 본선에 올라 자웅을 겨뤘다.

본선에서 경연을 펼친 참가자들은 현대에 맞는 설법을 보였다. 파워포인트(PPT)과 동영상은 기본이었다. 아예 대중가요 '네박자'를 개사해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청암사 승가대학의 명정 스님은 개사곡에 맞춰 '번뇌즉보리'를 설했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영어 법문을 준비한 학인도 눈길을 끌었다. 운문사 승가대학 선경 스님은 '행복하십니까'를

PPT·동영상 자료는 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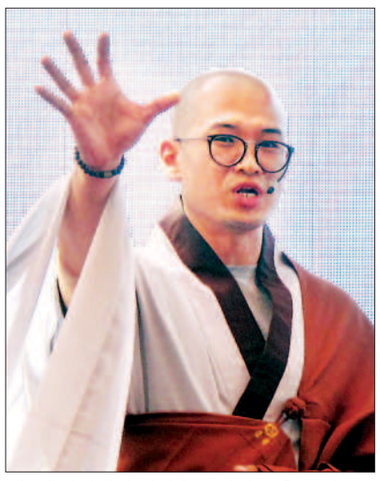
'네박자' 개사해 부르기도

자신의 출가 과정 풀어낸

해인사 금후 스님이 '대상'

"설법, 傳法위한 필수 능력"

주제로 영어 법문을 펼쳤다. 반대로 체코 출신의 휴정 스님(운문사 승가대학)은 유창한 한국말로 "본래성품은 생각 이전에 있다. 경상을 때리거나 손가락을 드는 선사에 대해 들을 때 대중들이 본래성품을 기억하기 바란다"며 선(禪)의 요체를 설명했다.



제1회 설법대회 대상을 수상한 금후 스님.



대회에는 본선에는 총 12팀이 참가해 설법능력 자웅을 겨뤘다. 행사 말미 무대에 오른 참가 학인 스님과 총평하는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낸 법문들은 대중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의 영관 스님은 자신이 어떻게 불교를 만났는지를 재치있게 풀어냈다.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수학 중인 금후 스님은 "가족 친지는 물론 친구, 선후배까지 모두에게 소문내고 온 출가길에 물러설 수 없었다. 3천배를 하라고 했다가 일이 많으니 270배만 하고 일을 하라고 했던 선배 행자, 매일 울부짖게 해준 윗반 스님까지 그 '덕분'에 출가 사문의 길을 간다"고 말해 좌중을 폭소케 했다.

그러면서 "덕분에, 덕분에 부족한 자질을 가지고도 출가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자만과 착각을 없애고,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이해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연기를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시간여 진행된 본선 이후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총평에서 설법의 중요성을 힘줘 말했다.

설정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해도 설법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최근 한국불교가 위축된 것은 부처님의 법문과 진리를 전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며 "이 같은 설법대회는 좋은 사례이고, 한달에 2~3번 이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법대회 참가자들도 설법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영관 스님(동국대 서울캠)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도반 스님과 밤새워 토론하고, 공부했다. 이 과정을 통해 더욱 친해질 수 있었다. 또한 법문을 하시는 스님들에게 존경심이 생겼다"며 "교육원에서 다음 경연은 연극대회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치열한 경연 끝에 최종 우승인 대상은 자신의 출가기를 재미있게 풀어낸 금후 스님(해인사)이 차지했다. 스님은 이번에 처음 도입된 청중평가단의 공감지수에서 98.8점을 기록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후 스님은 "실수 많았고, 많이 떨었는데 대상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대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난 출가 과정을 거품없이 써봤더니 재미가 있었다. 이를 잘 살린 것을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영관(동국대 서울캠)·세광(동학사) 스님이, 우수상에는 휴정(운문사)·선경(운문사) 스님이, 장려상에는 도안(운문사)·현수(중앙승가대) 스님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조계종 교육원은 학인들의 전법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염불시연·외국어 스피치·토론 대회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공식으로 화합되게 하소서"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5월 27일 신축 강당 상량식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창건 30주년과 대웅전 낙성 20주년을 기념하며 함께 열린 제주지원 신축 강당 상량식이 5월 27일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봉행됐다.

이날 상량식에는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을 비롯해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 캐나다 토론토지원 청각 스님 등 국내외 각 지원 지원장 스님들과 본원 대중 스님들, 오영훈 국회의원과 고경실 제주시장, 김태석 의원, 박종수 현대불교신문사 사장 등 정관계 인사도 참석했다.

상량식에서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은 치사를 통해 "대행 큰스님께서 제주땅에 법을 펴신지 30년이 됐다. 큰스님은 제주시장통에 선원 문을 열고 제주의 아픈 역사를 함께 아파했고, 그 아픈 역사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 원력을 이어 지원장 스님이 신도들과 함께 불사를 이어갔다"며 "대행 큰스님께서는 불사 걱정이 생기실 때면 '신도들의 마음이 있다면 염려할 것이 없다' 고 하셨다. 오늘 강당 불사 뿐만 아니라 그간에 여러 불사가 이뤄진 것도 제주신도들의 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공로를 치하했다.

오영훈 민주당 국회의원은 "그동안 불교가 대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제한돼 있었다.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이 문화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강당

연건평 520평, 지하2층 지상3층

템플스테이, 문화체험장으로 활용

을 세워 제주시민들에게 불교가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저 또한 제주도를 불국정토로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다"고 축하했다.

고경실 제주시장은 "오늘 상량된 강당은 세상 사람들이 한마음을 배우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중심 공간이 될 것"이라며 "높은자 낮은자의 구별, 있는자 없는자의 구별로 인해 우리 사회에 아픔이 커지고 있다. 공식으로 화합하고 한마음으로 깨달아 사회 아픔을 없애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은 5월 27일 창건 30주년과 대웅전 낙성 20주년을 기념하며 신축강당 상량식을 봉행했다.

제주도의회 불자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은 축시를 활용해 상량을 축하했다. 김 의원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고, 사람이 있다. 스스로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이들이 있다'는 말이 있다. 오늘 강당 불사와 함께 불자로서의 정진도 끊임없이 이어가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지원 지원장 혜묘 스님은 "이날의 인연공덕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의 불사도 꼭 이루어지시기를 발원한다. 저희도 도량불사와 함께 사부대중을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지극한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정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에 신축되는 강당은 지하 2층 지상 3층의 연건평 520평 규모로 한식 지붕에 태양열 발전이 가능한 최첨단 시설로 설계됐으며 2016년 3월 건축 허가 후 2016년 6월 기공식이 개최된 바 있다. 신축강당 3층의 대강당은 최대 25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신도단체 모임방, 다양한 문화공간이 자리해 템플스테이와 각종 문화행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제주=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일불교協, 日 미온적 태도 '유감' 표명

교류대회 연기 요청·청소년 교류도 미흡

11월 또는 내년 개최키로



한일불교계 교류에 대한 일본 측의 미온적 태도에 한국 측이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불교계의 교류 의지를 되묻기로 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5월 31일 서울 견지동 한일불교협의회 회의실서 이사회를 열고, 오는 6월 예정된 제3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사진〉

일한불교교류협의회는 지난 4월 "북한과 미국 간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일불교협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우선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한편, 일본불교계에 올해 참가 여부를 물어 오는 11월 개최하거나 내년으로 행사를 미루기로 했다. 일본 측은 6월 말 대회 참가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사회서는 지난해 제37차 일본 연력사 대회서 양국이 합의한 '청소년 교류' 준비에 미온적인 일본불교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한국불교계는 오는 8월에 맞춘 청소년교류대회 사업안을 일본 측에 전달했으나 일본불교계는 "아직 참가 계획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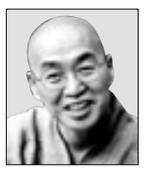
상임이사 월도 스님(천태종 총무부장)은 "지난 대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일본 측에서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에 항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이사 스님들도 이에 공감하며 한국불교계 입장을 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대회 참가와 양국 교류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일본불교계에 유감을 전하고, 적극적인 교류 의사를 묻기로 결의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일 주 문



정토회 여름 명상수련

법륜 정토회 지도법사 스님은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여름 명상수련회를 개최한다. (02)587-8990



제33회 백고좌 법회 회향

실상 대구 법왕사 주지 스님은 5월 24일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 법문을 끝으로 제33회 백고좌법회를 회향했다.



교정인불자연합회 수련회

류성현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장은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불광사에서 21회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호국불교포럼

박정이 예비역불자연합회장은 6월 14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을 초청해 '국가와 호국불교' 호국불교포럼을 개최한다.



불국토 상조 업무제휴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은 5월 30일 BTN 불국토상조와 상조서비스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

국제불교연합 5월 25일 창립 법회



국제불교연합(위원장 재원)은 5월 25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스님 및 재가 불자 5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국제불교연합은 "올바른 윤리와 가치관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나침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또 국제불교연합은 불교인으로서 인도적인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실천방법으로 산하 국제불교연합대학, 국제불교연합재난구조단, 국제불교연합미디어사업단, 국제불교연합승가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제1회 국제불교연합엑스포 개최 계획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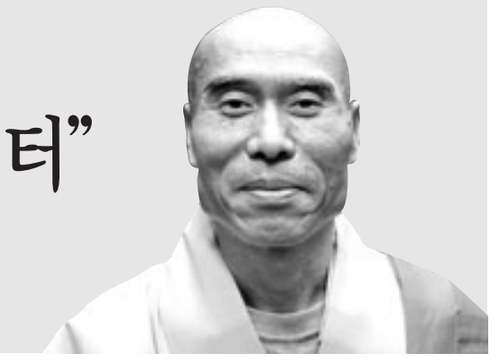
이날 법회에서 초대 임원진으로 국제불교연합대학 이사장에 재원 스님, 국제불교연합재난구조단 이사장에 현오 스님, 국제불교연합미디어사업단 이사장에 천강 스님, 국제불교연합복지재단 이사장에 청운 스님 등이 위촉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국가 평안·발전 위해 지역 종교인 힘 모을 터"

Interview

고양종교인평화회의 초대 대표회장 대오 스님



2015년 평화통일음악회서 제안
국태민안 기원 흥국사 전통 이어
평화 심포지엄·걷기대회 등 추진

"2015년 '평화통일특별시' 원년을 선언한 고양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웃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웃종교 교류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종교인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을 이해하면 종교 간 평화가 지역, 국가의 평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종교인평화회의가 5월 27일 일산동구청에서 공식 창립한 가운데 초대 대표회장으로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사진〉이 위촉됐다. 대오 스님은 5월 30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종교인들의 교류 협력을 통해 고양시 지역화합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향후 남북 평화통일에까지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양종교인평화회의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은 2015년 10월, 흥국사가 주최한 한민족평화통일음악회에서 처음 발원했다. 당시 대오 스님이 개신교·천주교·원불교·천도교·통일교·유교 총 7개 종단 대표자들을 초청해 '남북평화통일 공동선언문'을 함께 낭독한 후 평화통일에 이바지할 종교인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2016년 4월 첫 회의를 개최한 후 정관 심의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27일 공식 창립하게 됐다.

'평화'에 대한 대오 스님의 서원은 흥국사 주지로서 책임감이기도 하다. 흥국사는 국운이 쇠퇴하고 승풍이 쇠락했던 1904년 10월, 국태민안을 발원하며 만일염불회를 결의했다. 이처럼 대오 스님은 갈등과 반목이 산재한 현대 사회에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선시대 왕실원찰인 흥국사는 일제강점기 전후인 1904~1932년 국태민안을 축원하며 만일염불을 했습니다. 오늘날 흥국사가 한민족 평화통일 음악회, 만일염불기도를 진행할 뿐 아니라 고양종교인평화회의 출범을 주도한 것은 국가의 평안과 발전을 염원했던 역사적 뜻을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대오 스님의 최종 목표는 남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종교계가 힘을 모으는 것이다. 대오 스님은 "종교인들은 종교 간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갈등을 방관해선 안 된다. 그중에서도 한반도의 최대 불행은 남북분단"이라면서 "평화통일을 위해 민간교류는 매우 중요하다. 고양종교인평화회의는 민간교류 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고양종교인평화회의는 앞으로 △창립기념 종교와 평화 심포지엄(7월 4일 일산동구청) △화해와 평화를 위한 산사 음악회(9월 23일 흥국사) △고양시 종교인 DMZ 평화걷기대회(11월 하순 평화누리길) 등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공동대표는 대오·도원 스님(불교), 유재덕·강경민 목사(개신교), 서근수 신부(천주교), 장석준·김우정 교무(원불교), 이영찬·선호술(유교) 씨가 맡았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나태주·김제현·권영민 유심작품상

시상식 8월 11일 인제 만해마을서


나태주


김제현


권영민

시인 나태주(72), 시조시인 김제현(78), 문학평론가 권영민(69)씨가 제15회 유심작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은 나태주의 시 '어린 아이' 외 1편과 김제현의 시조 '한 세상 사는 법을 어디 가서 배우랴' 외 1편이다. 문학평론가 권영민은 특별상을 받는다.

심사위는 나태주 시인의 '어린아이'에 대해 "나태주는 문학적 민중시인이다.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고, 소박하면서도 독자들의 시선을 끄는 남다른 상상력이 작품의 특징이다"고 평했다. 김제현 시조시인의 시조작품에 대해서는 "시조를 한 단계 높였다. 조요로운 관조와 마음을 비워낸 성찰의 한 끝에서 문득 뽑아낸 촌철살인이다"이라고 밝혔다. 또 권영민 문학평론가의 특별상 사유에 대해서는 "텍스트라는 언어의 구조물과 그 텍스트를 산출한 사회문화적 조건 및 작가의 정신을 등가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8월 11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다. 상금은 각각 2000만원씩 수여된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 다례 봉행

자승 스님 "평화·행복 일상되도록 정진"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5월 2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원로회의 부의장 세민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호계원장 무상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종정 진제 스님은 세민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달마대사로부터 근원해 중국의 찬란한 5종 가풍으로 꽃피웠듯, 무념무수의 종풍으로 갈등과 대립, 분열과 투쟁의 사바에 세계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인류의 행복이 속성취하여지이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추모사에서 "이웃과 사회 모두에 편안한 웃음이 흐르도록, 평화와 행복을 나누는 삶이 모두의 일상이도록 정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전등사 이주민문화축제 화제



강화 전등사(주지 승석)는 5월 28일 경내에서 제12회 이주민문화축제 '아시아는 친구'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에는 전성수 인천시 부시장, 정규원 강화군 부군수, 정지천 동국대 의료원 부원장을 비롯한 1000여 이주민이 참가했다.

전등사 주지 승석 스님은 "언어와 문화, 생김새는 제각각이지만 친구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영천 은해사 신도회 새롭게 출범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은해사(주지 돈관)는 5월 28일 경내 극락보전 앞에서 생전예수재 및 제27대 신도회 출범식을 가졌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이연화 신임 신도회장에게 신도회기를 전달하고 고문·자문 위원들을 비롯한 임원진 100여명에게 위촉장과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연화 신임 신도회장은 "지역봉사와 본말사 신행단체의 원융과 화합, 그리고 신도회의 발전을 위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원효성사 탄신 1400주기 다례재



원효성사 탄신 1400주기 다례재가 원효 스님의 탄생지인 경북 경산 제석사(주지 경흥)에서 5월 27일 봉행됐다. 이날 다례재에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과 제석사 주지 경흥 스님, 경산불교총연합회장 도오 스님, 최영조 경산시장, 최덕수 경산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경흥 스님은 "원효 스님의 화쟁사상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거듭하는 국가와 사회를 직면한 작금의 현실 속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문화재, 국민 속으로 가다"

화엄사(華嚴寺)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세미나

세미나명 : 화엄사(華嚴寺)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일 시 : 2017년 6월 13일 (화) 13시 ~ 16시
장 소 : 구례 화엄사 화엄원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주 최 : 구례 화엄사 주 관 : ㈜씨피엔문화유산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에서는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맞아 **'문화재는 국민 속으로'** 라는 주제로 화엄사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합니다. 금번 세미나를 통하여 기존의 건축 중심 불사에서 탈피하여,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화엄사의 풍부한 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불사방안을 고민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사찰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 두 손 모음

■ 세미나 일정

개회 및 주지 덕문스님 인사말, 문화재청 박영근 차장 축사 / 영상물 시청	
13:20 ~ 13:30	화엄사 세미나 참고 영상물 시청
13:30 ~ 15:00	토론 • 1부 토론 사회 : 이재호 (씨피엔문화유산 국장) ▸세미나 기조 발제 대진스님 (화엄사성보박물관 관장) – 화엄사의 역사와 문화재 현황 김동현 (前 문화재위원·前 국립문화재연구소장) – 화엄사의 역사적 가치와 발전방향 최응천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 화엄사 불교문화유산의 가치 임영애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문화재청 문화재위원) – 화엄사 불교문화유산의 활용 정광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보존과학과 교수) – 화엄사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문제점 홍광표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화엄사 사찰 조경 보존과 활용 오세덕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 – 화엄사 석조 문화재 현황 및 보존 방안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 화엄사 석경의 복원 및 활용 박동석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 – 사찰문화재 활용 방안 황권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장) –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의 필요 박한규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장) – 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재 관람료 대체 방안 김종승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 – 명승 내 사찰 보존관리 대책
휴 식	15:10 ~ 15:20
15:20 ~ 16:00	• 2부 자유토론 ▸주제❶ : 화엄사 문화재 활용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전남도청·구례군청 문화재정책 담당자 ▸주제❷ : 화엄사 문화재 보존 및 활용 아이디어 김선희 (환경운동연합) – 환경 친화적인 문화재보존 관리 김경수 (한국문화재재단 기획조정실 홍보팀) – 효율적인 사찰 문화재 홍보 방안



5월 27일 양양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강원파라미타 10주년 기념식서 10년간 강원파라미타를 물심양면 지원하며 이끌어 온 금곡 정념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2017년 문화재지킴이로 활동할 강원파라미타 학생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인재불사 10년, 청소년불자 산실로 거듭나다

강원파라미타, 5월 27일 창립 10주년 기념식

2005년 낙산사 화재 창립 계기
"불교 중요성 청소년에 알리자"
불교·전통문화 체험활동 전개
신행활동도 함께, 지역포교 새 장

"강원 파라미타 파이팅! 한국불교 파이팅!"

5월 27일 양양군 실내체육관은 청소년 불자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찼다. 강원파라미타 10주년을 맞은 이날 기념식에 모인 600여 청소년 불자들은 파이팅을 외치며 불교의 미래를 밝게 열 것을 다짐했다.

사실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금곡 정념)의 탄생에는 불교계의 아픔이 서려 있다. 2005년 양양 낙산사 화재가 발생한 후 2007년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강원지역 불자들은 힘을 모아 강원파라미타 청소년협회를 창립했다. 진정한 의미의 불사를 하자는 뜻에서였다.

낙산사 화재가 전통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인재였다는 점에서 불교와 한국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그 밑바탕에 있었다.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행사인 만큼 이날 자리에는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강원지역 33개 중 · 고등학생 6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단순히 강원파라미타의 역사를 기념하는 자리로만 열린 것이 아니었다. 2017문화재지킴이 발대식과 다양한 문화공연, 감사패 전달 등이 함께 진행됐다. 특히 행사 전에는 제1회 명상대회가 열려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명상 방법이 소개되기도 했다.

발대식에서 회장 금곡 정념 스님은 "낙산사 화재 이후 우리는 복원이란 꿈을 꾸었고, 다시금 낙산사의 아름다움을 살릴 수 있었다. 이는 많은 학생들을 비롯한 지역민들이 동참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모인 불자청년들도 함께 꿈을 꾸길 바란다. 함께 모이면 꿈을 이룰 수 있고, 더 좋은 일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파라미타 상임이사 성진 스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해 금곡 스님이 파라미타를 이끌어 주셨다. 화재 이후 복원을 위해 심은 나무는 덜 자란 것 같은데, 10년이 지난 뒤 꼬마였던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청소년이 됐다"며 "오늘 청소년들을 보니 10년간 인재불사가 그 어떤 불사보다 뜻깊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10주년을 맞은 만큼 그동안 파라미타 활동을 지도해 온 교사들과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청소년들에게 공로상과 장학금도 전달됐다.

강원파라미타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어기근 속초고 교사와 사무차장 전인혜 강릉자비노인복지센터 팀장, 이수오 강일여고 교장이 공로상을 받았다.

강원도동계캠프 UCC 경연에서 전통문화 지키기 주제로 출품, 1위로 선정돼 이날 우수학생상을 수여받은 김남혁 학생은 "마이스터 고등학교여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파라미타 활동도 겸하면서 한국전통과 불교문화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 후에는 명상체험, 문화골든벨, 한마음 운동회 등을 통해 참가 학생들의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교리와 문화재 상식 등이 출제된 문화골든벨에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양양=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강원파라미타가 걸어온 길

강원파라미타는 낙산사 주지로 있던 금곡 정념 스님이 2005년부터 낙산사 인근 초중고등학교 6곳과 파라미타에 장학금과 활동비 등 매년 2억여 원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각 학교에 불교학생회가 생겨나며 창립 준비가 활발히 이뤄졌다. 2007년 12월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의 13번째 지역조직으로 강원파라미타는 13개 분회 130여 회원으로 출범했다. 정념 스님은 매월 300만원 씩 후원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 같은 노력 끝에 분회와 회원 수는 점점 늘어났다.

학생과 교사들의 파라미타 활동이 늘자 2010년 2월 강원도교육청은 파라미타 지도교사들에게 승진가산점 제도를 인정했고, 2010년 3월 낙산유스호스텔에서의 제1기 교원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시작으로 직무연수도 실시됐다.

2010년 지도교사 승진가산점 도입
2012년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발족
53개 분회 **2100여 회원** 조직 발전



2007년 강원파라미타 출범식



2012년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발대식.

여기에 강원파라미타는 2009년 6월부터 매년 지역 초중고생 5~70명을 선정해 4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문화체험행사도 열기 시작했다. 또 2012년부터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을 발족하고 강원지역 문화유적지를 보호하고 있다.

2017년 현재 53개 분회, 지도교사 60여명, 회원 2100명으로 지역 내 최대 청소년협회로 발돋움한 강원파라미타는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 2016년 2년 연속 전국파라미타 회장 배출한데 이어 2016년 제8회 나란다 축제서는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우리 문화유산 '불교' 청소년들이 지킬 것"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금곡 정념 스님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불교와 전통문화가 1000년 5000년 만년이 흘러갈 수 있도록 청소년 포교에도 관심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강원파라미타가 10년간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물심양면 파라미타 활동을 지원해 온 금곡 정념 스님〈사진〉의 후원이 있었다. 그렇기에 스님은 10주년을 맞이한 이날 감회가 새로워 보였다.

금곡 정념 스님은 강원파라미타협회 회장을 지내며 10년간 양양지역 청소년 포교에 매진해왔다.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교사불자연합회를 비롯한 유관단체 구성에도 힘써왔다.

정념 스님은 "강원파라미타는 청소년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통해 강원도 지역 문화재를 바로 알고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동참은 향후 우리 민족문화유산이 계승 보전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스님은 이어 "10년 뒤에도 청소년들이 문화재를 지키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원효 탄생 1400주년,
원효사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



원효, 불교사상의 벼리

-원효사상의 새로운 성찰, 인도 및 중국 불교와의 만남

한국 불교의 바깥에서 바라본 원효!

주로 한국불교의 맥락에서 연구된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도 및 중국불교의 주요한 사상들과 원효사상을 비교 연구하여, 원효 이해의 지평과 원효사상의 외연을 확장하였다.

권오민, 이병욱, 김도공, 김성철, 배경아
신국판/무선/336쪽/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주문 (02) 3672-7181

선禪과 현대미술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예술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작가 〈윤양호의 33회 개인전〉

작품집
ZEN AND MONOCHROME
(선과 단색화) 출간 기념 전시



서양에서의 현대미술은 선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선禪적 지향이 뚜렷하다. 한국의 윤양호는 그 접점에 서 있는 작가 중 한 명이다. 현대미술의 흐름을 아우르면서 그만의 독창성이 어우러진 강렬하면서도 절제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B3판/양장/244쪽/50,000원/운주사

윤양호: 독일 국립 쿤스트아카데미 뒤셀도르프 미술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원광대학교 선조형예술학과 교수이다.

기간 : 2017.05.10-15
장소 : 인사아트센터 | 본전시장(1F)
Tel (02) 736-1020

2030포교에 새로운 활력소 발돋움

창립 40주년 맞은 조계사 청년회

평화·종교간 화합에 앞장
40대 고령화 맞서 회장단 개편
동아리 활동으로 청년불자 흡수


조계사 청년회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2030세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말 오후, 대부분의 사찰은 어르신 불자들의 기도행렬로 붐빈다. 하지만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 자리한 조계사는 예외다. 매주 토요일 조계사에서는 조금은 색다른 법회가 열린다.

바로 조계사 청년회가 주도하는 법회다. 조계사 청년회 토요법회가 열리는 토요일 오후 조계사 대웅전의 넓은 법당은 젊은 불자들로 가득 찬다.

2030포교의 새로운 활력소로 거듭나고 있는 조계사 청년회(회장 한정민)가 6월 3일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전국에 단 2개밖에 없는 대한불교청년회 직할 청년회인 만큼 조계사 청년회는 청년불자조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1983년 제1회 통일기원 도보대행진과 2003년 이라크 반전 평화법회를 여는 등 평화사상을 알리는데 앞장섰으며 함께 1999년 제1회 중급교리 경진대회, 제1회 불교문화테마기행 등 불교 보급에도 나섰다. 또 종교간 화합에도 나서 2002년부터 이웃종교인과의 만남을 열고 있다.

이런 활동에도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회 회원들의 연령대는 평균 40대였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숫자도 40~50명 수준이었다. 최근에는 20대 중심으로 회장단이 구성되며 젊은 세대에 맞는 감성포교가 진행되고 자연스럽게 청년불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조계사 청년회는 만 18세부터 37세 이하의 미혼 남녀가 입회할 수 있으며 2개월간 신입회원 연수를 개최한다. 조계사 청년회 연수원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3명, 2011년 6명, 2012년 21명, 2013년 28명, 2014년 35명 등 청년회원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매주 화, 토요일 정기적으로 열리는 청년 법회에 모이는 청년 대다수가 20~30대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법우는 100명을 훌쩍 넘는다.

많은 사찰의 청년회가 신입회원은 물론 기존회원도 이탈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조계사 청년회의 활성화 원인은 무엇일까.

조계사 청년회는 도반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정기법회를 열고 있다. 화요법회가 직장인 위주의 기도와 치유 법회에 가깝다면 토요법회는 법문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스토리텔링 법회로 진행된다. 150여 명의 정회원들은 한 달에 세 번 이상, 한 법회에 참석해야 한다. 화요법회는 직장인 도반들끼리 함께 법회에서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치유할 수 있기에 참석률이 높다.

또 조계사 청년회는 다양한 동아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예불수행부, 참선수행부, 사찰문화부, 찬불수행부, 생활불교부 등 총 5개 부서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마음비추기(참선), 불화반, 반야율동단 등 동아리활동도 진행 중이다. 특히 동아리 활동은 지역사찰, 외부기관 공연으로 이어지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회원 90%가 25세~35세인 청년불자들로 휴식과 취미활동도 수행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향후 조계사 청년회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문호를 활짝 열 계획이다.

한정민 조계사 청년회장은 "청년 모임이다 보니 전통적인 법회나 수행도 중요하지만 불교를 통해 청년다움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높게만 쌓여있던 사찰의 담을 낮추고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기도 수행의 자리를 마련해 긍정적인 기운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조계사 청년회가 6월 3일 개최한 40주년 기념식에서는 40년을 지켜온 조계사 스님들과 조계사 청년회 출신 스님들에 대한 승보공양과, 청년회 활성화에 기여한 회원들에 대한 시상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청년회 회원들의 첼로, 합창, 율동 등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노덕현 기자



저잣거리 포교 '열린선원' 개원 12돌 맞다

6월 11일 법회,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특별법문



2005년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역촌중앙시장 안에는 작은 선원이 문을 열었다. 시장을 찾는 이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지근거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열린선원(선원장 법현)이다.

저잣거리 수행전법도량으로 유명한 열린선원이 6월 11일 개원 12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특히 이번 개원법회에는 이례적으로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이 법사로 나서 법문한다. 이날 법회에는 김우영 은평구청장, 박주민 · 강병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며 가수 박희진, 국악인 노은주, 무용가 박경희, 풀피리전국회장 성수현, 가람합창단 등의 공연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아울러 쉽고 재미있게 부처님 가르침과 법회의식, 찬불가를 담은 〈가피수행 불교성전〉의 출판법회도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열린선원에서는 '의식(意識)있는 의식(儀式)' 을 주제로 한자와 산스크리트어 등으로 된 의식의 한글화를 추진해왔다.

열린선원은 반야심경 독송을 비롯한 기존 법회의식과 달리 매회 법회 주제와 맞는 경전 구절을 채택해 독송한다. 예를 들어 불공, 시식을 하기 전 천수경을 공통적으로 독송하지만 열린선원에서는 생일불공 등 건강을 기원할 때는 약사여래 관련 경문을 읽는다.

법현 스님은 "자주 읽는 경전 일부를 함께 엮어서 불자들이 가정에서 읽거나 사찰의 법회에서 인용하도록 경전과 찬불가를 함께 엮어서 스님이나 불자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라며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방편으로 세운 것이 열린선원인 만큼, 불교 대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 스님은 태고종 총무원 총무 · 교무 · 사회부장과 교육부원장을 역임했으며, '차례에 술 대신 차 올리기' 캠페인과 한글불교의식, 참선 생활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권위, 협치회 등 활동과 '4차산업혁명과 윤리' 민관협의체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어르신들이 가상현실 영화도 제작해요"

서울노인영화제 VR프로젝트 눈길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에게 VR을 체험하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눈길을 끈다. 서울노인영화제 집행위(위원장 희유)는 어르신들이 뉴미디어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기획,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 '이상한 나라의 가상현실 기획단'을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VR 프로젝트는 서울노인영화제 특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VR콘텐츠를 제작해, 오는 10월 25일 부터 28일까지 4일간 열릴 '제10회 서울노인영화제' 에서 상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노인영화제 집행위는 5월 16일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탑골영화관에서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의 이해와 제작' 를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이날 특강에는 제10회 서울노인영화제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는 손지현 씨가 나서 VR의 의미부터 미국 등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사례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다.

집행위원장 희유 스님은 "어르신들이 VR을 단순히 체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직접 기획, 제작과정에 참여해 스스로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며 "서울노인영화제가 이 과정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0회 서울노인영화제는 10월 2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28일까지 4일 간, 서울 일대의 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동련, 전국어린이 지도자연수회 개최



동련(이사장 성행)은 6월 10~11일 보은 속리산유스타운에서 '제62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를 개최한다. '동심으로 마음의 눈을 활짝!' 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어린이 입장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이 진행된다.

연수회에서는 이틀간 불교상담개발원 이사 혜타 스님의 '명상을 통한 인성교육' 을 비롯해 △설영일 모던이벤트 대표의 '여름불교학교 율동놀이' △이대성 가온평생교육원장의 '우리는 하나-팀별 보드게임' △이영주 행복한 평생교육원장의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대화법' △이현미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심사관의 '손으로 만드는 부처님 세상' 등이 진행된다.

동련 이사장 성행 스님은 "어린이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라며 "연수회에서 지도자들이 동심으로 돌아가 다양한 눈높이 지도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51)864-4665 노덕현 기자

군종교구, 쌍호정사 관음상 점안법회 봉행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5월 29일 인제 육군 2사단 17연대 쌍호정사에서 평화의 종 타종식과 석조관세음보살상 점안법회 및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남해 보리암 주지 능원 스님, 1군사령부 원주 법웅사 주지 보운 김종봉 법사와 김병주 3군단장, 이순선 인제군수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군종교구는 이에 앞서 4월 27일 쌍호정사 재건축 낙성법회를 봉행한 바 있다. 이날 석조로 조성된 관세음보살상은 좌대 1m 40cm에 보살상 2m 60cm로 남해 보리암 능원 스님의 시주로 조성됐다.

산사음악회는 사단 군악대의 아바 메들리, 대금연주를 시작으로 성악과 소조밴드 공연, 색소폰 연주가 진행됐으며 정우 스님의 초청으로 뮤지컬 배우인 남경주, 최정원의 공연도 진행됐다.

정우 스님은 "지역주민과 쌍호부대 장병들과 함께 음악회를 마련하여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포화 속 생사 넘어 창조한 인간상 'Homme'

名論名著 - 생텍쥐페리의 'Homme'와 화엄 사상

본지는 월 1회 새로운 기획물인 '名論名著'를 시작합니다. 불교계의 뛰어난 논저 중 핵심을 요약 정리함으로서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첫 시작은 송마나 작가의 〈생텍쥐페리의 'Homme'와 화엄 사상〉입니다. 〈어린왕자〉로 잘 알려진 생택쥐페리의 전작(全作)에 나타난 'Homme'의 개념 안에 담긴 불교 사상을 해설해 놓은 평론입니다. 〈편집자 주〉

"나의 문명은 신에게 상속해 왔으므로 인간(homme)들을 대문자 '인간'(Homme) 안에서 평등하게 만들었다."

생텍쥐페리와 'Homme'

생텍쥐페리는 비행기 조종사로서 수없는 죽음과 대치하면서생명의 본질과 우주의 근원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이 해답을 얻기 위해 고뇌하는 철학적인 문학가이다. 또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몸소 현실에 참여하는 행동 실천가이다. 따라서 그의 관조적인 사유와 명상 그리고 행동을 통한 경험은 상호 보완적이며, 이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자전적인 작품들을 남겼다.

생텍쥐페리는 작품 속에서 "인간을 지칭할 때 '개인(individu)' '인간(homme)' 그리고 대문자로 된 'Homme'라는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다. 이 세 단어들은 순서대로 인간 정신의 성숙 과정의 단계를 의미한다.

'individu'는 인간 정신의 최하급 단계로 자아(ego)의식에 갇혀서 안이한 사고나 논리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한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삶을 영위하는 인간유형이다.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가 여행하는 여러 별들에서 각각 홀로 살고 있는 왕, 허영쟁이, 주쟁뱅이, 사업가, 점등인, 지리학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homme'는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해 있는 고정관념과 자아의식의 껍질이 깨어질 때 드러난다. 이 자아의식은 안이한 사고와 지속적인 환경에서는 쉽게 파기되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위기 상황이나 직접적인 행동을 체험하면서 아집과 이기심과 고정관념을 벗어나 이타심(利他心)을 느끼고 공동체에서 책임과 애정을 갖는 단계이다.

'Homme'는 생텍쥐페리의 작품에 등장하는 독창적인 단어이다. 이 단어는 〈남방 우편기〉나 〈야간 비행〉 같은 초기 작품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인간의 대지〉에 처음 등장한다. 이후 〈전시조종사〉의 후반부에서 자아가 소멸되어 개체가 전체 속으로 흡수되어 새롭게 창조된 'Homme'가 집중적으로 조명된다. 'Homme'는 자아를 완전히 벗은 대아(大我)로서 자아와 타아의 합일은 물론 우주와의 합일까지 연결되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이다.

여기에서 'Homme'는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초인'을 떠올리게 한다. 니체는 인간의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인 "위버멘쉬(?bermensch)가 들어 설 수 있는 곳에 불교에서는 타타가타(如來)의 개념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보디사트바, 즉 보살이 존재한다"고 했다.

'Homme'와 如來性起

"그대는 '인간'(Homme)이다. 그대는 모든 인간의 얼굴을 동시에 지니고 내 앞에 나타났다. 그대는 절대로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고도 벌써 우리를 알아보았다. 그대는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모든 사람 속에서 그대를 발견할 것이다. 그대는 고귀함과 친절에 둘러싸여 물을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위대한 영주로 내게 나타났다. 내 모든 친구와 내 모든 적이 그대 안에서 나를 향해 걸어온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단 한 명의 적도 없다."

생텍쥐페리의 작품들 중에서 독창적인 어휘, 대문자 'Homme'가 처음으로 등장한〈인간의 대지〉의 한 장면이다.

생텍쥐페리는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준 베두인을 'Homme'라고 부른다. 또 가난한 유목민인 베두인을 신(Dieu)이라고 부른다. 그는 이곳에서 'Homme'를 신, 그리고 영주(chef)와 동일하게 지칭한다. 영주는 〈성채〉에서 인간이 이룩해야할 마음의 성을 건설하는 주인공으로서 신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생텍쥐페리가 믿었던 기독교적인 종교관에서는 그의 신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이단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의 신관을 부정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아랍인을 신이라고 부른다. 그에게 신이란 신분이나 인종, 언어와 종교를 초월한다.

따라서 그는 모든 친구와 적이 하나이며, 이 세상에는 단 한 명의 적도 없다고 한다. 이것은 현상계의 대립적이고 양극적인 개념을 분별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라는 화엄의 성기사상을 드러낸 것이다.

〈전시조종사〉에서도 프랑스 사람이나 노르웨이 사람도 'Homme' 안에서는 하나라고 한다. 더 나아가 〈어린 왕자〉에서는 어린 왕자가 여우와 뱀 그리고 꽃과 나무와도 대화를 나눈다. 이것은 범아일여(梵我一如)의 경지로 모든 자연물과의 합일, 바로 우주와의 합일을 보여준다.

이렇게 성기사상은 온 우주가 비로자나불(法身)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각각의 존재는 저마다의 고유성을 드러내지만 그것들은 일체 총섭의 진여로서 서로 다름이 아닌 것이다.

'Homme'와 '法界緣起'

생텍쥐페리는 뒤죽박죽 섞여있는 사람과 족속과 민족이 하나의 '인간'(Homme)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개체와 전체는 하나라는 '법계연기(法界緣起)'의 사상이다.



생텍쥐페리의 생전 모습. 그는 1,2차 세계대전을 참전한 비행사이면서 문학가였다. 동시에 최고의 인간성을 복원해 올바른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실천가였다.

전쟁 속에서 생사 위기 넘기며
새로운 인간상 'Homme' 정립
화엄의 性起·緣起·보살행 내재
Homme통해 공동체 구현 주장

"'인간'(Homme)은 신 안에서 형제나 다름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이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형제가 될 수 있다. 이들을 묶어주는 매듭이 없다면, '인간'(Homme)은 그저 병렬로 나란히 놓인 존재에 불과하지."

생텍쥐페리는 '인간'(Homme)이 신과 형제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들을 서로 이어주는 것은 매듭이라며, 묶어주는 매듭의 중요성을 말한다. 그렇다면 서로 막힘이 없이 연결되어 있는 화엄법계는 인드라망의 비유와 흡사하다. 그물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주망 역시 동시상호의 인과관계와 상입(相入)으로 걸림이 없는 만유(萬有)로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신라시대의 의상(義湘 625~702) 또한 〈일승법계도一乘法界圖〉를 통하여 원융한 법계연기를 밝혀준다. 이것 역시 시작과 끝이 없이 이어져 끊임없이 순환하는 인드라망과 같다.

김진은 〈화이트헤드와 화엄형이상학〉에서 위와 같은 의상의 해인도(海印圖)에 의거한 오딘의 해석을 인용하여 화엄의 법계연기를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화엄의 개념체계에 의하면 다르마는 선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적인 것과 후속하는 것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인과적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화엄의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들은 동시에 상입상즉이 가능하다."

인간은 인간 뿐 아니라 자연까지도 하나로 융섭하고 있다. 우주의 존재론적 결합성은 전체와 객체, 주체와 대상과 같은 상대적인 대립자들의 변증법적 진입(dialectical penetration)으로 조화와 통일을 이룬 '연장적 연속체'이다. 'Homme'에는 연기(緣起)의 존재론이 인과(因果)에 의한다는 법계연기가 오롯이 담겨 있다.

'Homme'와 보살행

생텍쥐페리에게 명상의 결론은 행동을 통한 실천으로 나타난다. 명상은 정신이고 행동은 육체라는 도구로 인하여 드러난다. 이러한 깨달음은 체험을 통해 인본주의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보살의 상구보리(上求菩提)가 생텍쥐페리에게는 행동의 초월적인 의지로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장면을 〈야간 비행〉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 동안 기차와 선박보다 빠르게 비행하여 이겨놓은 것을 매일 밤에 잃고 있으니까 말이다."

야간 항로 개척은 인류 문명에 획을 긋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생텍쥐페리는 이 개척에 동료인 메르모와 기요메와 함께 참여하였고, 이 체험을 바탕으로 〈야간 비행〉을 썼다. 당시 비행기는 레이다가 없고 엔진, 날개, 방향타 등 기본적인 요소로만 이루어져 폭풍우나 눈보라가 치는 밤에 야간 정기 항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이루어낸 생텍쥐페리의 초월적인 행동은 아집을 탈피하여 구경(究竟)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인간'(Homme)을 내안에서 간구하는 상구보리이다.

생텍쥐페리에게 있어 하화중생(下化衆生)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으로 나타난다. 그의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모두가 직접적인 행동을 통한 현실참여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공동체적 의식으로 나아간다. 그가 공동체에 귀속감과 애정을 표현하는 구절들은 수없이 많다.

"신을 계승하는 이 문명은, 각각을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자로 만들었다. 한 개인은 전체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희생해야 하며, 여기서는 그게 어리석은 계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을 통한 '인간'(Homme)에의 존중이다."

인간은 신에 있어 동등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동일한 의무를 갖는다. 그래서 각자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책임자가 된다. 개인이 공동체의 '인간'(Homme)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희생이며, 이것이 바로 자비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기법에 의하여 만물과 내가 서로 상입상즉(相入相卽)하여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였다. 때문에 보살은 모든 중생에 대해 자비로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까닭에 보살은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실천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화엄의 깨달음은 중생 구제의 보살행을 필연적으로 이끌어간다.

생텍쥐페리는 1, 2차 세계대전을 겪어야하는 비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참하게 죽어가는 생명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인간'(Homme)을 창조한다. '인간'(Homme)은 자신을 극복하여 인간 정신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신'과 같은 존재이다. '인간'(Homme)은 자기 속에서 태어날 새로운 '인간'(Homme)으로서 '나'를 일컫는다.

생텍쥐페리는 이 '인간'(Homme)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본질이며, 내가 속한 공동체의 열쇠라고 했다.

'인간'(Homme), 이것에는 너와 나는 신(神)의 성(性)이 깃든 법신(法身) 자체이므로 불이(不二)라는 성기(性起)사상과, 너와 나는 물론이고 삼라만상까지 인연에 의하여 유기체를 이룬다는 연기(緣起)사상이 담겨있다. 생텍쥐페리는 이와 같은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휴머니즘의 공동체를 위하여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행동의 본질은 희생이며, 바로 화엄의 보살행이다.

인류를 위한 새 문명의 창조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생텍쥐페리, 그는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최상의 경지에 이른 'Homme'였다.



송마나 작가는
전남 완도 출생. 이화여자대학교 외국어교육학과 졸업. 2016년 〈에세이 문학〉 등단. 2017년 〈한국산문〉 평론 등단.

포산당 혜인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다례재

대한불교조계종 제 10교구 본사 은해사 조실, 제주 약천사 회주이셨던 포산당 혜인대종사의 열반 1주기를 맞이하여
큰스님의 수행정신과 덕을 기리는 추모다례재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큰스님과 인연 있으신
사부대중께서는 왕림하시어 자리를 함께 해주기를 앙망합니다.

다 음

● 일 시 : **불기 2561(2017)년 6월 13일 (화, 음 5.19)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은해사 육화원
● 연락처 : 054)335-3318 ~ 9 종무소
054)335-5220 원주실



대한불교조계종 제 10교구 본사 은 해 사 주지 운곡 돈관 분향 삼배
포산 문도대표 덕조 구배

품격·위엄 섞인 서구美, 불교美가 되다



윤범모 교수의 '佛道紀行'
– 붓다가야에서 토함산 석굴암까지

⑩ 동서문화의 찬란한 결합 간다라 불상

18-19세기 서구 열강들은 세계 각국을 자신들의 먹이 터로 나누어 가졌다. 제국주의의 깃발이 힘차게 휘날리던 시대였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도 침략국의 하나였다. 유럽 사람들에게 유린당한 곳은 아시아, 아프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등 이른바 제3세계였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위대한 민족, 그것도 붓다의 나라 인도, 인도 역시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제국주의의 깃발은 내려지기 시작했다.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인도는 해방되었다. 하지만 이슬람 문화로 물든 북부지역은 딴 살림을 차렸다. 바로 오늘날의 파키스탄을 일컫는다. 당시 파키스탄은 국토를 동과 서로 분리하여 독립했다. 결국 동 파키스탄은 뒤에 방글라데시로 다시 독립했다. 오늘날의 파키스탄 지역, 바로 이 일대가 간다라 문화의 요람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힌두쿠시 산맥 아래의 카불 분지, 페샤와르 분지, 펀잡 등의 지역이다. 간다라, 아, 간다라!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나이가 있었다. 기원전 327년, 그의 나이 불과 스물아홉 살, '드디어' 그는 힌두쿠시 산맥을 넘었다. 청년은 그의 고향 마케도니아에서 출발하여 세계 정복전쟁 길에 나선지 7년을 보냈다. 장장 2만 5천km, 엄청난 대장정이다. 인도에 이르기 전 알렉산드로스는 이미 이집트를 점령했고, 페르시아 제국 등을 유린했다. 엄청난 정복욕의 결과였다. 그래도 그렇지, 알렉산드로스 군대는 어떻게 아시아까지 눈을 돌려 '세계 정복'을 도모했을까. '대왕' 알렉산드로스 앞에 탁실라 왕은 저항은 커녕 그냥 무릎을 꿇기도 했다. 오늘날 간다라 지역은 그래서 그레코 로만 계통의 미술, 즉 간다라 미술의 온상이 되었다. 달리 표현한다면,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인 아시아의 대표적 지역으로 꼽히게 되었다. 한 청년이 '겁도 없이' 쳐들어와 남긴 과외의 '유산'이었다. 동서문화 결합의 독특한 결과였다. 달리 표현한다면, 동서 최고급 문화의 결합, 즉 유럽 헬레니즘과 인도 불교문화의 결합, 바로 간다라 문화였다.

헬레니즘이라. 그것도 인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헬레니즘이라,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 없다. 사전식 정리를 하면, 헬레니즘은 그리스의 사상과 생활양식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하여 헬레니즘 시기라 하면, 알렉산드로스 동방원정(기원전 334년)부터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악티 해전 패배 이후, 즉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패망까지 3백년 간을 말한다. 헬레니즘의 동전(東傳), 인류사의 한 전환점인가. 불상 기원설과는 무관하게 불상 제작의 화려한 시대를 열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동양미술사에서 말하는 5백년의 '무불상 시대', 이를 접고 드디어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누가 불상을 먼저 만들기 시작했는가. 마투라와 간다라. 오늘날 불상기원설 관련의 논쟁을 말한다. 대표적 학설의 주인공은 'A. 푸쉐 : 쿠마라스와미', 즉 '간다라 : 마투라'의 싸움이다. 서구의 간다라 기원설에 맞선 인도 민족 자생설과의 대결이다. 이 같은 마투라와 간다라의 원조 논쟁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 마투라와 간다라의 동시 기원설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는가.

즉, 쿠샨 왕조의 이전인가, 이후인가. 세계 학계의 논쟁과 연구성과는 눈부시게 하고 있다. 그런 성과의 하나로 쿠샨 왕조 카니슈카 왕 시대의 명문 있는 불상 조성을 확인했다. 그래서 불상 기원은 기원전 1세기 후반에서 2세기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영향 관계는 그리스 영향, 로마 영향, 그레코-이란 양식의 영향, 마투라 영향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간다라 기원설의 대표학자 푸셰는 논문 〈불상의 그리스적 기원〉(1913)을 발표하고, 이후 〈간다라의 그리스적 불교미술〉을 발표했다.

거기서 푸셰는 간다라 불상의 그리스풍과 아폴론 신상과의 유사성을 말했다. 즉 깊은 눈, 콧날의 선, 계란형 얼굴, 물결모양의 머리카락, 옷 주름 등의 특색을 설명했다. 하지만 불상을 감싼 가사, 기다란 귓밥, 머리카락을 묶은 육계, 미간의 백호, 애조 띈 표정 등은 그리스 신상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간다라 불상의 작가는 그리스인 아버지와 인도인 어머니 사이의 혼혈로 보는 견해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오늘날 숱하게 남아 있는 간다라 불상은, 한마디로 걸작 반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 감탄사를 연발하게 한다.

어떻게 이렇듯 품격 높은 작품을 만들었을까. 바로 아름다움과 깨달음의 화신, 간다라 작품에서 감동을 끌어안는 것은 자연스럽다. 왜 그럴까. 원래 깨달은 이의 형상을 만들지 않던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 이렇듯 멋진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을까. 분명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오늘도 '걸작의 행진'을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스 신상인가 했더니, 바로 깨달음의 화현 붓다 이미지가 아닌가.

헬레니즘 문화 받아들인 간다라 지역
그리스·인도의 타문화 존중 현장
마투라와 불상 기원설 논쟁 전개
인체 비례미 강조·정면 입상 특징

그리스 신상이라면, 비너스를 연상하게 한다. 8등신의 늘씬한 키에 적당한 볼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비례의 아름다움, 아니, 그냥 아름답다. 그 이상 무슨 사족이 필요할까. 그리스 여신의 조각이 자아내는 느낌을 간다라에서 재현할 수 있다면, 바로 간다라의 문화적 특성과 맞물리는 부분이다. 그리스 신상과 불교문화와의 결합. 간다라 불상의 출발이다.

인체의 비례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간다라 불상은 대개 입상이다. 서 있는 모습, 거기서 아름다움의 실체를 보게 한다. 물론 가부좌 자세도 있다. 이는 인도 요가 수행의 자세를 반영했을 것이다. 불상은 대부분 정면상이다. 공양자가 공양물을 올리는데도 붓다는 공양자를 쳐다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를 염두에 두게 한다.

정면은 위엄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집트 조각에서 이런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입상, 간다라에서 본다. 조선시대 임금 초상화의 경우, 대게 정면에서 그렸다. 정면관은 시대를 뛰어넘어 권위의 상징인가 보다. 하기야 고개를 숙이거나 옆으로 돌리면, 그만큼 인간미가 묻어난다. 몸을 세 번 구부린 삼굴(三屈) 자세는 보살상에서나 볼 수 있지, 여래상에서 보기 어렵다. 반듯한 자세, 게다가 정면 직시의 모습, 거기서 권위와 위엄을 자아낸다.

간다라 불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왕후 귀족 모습 같은 품격 높은 분위기를 보인다. 옷차림도 눈길을 끈다. 우선 온몸을 커다란 천으로 감싼 단순한 모습임을 알게 한다. 치장을 위한 어떤 장신구도 없다. 단순함 속에 깊이를 넣었다. 조각가의 능력이기도 하겠지만 당시 사회 풍습의 반영이기도 할 것이다.

불상의 외형적 특기 사항은 바로 헤어스타일이다. 인도 역시 출가 사문은 삭발했을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상은 머리카락을 표현하고 있다. 아니, 삭발은커녕 기다란 머리카락을 틀어 올려 상투처럼 강조했다. 불상의 머리카락 표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 터번을 두른 것 같은 모습. 32상의 하나로 강조할 만큼 땋아 올린 상투, 그것은 대인(大人)의 모습을 표현하려는 인도의 전통이었을 것이다. 이 같은 우슈니샤를 한역경전에서는 육계(肉) 즉 '살상투'라고 번역했다. 머리 정수리에 혹처럼 솟아오른 부분. 이는 실제의 모습이었을까.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 상투처럼 머리카락을 틀어 올린 것일까. 아무튼 상투 모습의 헤어스타일은 간다라 불상의 특징이다. 바로 '붓다 이미지'를 대표하기도 했다. 간다라 불상의 얼굴에 나타난 도상학적 특징으로 미간 사이의 백호(白毫)를 들 수 있다. 더불어 육신에서 뿜어 나오는 광채, 특히 머리 뒤에서 나오는 빛. 이를 상징하는 광배가 있다. 광배, 이는 몸에서 뿜어 나오는 빛의 상징이라. 어쩌면 헬레니즘의 영향일까.

나는 간다라를 걷는다. 파키스탄의 땅, 오늘날 이슬람의 땅을 걷는다. 불교의 시대는 가고, 역사책에 남아 있는 과거의 현장을 답사한다. 과거의 영화는 초라하다. 아니, 이슬람은 형상 자체를 부정한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에 들어가면 아무런 치장이 없다. 교주의 모습은커녕 그 흔한 십자가도 없다. 다만 메카를 향하여 예배를 올릴 뿐, 텅 빈 실내 공간, 그것이 모스크의 진면목이다. 그건 그들의 교리에 의한 결과이리라. 그렇다고 타종교의 존상까지 파괴할 것은 무엇인가. 탈레반의 바미얀 석굴 파괴는 인륜사의 엄청난 만행이었다. 나도 간다라 지역을 통과하면서 몇 차례나 곤경을 겪기도 했다. 총격전을 목격하기도 했다. 장총을 든 군인이 내가 투숙했던 호텔을 호위하기도 했다. 현지 군인의 보살핌 아래 파키스탄과 아프카니스탄의 국경지대를 가기도 했다.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북쪽의 옥서스 강 유역에 아이하눔 도시유적이 있다. 이를 비롯 페샤와르 분지의 푸슈칼라바티, 탁실라의 비르 마운드, 시르캅, 시르숙 등은 그리스인이 건설한 유적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이하눔은 그리스 풍의 광장, 궁전, 신전, 원형극장 같은 유구가 있다. 유적에서 아테나, 헤라클레스, 디오니소스, 에로스, 티케, 아폴론, 헤르메스, 아틀라스 같은 그리스 신상을 만날 수 있다. 라호르 뮤지엄 소장의 아테나 상은 그리스 신상으로 아테네의 수호신이며 전쟁의 여신이다. 또한 사자 머리의 헤라클레스는 간다라의 바즈라파니 모습이고, 또 동북아시아의 사천왕상과 연결된다.

나는 페샤와르 혹은 라호르 뮤지엄 가기를 즐겼다. 간다라 불상들이 즐비하게 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타종교의 권역에, 그것도 뮤지엄 진열장 안에 갇혀 있지만, 감동을 자아내는 것은 숨길 수 없다. 간다라, 간다라는 뜨거운 감동의 현장이다. 2천년이 흐른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다. 간다라, 간다라가 과연 무엇이길래?

〈미술평론가,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사진=황헌만 사진작가



간다라 양식이 극명히 드러나는 부처 정면 입상.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등록번호 : 138-50-00260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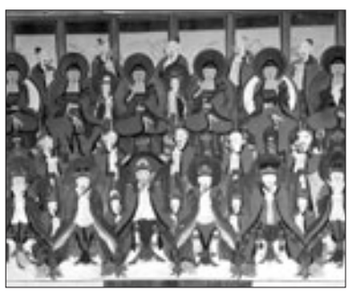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 소장학자 지원사업 공모

(사)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는 불교학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제14회 소장학자 연구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사업은 박사학위 논문 지원과 불교 관련 번역 지원으로 나눠 진행된다. 논문 지원 부문 인원은 2명이며 1인당 500만원이 지원된다. 번역 지원은 인도 · 동아시아 부문 각 1명으로, 불교학 관련 원전 및 외국어 단행본을 번역해야 한다. 지원금은 1인당 1천만원이다.

공모 접수는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며, 지원자는 소정 양식의 이력서와 학위 논문 및 번역계획서 · 번역 원고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결과는 9월 중에 개별통지하며 불교계 언론을 통해 공고된다. 또한, 선정될 경우 본 법인에서 출판지원비를 보조해 도서출판 CIR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다. 신성민 기자



고령 관음사 칠성도 문화재청 문화재 등록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고령 관음사 칠성도〈사진〉' 등 총 5건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경기도 청사 구관'을 포함한 4건을 등록 예고했다"고 5월 29일 밝혔다. 등록문화재 제684호가 된 '고령 관음사 칠성도'는 화기를 통해 1892년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 전기(典琪) 등의 제작자, 그리고 증명(證明) · 송주(誦呪) · 지전(知殿) · 시주(施主) 등 제작체계와 후원자를 알 수 있어 이 시기 불화 연구에 있어 기준 자료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인물의 얼굴과 옷 주름 등에 명암법을 도입하여 입체적 생동감이 느껴지며, 주존과 권속들을 대등하게 등장시킨 파격적인 시도와 병풍을 배경으로 마치 단체 사진 찍듯 존상들을 배치한 구도와 형식은 개화기 전후 근대기 작가의 새로운 창작 의지가 돋보인다.

이밖에도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천로역정(합질)' '조선요리제법' 등이 등록문화재가 됐다. 신성민 기자

기신론 신회본 · 종합DB 등 원효학 연구 토대 만든다

2년차 맞은 울산대 원효 토대연구사업

해석학적 번역 방식 첫 도입
메주 1회 讀會로 검토 · 연구
신회본 · 착간 교정 · DB 구축
"새 연구 · 이해의 길 열릴 것"

원효 스님의 저서와 문헌을 '해석학적 번역'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번역하는 연구 사업인 울산대 원효 토대연구사업이 2년차를 맞았다.

기존 현토형 번역이 아닌 연구자들의 해석적 이해를 통해 번역된 연구물들이 쏟아지고 있다.

울산대 원효 토대연구사업팀을 이끌고 있는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는 최근까지의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2년차를 맞은 원효 토대연구사업은 △〈대승기신론별기〉와 〈대승기신론소〉의 번역과 교감 △〈대승기신론소 · 별기〉의 신회본(新會本) 편찬 △신수대장경과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기신론소〉 착간 내용 확인 교정 △〈이장의〉 번역 · 교감 △종합 해제 및 DB 구축 등의 성과를 냈다.

특히 신회본의 편찬은 눈길을 끈다. 〈별기〉와 〈소〉의 연구가 조선시대에 편찬된 '회본'에 기인하지만, 기존 회본에는 원효의 관점 변화 등을 감안하지 않아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했다.

박 교수는 "기존 회본에 의지 않고 〈별기〉와 〈소〉를 번역하고, 양자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본 '신회본'을 편찬했다"며 "이번 신회본은 〈별기〉와 〈소〉의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고 어떤 내용들이 변화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원효 연구의 새로운 통합 저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효 연구의 기초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한 '종합해제'도 주목할 만하다. 연구팀은 원효의 주석 및 저술을 비롯해 연구사 목록 · 핵심 개념 · 인용 경론까지 모두 망라해 DB화했다. 이 같은 원효 종합 해제는 연구가 마무리 되는 즉시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저서 번역을 중심으로 한 원효 토대연구사업의 특징은 '해석학적 번역'이라는 새로운 번역 방식에 있다. 더 정교한 번역을 위해 매주 1회 독회(讀會)를 진행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고 있다.

박 교수는 "원효 토대연구사업은 번역 양식에 대한 문제의식서 출발했다"면서 "번역 방식을 달리해야 의미있고 축적 · 계승 가능한 번역이 이뤄진다. 이번 연구는 현존 원효 저술을 모두 '해석학적 번역양식'에 따라 번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번역자의 이해를 통해 명확하게 전달하는 번역은 전문 연구자나 일반 독자 모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효 토대연구사업은 오는 2020년 8월까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임 연구원 4명, 공동연구원 5명이 참여 중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최초 발견 '명칭가곡', 불교 가곡 영향"

정각 스님, 동불연 세미나서
보광사 지장보살상 전적 분석
'제불가곡' 국내서 최초 발견
조선 불교 가곡 정립에 기여

속초 보광사 지장보살좌상 조사 중 확인된 복장 · 전적 중 '제불여래보살명칭가곡'이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조선 불교 가곡 정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승가대 교수 정각 스님은 5월 27일 동북아미술연구소(소장 석문)과 보광사가 주관 ·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각 스님은 발표 논문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복장 전적 연구'에서 복장발원문 · 중수원문 · 대불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 제불여래보살명칭가곡 등의 서지 · 전적류를 연구 ·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주목한 것은 '제불여래보살명칭가곡(이하 명칭가곡)'이다. 명칭가곡은 명나라 영락제가 편찬한 것으로 서원과 예참가곡 · 공양 · 참회 · 회향 등이 담긴 일종의 '예참가곡'이다. 조선에는 태종 17년(1417)에 전래되며, 승과에는 명칭가곡을 외우는 것이 과제로 제출되기도 했다. 이 같은 명칭가곡이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 있는 사례다.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에서 나온 '제불여래보살명칭가곡.' 국내에서는 처음 발견된 것으로 명나라 영락제가 편찬해 조선 태종대에 전래됐다. 이 가곡은 조선조 불교가곡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정각 스님은 "'명칭가곡'에 실린 가곡은 조선조 불교가곡(佛敎歌曲) 정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세종이 친제(親製)한 불곡(佛曲)을 탄생시킨 계기가 됐다"고 주장하며 "1449년 내불당 낙성식을 기해 연주된 세종의 친제한 '사리영응기'에 언급된 신작 7곡은 '명칭가곡'에 실린 가사를 토대로 작곡됐다"고 설명했다. 발견된 '명칭가곡'의 변상도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정각 스님은 "'명칭가곡'의 변상도는 조선 초기 경전 변상도 도상 정립에 영향을 미쳤다"며 "간경도감 간행의 〈묘법연화경〉 변상도의 경우 '명칭가곡'에 실린 변상도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경 · 배순화 서울여대 의류학과 교수는 '속초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복장 직물에 관한 고찰'에서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복장 직물은 색상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출토유물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큰 의의가 있으며, 17세기 문직물의 편년 설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요정 충북대학교 초빙부교수는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의 재질 및 연륜연대분석'이란 연구발표를 통해 목조지장보살좌상의 재질을 분석한 결과 몸체, 수인, 밑판, 복장구 모두 피나무임을 밝혔다.

신성민 기자

유가행파 국제 연구 성과 나왔다

금강대 · 日 다이쇼대, '성문지와 불교사본' 발간

유가행파 문헌과 사상에 대한 국제적 연구의 성과가 담긴 연구서가 발간됐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성철) 인문한국(HK)연구센터는 "하버드동양학총서(Harvard Oriental Series) 제75권 〈요가수행자의 불교적 바탕〉을 잇는 후속 유가행파 연구의 성과물인 〈성문지와 불교사본〉을 일본 다이쇼(大正)대 종합불교연구소와 공동으로 영문 출판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이 책은 크게 제1장 〈성문지〉를 비롯한 유가행파 문헌과 그 사상에 관련한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한 논문 6편과 제2장 〈성문지〉 사본을 비롯한 불교사본 전체로 그 범주를 넓힌 논문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 학자들도 면모도 눈길을 끈다. 금강대에서는 박창환 · 이영진 · 차상엽 교수가, 다이쇼대에서는 아베 타카코 · 이시다 카즈히로 · 나카시마 준도 교수가 참여했다. 또한, 로버트 크리처 교토노트르담대 교수, 야마베 노부요시 와세다대 교수, 다니엘 스튜어트 사우스카롤리나대 교수, 사캬 수단 도호쿠대 교수 등도 연구진에 이름을 올렸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와 일본 다이쇼대 종합불교연구소가 함께 펴낸 〈성문지와 불교사본〉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연구센터 관계자는 "영문 출판본은 연구센터의 아젠다와 정확히 일치하는 연구결과물"이라며 "국내 불교학계에는 소개되지 않은 범어사본과 티벳어사본 등으로 그 연구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출간으로 금강대 불문연은 세계 유가행파 연구의 중심지이자 선도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면서 "영문 저술을 통한 세계학회와의 소통 노력과 다이쇼대 종합불교연구소 등 세계적인 불교학연구소와의 지속적인 후속 연구 추진도 주목할만 한다"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韓日 정토사상, 어떻게 같고 다른가

日불교사독서회, 학술세미나 및 〈나무아미타불〉 고불식

한국과 일본의 정토사상을 비교 ·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일본불교사독서회는 5월 26일 목우선원서 '한일 정토사상의 비교'를 주제로 제12회 학술 세미나와 야나기 무네요시의 저서 〈나무아미타불〉 한국어판 발간 고불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한명숙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정토종의 종지는 불교의 근본사상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를, 박오수(동국대 한국불교융합학과 박사과정) 씨가 '서원과 미'를, 김호성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일본불교사독서회장)가 '출가, 재가, 그리고 비승비속'을 각각 발표했다.

특히 첫 발제자로 나선 한명숙 교수는 정토교가 하열한 중생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떤 중생에게 유의미한 가르침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 교수는 "자력신앙이 가능하면 그것을 행하지만 타력신앙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선택해도 무방하다"며 "그러나 타력신앙에 의해서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상황을 벗어났을 때는 그보다 상위의 길인 자력신앙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일본불교사독서회는 5월 26일 목우선원서 '한일 정토사상의 비교'를 주제로 제12회 학술세미나와 야나기 무네요시의 저서 〈나무아미타불〉 한국어판 발간 고불식을 개최했다.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6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解脫知見에 대해

'참 앎(知)'과 '참 봄(見)'은 깨달음의 완성을 의미한다. 예불문(禮佛文)에서 해탈지견(解脫知見)은 계(戒), 정(定), 혜(慧), 해탈(解脫)의 완벽한 충만을, 완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참 앎과 참 봄을 이룬 자는 헤매거나 헐떡이지 않는다.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는다. 꾸밈이 있거나 돋보이려 드러내지 않는다. 있으면 있는 대로 고마워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받아들이며 감사히 만족하며 당당하면서도 넉넉하다.

집착이 모든 병의 원인임을 살펴 열고 닫음이 자유롭다. 작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이 걸림이 없이 오고가나 나누는 기쁨을 생활화한다.

행복은 만족에서 비롯되고 불행은 견줌의 버릇에서 시작된다. 소유욕은 키울수록 병이 되고 욕심은 버릴수록 편안하다. 몸과 마음이 분주하면 탈이나 재앙을 부르고 생각과 행동이 단순하면 느긋해 단잠을 이룰 수 있는 법이다.

입으로는 막힘이 없는 자유와 다함이 없는 행복을 노래 부르지만 낮과 밤의 행동이 같지 않다면 그는 허명(虛名) 허세(虛勢)의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는 '업덩이' 중생일 따름이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설법에는 메아리는 커녕 중생들의 번뇌만 깊게 할 뿐이다. 명예를 앞세우며 돈과 세력 키우는 일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이름이 수행자 일뿐 진정한 의미의 수행자는 아닐 터이다.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나누는 일에까지 인색하다면 그는 얼간이요 머저리 등신이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는 것, 홀로 와서 홀로 떠나는 것, 챙기고 모으는 것 없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한, 기쁨 충만의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것이다.

드러내고 감출 것 없는, 궁금한 의혹이 남아있지 않는, 순수함과 진솔함 그대로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가 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 행복인이 되는 것이다. 해탈지견(解脫知見)은 깨달음의 완성을 의미한다. '생활이 도(生活是道)'요 '마음이 부처(心卽是佛)'이기 때문이다.

거짓보다는 진실하게, 꾸밈보다는 진솔하게, 마음 편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방편 쪽으로만 치닫지 말고 열린 진리의 세계를 펼쳐 보여야 한다. 진리는 숨어 있거나 높고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물처럼, 공기처럼, 자갈처럼, 빨래처럼 숨어 있지 않고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 그대로가 진리이며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인 것이다.

다만 머뭇거리며 망설이며 생활의 하나하나에 마음이 머물러 집착을 키우다보면 진리는 먼 곳으로 아득히 사라지는 것이다.

행복과 자유는 느낌으로부터 비롯된다. 느낌이 밝은 빛이면 행복이요, 자유지만 느낌이 어두운 그림자 쪽으로 기울면 그 자체가 불행이요, 속박이기 때문이다. 사람살이의 8할은 느낌으로 끌어당김과 밀어냄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살이의 큰 비중인 사랑놀이에 있어서도 느낌으로 불이 붙는 빨려듬과 빨아당김으로 시소게임을 즐기지만 대화의 단절과 이해의 결핍으로 상대 가슴에 방아쇠를 당기듯 멀어지는 것이다.

자, 글의 흐름을 다시 '참 앎'과 '참 봄'으로 되돌려 그 의미를 되살려보자. 막연한 추측으로 머리 굴린 생각으로 주어들은 상식으로 짜깁기식의 지식모음으로는 앞도 캄캄하고 뒤도 캄캄한 흑암(黑暗)의 무리일터.

간절심으로, 참으로 오롯한 간절심으로 생사(生死)마저 벗어버린 지극한 간절심으로 마음모아 '참 앎'과 '참 봄'을 이루어야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진리를 알면 자유인이 되기 때문이다. 진리를 보면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꾸미고 드러낼 것 없이, 챙기고 모으는 것 없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한, 기쁨 충만의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것이다.

참된 知·見은 깨달음의 완성
일상이 진리, 마음이 부처

발우 하나로 천가의 밥을 빌며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발우 하나로 천가(千家)의 밥을 빌며 외로운 몸 만 리를 떠도네. 푸른 눈, 알아주는 이 없으니 흰 구름에게 갈 길을 물어 볼까나?(一鉢千家飯 孤身萬里遊 靑目睹人少 問路白雲頭)"

읽어보면 애틋하게 가슴이 저려오는 시이다. 운수송(雲水頌)으로 알려진 이 시는 포대화상(布袋和尙)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다. 이 시가 그의 생애를 대변하는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지는 시이다. 운수행각을 하는 수도자의 애환이 엿보인다. 구름처럼 물처럼 정처 없이 떠돌며 유랑으로 일생을 보낸 그도 어쩌면 자신을 알아주는 지기(知己)가 없어 무척이나 외로웠는지 모른다. 구름에게 길을 묻는다는 마지막 구가 세상을 초월한 자의 자유보다 그리움의 향수가 묻어나는 것 같다.

포대화상은 정확한 생몰연대가 알려져 있지 않다. 양나라 때 명주(明州) 봉화(奉化)출신이었다는 것만 밝혀지고 성(姓)도 미상이라 하였다. 다만 〈전등록〉 27권에 의하면 그가 스스로 밝힌 그의 이름이 계차(契此)였다고 한다. 그는 기이한 언행으로 세상을 살아 숱한 일화를 남김 전설적인 인물로 부각되어 있다. 몸이 뚱뚱하고 배가 늘어져 이상한 모습을 하고 지팡이 끝에 자루를 메고 다니면서 무엇이던지 보면 달라고 해 그 속에 넣어 담고는 사방을 떠돌아 다녔다고 한다. 사람을 만나면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날씨나 길흉화복에 대한 것을 말해 정확히 맞추기도 했다.

일정한 주처(住處)가 없이 아무 데나 누워 자고 다니며 항상 긴 자루를 메고 다닌다고 해서 때의 사람들이 포대화상이라 불렀으며 또 장정자(長汀子)라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가끔 이적을 보이기도 하였다.

눈 속에 누워도 눈에 옷이 젖지 않고 비가 오려고 하면 젖은 짚신을 신고서 길바닥을 뛰어 다니고, 심한 가뭄이 들 때는 굽 높은 나막신을 신고 저자의 다리 위에서 무릎을 세우고 자니, 사람들이 이것으로 날씨를 짐작했다.

〈전등록〉에는 그가 어떤 스님과 나눈 짤막한 대화가 소개되어 있다.

포대화상이 길모퉁이에 서 있는데 어떤 스님이 물었다.

"스님,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누구를 기다리오." "왔습니다. 왔어요." "그대는 그 사람이 아니오." "어떤 것이 그 사람입니까?" "내게 돈 한 푼 주시요."

포대가 노래를 불렀다. "오직 이 마음을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만이 부처이니 시방세계에 가장 영특한 물건일세. 가로 세로 묘한 작용 신통한 그놈이니, 온갖 것이 마음의 진실함만 못하다네.(只箇心心心是佛 十方世界最靈物 縱橫妙用可憐生 一切不如心眞實)"

"팔팔하고 자재하면서도 하는 바가 없으니, 한가롭고 한가로운 끝이 출가한 장부일세. 만약 눈앞의 참된 도를 본다고 해도 털끝만큼도 기특하게 여기지 않네.(騰騰自在無所爲 閑閑究竟丈夫兒 若睹目前眞大道 不見纖毫也大奇)"

"만법이 무엇이 남다르고 마음은 무엇이 다르기에, 어찌하여 수고롭게 경전의 뜻을 찾나? 심왕(心王)은 본래 스스로 분별이 끊겼으니, 지혜로운 이는 오직 배울 것 없는 경지만을 밝힌다네.(萬法何殊心何異 何勞更用尋經義 心王本自絶多知 智者只明無學地)"

"범부도 아니요 성인도 아니거니 다시 무엇이라 하리오. 억지로 분별하지 않으면 거룩한 정이 우뚝할 뿐, 값 매길 수 없는 마음구슬이 본래 원만하고 깨끗하거늘 범부는 다른 형상이라 하면서 망령되이 부질없이 부른다네.(非聖非凡復若乎 不强分別聖情孤 無價心珠本圓淨 凡是異相妄空呼)"

"사람이 능히 도를 펴면 도가 분명해지나니, 한량없이 맑고 높음을 도의 정(情)이라 부른다오. 비단을 끌고 고국(故國)의 길에 오르기만 한다면 어디서나 도의 소리 듣지 못할까 근심하지 말게나.(人能弘道道分明 無量淸高稱道情 携錦若登故國路 莫愁諸處不聞聲)"

포대화상이 입멸 할 때에 반석 위에 단정히 앉아서 게송을 읊었다. 그의 임종게(臨終偈)이다.

"미륵, 참된 미륵이여! 천백억으로 몸을 나누어 때마다 그때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건만 그때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더라.(彌勒眞彌勒 分身千百億 時時示時人 時人不自識)"

게송을 마치고 편안히 앉아 떠났다. 그런데 그 뒤 다른 고을 사람들이 여전히 포대(베자루)를 메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 하였다. 이에 사부대중이 다투어 그의 형상을 그렸다.

미혹을 걷어내는 일, 참된 보시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㉒ 무위복승분

須菩提 如恒河中所有沙數 如是沙等恒河 於意云何. 是諸恒河沙 寧爲多不.
(수보리 여항하중소유사수 여시사등항아 어의운하. 시제항아사 영위다부.)
須菩提言 甚多 世尊. 但諸恒河 尙多無數 何況其沙.須菩提 我今實言告汝.若
(수보리언 심다 세존. 단제항아 상다무수 하항기사.수보리 아금실연고여.약)
有善男子 善女人 以七寶 滿爾所恒河沙數 三千大千世界 以用布施得福多不. 須
(유선남자 선여인 이칠보 만이소항하사수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득복다부. 수)
菩提言. 甚多 世尊.佛告. 須菩提 若善男子 善女人 於此經中 乃至 受持四句
(보리언. 심다 세존.불고. 수보리 약선남자 선여인 어차경중 내지 수지사구)
偈等 爲他人說 而此福德 勝前福德
(게등 위타인설 이차복덕 승전복덕)

"수보리야, 항하 가운데 있는 모래 수와 같이 그렇게 많은 항하가 있다면 네 생각에 어떻하냐. 이 모든 항하에 있는 모래가 얼마나 많겠느냐."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저 모든 항하만 하여도 수 없이 많사온데 하물며 그 모래이겠나이까."

"수보리야, 내 이제 너에게 진실한 말로 이르노니,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저 모든 항하강의 모래 수처럼 많은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서 널리 보시 했다면 그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사뢰었다.

"매우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네 글귀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말해 준다면 이 복덕이 앞에서 말한 복덕보다 더없이 뛰어나리라."

보시(布施)는 베풀다, 흩어 버리다라는 뜻으로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고, 그 무엇도 소유하지 않고 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머물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것은 실재하지 않는 분별망념이기 때문에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시해야 하는가?

보시하면 복덕을 받으므로 복덕을 받기위해 보시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싫어하는 일이고, 복덕은 좋아하는 일입니다. 지금 싫어하기 때문에 좋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기 때문에 깨달으려고 하는 것으로 미혹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으며, 고통스러우니 편안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편안하다는 것은 고통으로 인한 것이고, 지금 깨달았다는 것은 미혹으로 인한 것이며, 지금 좋아하는 것은 싫어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아는 것이 참된 보시입니다.

그러므로 항하강의 모래 수와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운 칠보를 보시한 복덕이 참으로 많지만 이 복덕은 무너지는 허망한 과보의 복덕일 뿐입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네 글귀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말해 준다면 이 복덕이 앞에서 말한 복덕보다 더없이 뛰어나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금강경 가운데 사구게를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말해 준다면, 그는 반야바라밀의 뜻을 알고 참된 보시를 하는 사람이므로 이 사람의 복덕은,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 허망한 과보의 복덕보다 더없이 뛰어남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개원 12주년 기념
종정큰스님 초청법회 안내

저잣거리 수행전법도량의 기치를 걸고 함께 수행전법해온 도량 열린선원 대중들의
바른 법에 관한 믿음을 더하기 위해 한국불교의 최고 어른이신 태고총림선암사 방장 겸
태고종 종정 혜초 큰스님초청법회를 봉행하오니 꼭 오시어 드물고 좋은 친견의 기회를 가지기 바랍니다.
더하여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앎과 깨달음의 불교를 위해 부처님 가르침과 법회(불공, 천도)의식과
찬불가를 함께 담은 "가피수행 불교성전"의 출판법회도 함께 합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오십시오.

개원 12주년 기념 종정큰스님 초청 가피수행불교성전 출판법회

- 날 짜 : 6월 11일(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1시
- 식 순 : · 종정큰스님 친견 / · 불교성전 봉헌
  · 종정 혜초큰스님설법 / · 축사
  · 축하공연(박희진, 박경희, 성수현, 노은주, 가람합창단)

불교성전 출판은 공덕을 쌓는 중요한 불사입니다. 출판해서 열린선원 뿐 아니라
다른 절 스님들과 불자들께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설판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설판은 법회비 전부 또는 일부를 내는 것임)

■ 문의 : ☎ 02-386-4755 (지하철 6호선, 구산역 4번 출구 역촌중앙시장 2층)

열린선원선원장 무상법현 합장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6월 30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손수 법의 지으며 부처님 공덕 쌓아요”

통도사, 가사불사 기간 중 ‘가사원’ 운영

전국 교구본사 중 유일 운영
가사 참된 의미 알리기 위함
편수 명천 스님 체계적 교육
7월 11일까지 일반에 개방


가사불사 기간 동안 통도사는 가사원을 운영하고 불자들에게 참된 가사 불사 공덕을 알리고 있다. 사진은 5월 30일 방문한 가사원에서 만난 불자들과 편수 명천 스님.

전국 불자들이 공덕을 짓는 가사불사 기간에 특별히 정성으로 손수 법의를 짓는 곳이 있다. 교구본사 중 유일하게 통도사가 운영 중인 가사원이 바로 그곳이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는 5월 28일 가사불사 및 생전예수재 입재를 봉행하며 가사원을 경내 영산전에 설치했다. 가사원은 스님들의 법신을 상징하고 호법하는 가사를 짓는 곳이다.

2006년 조계종은 가사를 통일하기 위해 전국비구니회관 1층에 조계종 가사원을 설립했다. 이후 전국 조계종 스님들의 가사는 일괄 조계종 가사원에서만 만들어져 가사원 운영이 별도로 필요치 않았다.

하지만 통도사는 가사불사 기간이면 어김없이 가사원을 연다. 무슨 까닭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5월 30일 통도사 가원을 방문해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입구에 들어서도 쳐다보거나 인사 하는 이가 없다. 가사를 만드는 손길은 고요했고 눈빛은 진지했다.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만 돌아가다 멈추다를 반복했다.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하자 그제야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짓는다.

봉사자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원을 찾는다고 했다.

권점화(65 · 부산 화명동) 씨는 “가사를 지으며 그 공덕으로 기도하니 더 신심이 난다”고 말했다. 박영애(54 · 양산) 씨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때 문수보살님이 가사를 품에 안겨 주시는 꿈을 꿨다. 그 이후 수원에서 통도사로 이사를 왔는데 가사원을 보고 너무 반가워 당장에 봉사를 시작했다”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만들었는데 정말 삶이 달라지고 행복을 찾았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피라 믿는다”고 웃어 보였다.

통도사 가사원은 가사의 의미를 일반 재가자들에게 전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불자들은 가사의 의미를 설명하며 각 조각과 기호 그리고 색에 대한 뜻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

정분남(60 · 초읍동) 씨는 “모든 가사에는 사천왕을 표현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가사 모서리에 정사각형으로 자른 가사천을 덧대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옷이며 스님들의 옷이기에 공경하고 그 의미를 깊이 알수록 더욱 환희심이 생긴다. 젊은 불자들이 더 오면 좋겠다. 그래서 공덕을 짓는 일이 널리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통도사 가사원 가사불사를 담당하는 편수는 미타암 주지 명천 스님이다. 명천 스님은 제24회 대한민국불교대전에서 고려 가사를 고증 복원해 손으로 손수 지은 작품 ‘복전의(福田衣)’로 대상을 수상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명천 스님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박물관이나 유럽 등의 세계적 박물관에서 불교미술을 전시하며 문화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통도사는 이번 가사불사 편수를 명천 스님께 맡겼다.

명천 스님은 “가사는 부처님과 보살님의 법복이다. 불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불사다. 현재 조계종 가사원에서 통일 가사를 제작함으로써 통도사에선 오조 가사 외엔 만들 수가 없다. 큰 의미를 담는다 할 순 없지만 신도님들의 보이지 않는 정성을 담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작다 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음가짐을 먼저 보면 참된 가사공양의 공덕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도사 가사원은 가사불사 기간 7월 11일까지 운영된다. 봉사는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참여 할 수 있으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하성미 기자

부산 자비정사, ‘아동 꿈 후원 전시회’

6월 17일 오후 1시 개막


추담 스님이 작품 ‘합장’과 함께 손을 모았다.

부산 자비정사(주지 추담)는 ‘아동 꿈 후원 전시회’를 6월 17일~23일 갤러리 카페 바라기에서 개최한다. 전시 개회식은 17일 오후 1시 갤러리 내에서 열린다. 개회식은 커팅식에 이어 내빈 및 후원 아동 소개 등 순서로 진행된다.

후원 아동은 신도 가정의 자녀로 아버지가 사고사를 당해 어려움에 처했다. 추담 스님은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그림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전시를 맞아 아이가 부처님의 팔상도를 직접 그렸다. 당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 미술 작품을 살펴보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펴보는 미술심리상담 시간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 작품은 총 80여 종으로 30여 년 동안 수행과 함께 틈틈이 제작한 작품이다. 촛대, 불두, 학, 목어 등 불교를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담았다.

갤러리 바라기는 1층 커피숍, 2층 갤러리로 구성돼 있다. 2016년 불사를 시작해 11월에 문을 열었으며 이번 전시가 첫 전시다. (010)3044-7504 하성미 기자

운문사 1300여 성보 보유 ‘관리 시급’

5월 31일 성보유물 설명회 개최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5월 31일 교계 기자들을 상대로 운문사 소장 성보유물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

운문사는 최근 문화재 전문가와 경내 및 산내 암자에 소장 중인 성보문화재를 조사, 약 1,300건의 성보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운문사 금당 앞 석등(보물 제193호)를 비롯한 10건의 국가 지정 문화재, 운문사 소조 비로자나불좌상 등 3건의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비로전 앞 석등도 지정문화재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운문사 내 성보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운문사는 1500여년 역사를 담을 성보박물관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은 “성보문화재를 잘 보존 관리해 불자들과 문화로써 소통할 예정”이라며 운문사 범종루 앞 빈 공간에 성보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운문사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와 시 · 발굴 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문화재청 등에 관련 예산을 신청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진구청, 혈세로 교회 부동산 투기 돕나?”

천안사, 부산진구청에 의혹 제기… 해명 요구


물의를 빚고 있는 신축 교회 건설 현장이다. 천안사는 부산진구청이 특정 종교가 부당 이익을 얻는데 도움을 줬다며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예상된다.

부산 천안사(주지 보각)가 부산진구청이 특정 종교가 부당 이득을 얻는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주지 보각 스님은 6월 1일 전화통화를 통해 “부산진구청은 특정 종교에 각종 특혜와 부당한 행정 편의를 제공해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보각 스님은 부산진구청이 당감4동사무소(건강생활지원센터)용도의 건립 부지(총 410.7평)를 매입하던 중 A교회의 부지 4필지를 주변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입해 혈세를 낭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스님은 “부산진구청이 사전 정보를 교회 측에 누설해 교회가 미리 싼 값에 땅을 매입하도록 도왔고, 교회가 부당 이익을 얻도록 동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근거로 스님은 관련 등기부등본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A교회 지역이 당감4동사무소 건립 확정을 받은 시기는 2015년 12월이다. 교회가 주변 부지를 매매한 날짜는 2015년 12월 17일과 2015년 5월 23일이다. 총 211평 부지를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각 스님은 “교회는 건립확정 시기에 땅을 매매했다. 또 은행에서 8억 5000만원을 대출했다. 이 시기에 대출까지 하며 무리한 이유는 급히 매매를 서둘러야 할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시세 차익으로 교회가 얻은 금액만 무려 4억3,600만원이 넘는다. 6월 1일 나머지 땅도 수용됐다. 이것까지 합하면 5억 원은 충분히 넘는다”고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스님에 따르면 현재 교회를 신축하는 현장은 구거 지역이다. 이 지역은 물길 혹은 하천보다 작은 수로를 의미하는데, 점용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보각 스님은 “부산진구청은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토록 눈감아줬다. 건축시 공사 현장 소장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무단 구거를 성토했다고 진술한바 있다”며 불법은 묵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도 지적했다. 보각 스님은 “교회 건설현장에 건축 폐기물을 정리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어 진구청 담당 공무원과 방문했다. 그때 당시 현장소장이 불법 매립한 것을 진술 했다. 담당공무원과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신축 A교회 목사는 “교회 건물과 부지를 매수하며 4억 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은 맞지만 일부러 계획한 것이 아니며 토지 매입 정보를 얻은바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박영진 행정자치국 국장은 “사실 여러 차례 목사님을 찾아가 땅을 팔라고 설득하고 매달렸다. 시세 차익을 노렸다면 왜 땅을 안 팔려고 했겠는가. 의혹을 가질 사안이 아니다”고 단정했다. 하성미 기자

“할아버지, 함께 식사해요”

용호종합사회복지관 · 동아대 식품영양학과 MOU



홀로 식사하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하고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지난 5월 25일 용호종합복지관(관장 이춘성)과 동아대학교 식품영양학과(학과장 김오연)가 동아대 식품영양학과 세미나실에서 사회공헌 협약식을 체결했다.〈사진〉

동아대 식품영양학과는 ‘식도락(食道樂)’ 프로그램 자원봉사에 나선다.

‘식도락’은 용호종합복지관 특화사업으로 독거어르신 가운데 결식 우려가 있는 남성을 주 대상으로 돕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영양소를 고루 갖춘 식사를 준비하도록 체계적으로 돕고, 어르신들의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밥상 친구가 돼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아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은 요리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식도락 프로그램에 협조한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기본교육과 노인 관련 전문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성미 기자

佛事의 모든 것
대원불교 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매우 만족 -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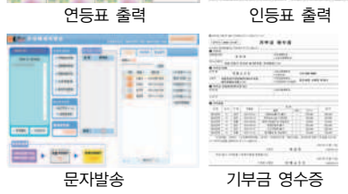


- 전국 어디서에나 실시간으로 사용가능
- 저렴한 비용과 사용의 편의성
- 사찰관리업무 간편화
- 연등, 인등, 축원문 등의 간편 출력 가능
- 문자서비스, 우편라벨 등의 부가서비스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부가서비스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일정관리, 신도영가 기일 자동 알림,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의 다운로드 가능, 물품관리 등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12

"지역민과 호흡하는 불교복지 서원"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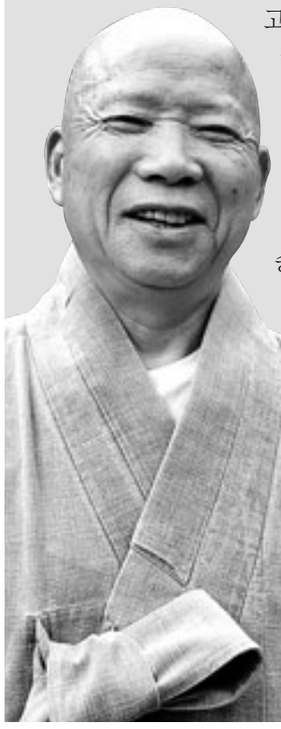
빛고을나눔나무 상임이사 보응 스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스님들에게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교복지가 아닐까요?"

지난달 광주불교연합회 부설기관인 빛고을나눔나무는 의미 있는 승보공양을 진행했다. 오랜 기간 병마와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두 스님에게 의료비 총 1200만원을 지원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승보공양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지원을 받은 스님들에게는 큰 경제적 도움이 되었다는 후문이다. 그리고 이런 승보공양이 있기까지 물심양면 뒷바라지를 한 이가 있다. 바로 빛고을나눔나무 상임이사 보응 스님<사진>이다.

무등산을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세심정사 주지이기도 한 보응 스님은 빛고을나눔나무 실무를 맡아 이끌고 있는 노장(老將)이다. 스님은 칠순을 바라보고 있지만 어른스님들에 대한 공양을 늘 원력으로 품고 있다. 현재 세심정사에서도 연로한 은사스님을 시봉하고 있을 정도다.

"우리 불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이번에 저희 단체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불교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마음을 내는 봉사활동이 많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행자로 살아가며 어려운 여건에 처한 도반들이나 연로하신 스님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늘 죄스럽고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만 앞섰지 직접 하기는 힘들었어요. 빛고을나눔나무가 있어 한 발 더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번 승보공양은 매월 50만원씩 두 스님에게 1년 동안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도계 스님의 1000만원 기부와 후원자들의 기부로 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보응 스님은 후원자들이 건넨 손길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소원정사 도계 스님과 불자님들께서 정말 큰마음을 내주셨습니다. 특히 도계 스님은 늘 주변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계시는데, 이번에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주신 셈이죠."

빛고을나눔나무는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를 표방한다. 지난 2014년 11월 광주불교연합회의 대사회적 분야를 실천하기 위해 부설기관으로 창립한 비영리단체로 다양한 나눔행사와 봉축행사 공모사업, 해외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 봉축행사 공모사업으로 1750만원을 비롯해 4년간 광주전남지역 불교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약 60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2015년에

칠순 앞둔 노장이지만
어른공경은 기본 원칙
소외이웃 지원에 최선

는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는 네팔에 광주전남지역 불교단체와 공동으로 9200만원을 모아 피해지역에 전달해 큰 화제가 됐다.

보응 스님은 빛고을나눔나무 계획과 관련해 "나눔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향후 빛고을나눔나무도 2~3년간의 체계적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응 스님은 이외에도 지속적 나눔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후원자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후원은 나눔에 동참하는 작은 실천이며, 이를 통해 불교가 지역사회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가 현실사회와 동떨어진 종교가 아니라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실천하는 종교라는 것을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불교의 대사회적 실천이 결국 불교의 굳건한 밑바탕을 만든다는 보응 스님. 이 같은 스님의 신념 덕분에 빛고을나눔나무는 광주서 지역 불교대표단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문화 세계 곳곳에 알리자"

진안 마이산 탑사 韓문화테마기행 개최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가 한국의 전통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공연을 개최했다.

한문화국제포럼협회(이상장 김관수)와 공동 주최로 5월 27일 마이산 탑사에서 열린 공연은 '상상 한문화 나와 이야기 사이에 꽃피우다' 라는 주제 아래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주지 진성 스님과 김관수 이사장, 조선황손 이석, 안호영 국회의원, 박명석 진안군 의장, 윤석정 전북일보 회장, 불자 및 관광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문화공연은 2017 한문화테마기행 첫 번째 행사로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이 대회장을 맡았다.

1부 공연에는 허호석 · 김영이 · 정천모 · 문지연 · 박성운 씨 등 12명의 출연자가 시낭송, 시극, 대금연주, 무용 등을 선보였다. 2부에서는 통기타 그룹 무풍지대(전진권 · 신동두 · 곽희섭)의 7080 라이브 콘서트, 색소폰 연주, 태극권, 초대 가수 공연, 레크리에이션 등이 펼쳐졌다.

한글 · 한식 · 한복 · 한옥 · 한지 · 한



우리 음악을 관객에게 선보인 공연팀이 무대 인사를 하는 모습.

6대 한국문화 브랜드
계승 · 발전시켜 보급
연간 2~3회 개최 예정

국음악 등 6대 한국문화 브랜드의 아름다움을 계승 · 발전시켜 멋과 맛, 흥이 넘치는 문화로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한문화테마기행은 연간 2~3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대회장을 맡은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환영사에서 "한국의 맛, 한국의 멋, 한국의 소리를 전 세계로 널리 홍포하고, 옛것을 지키며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일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며 "전북의 문화와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면서 후손에게 물려줄 가치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잘 가꿔 후손들이 제대로 된 역사관과 우리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마이산탑사 마령분원 광명사 주지 송운 스님은 직접 카레떡볶이를 만들어 참석한 사람들과 관광객들에게 만발공양 했다. 송운 스님은 앞으로도 군법당, 교도소 등 지역의 소외된 곳을 찾아 떡볶이를 매개로 한 전법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숨겨둔 끼, 사찰서 뽐낸 청소년들

전북파라미타 연합회 청소년 모악축제 개최

전북지역 불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개성과 숨겨진 기량을 뽐내는 '청소년 모악축제' 가 열렸다.

(사)전북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총재 성우, 금산사 주지)는 5월 27일 금산사에서 청소년 모악축제를 개최했다. 전북도내 500여명의 중고교생들은 한자리에 모여 운문 · 산문 · 한국화 · 서양화 분야로 나뉘어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즐겼다. 또 오후에는 금산사 특설무대에서 청소년 음악경연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21번째 맞이하는 청소년 모악축제는 자연과 인간의 친화적 요소를 제공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금산사 대적광전 앞에서는 108배 체험 · 다도 · 단주 만들기 · 연꽃등 만들기 · 수묵화 그리기 · 목탁 배우기 · 사



전북파라미타 모악축제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법당 안에서 다도체험을 하고 있다.

경 및 사불 그리기 · 페이스 페인팅 등의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돼 청소년들이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이날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은 금산사 미륵전 등 국보와 보물이 산재한 금산사 일원에서 문화재 애호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금산사 일대를 청소하며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한 자연보호 활동도 참가했다.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대회사에서 "파라미타 청소년들이 글과 그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예술적 장기를 마음껏 뽐내주길 바란다"며 "많은 청소년들이 나와 이웃이 다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암당 혜산 스님 12주기 추모제

5월 31일 내소사서 봉행

전북지역 대표적인 선지식 우암당 혜산 스님의 12주기 추모제가 5월 31일 내소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추모제에는 철산 스님을 비롯한 문중 원로스님과 선운사 한주 재곤 스님, 범여 스님, 법현 스님, 선운사 총무 심학 스님, 도솔회 스님들, 선운사 본말사 대중스님과 전등회 재가불자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혜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문도를 대표해 내소사 봉래선원장 철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혜산 스님은 해안대종사를 이은 대표적인 선지식으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다"고 회고했다.

내소자 주지 진성 스님은 "혜산 스님 12주기를 맞아 동참해주신 원로스님들을 비롯한 사부대중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스님의 가르침을 등불삼아 열심히 수행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암 혜산 스님은 1963년 내소사에서 해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해인총림 해인사 선원장, 조계사 주지, 내소사 회주, 한일불교교류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2005년 6월 13일 내소사에서 세수 73세, 법랍 43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각계 인사 · 불자 모여 지광 김동수 열사 추모

조선대 교정 추모비 앞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불자이자 시민군으로 활약하다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산화한 지광 김동수 열사 추모식이 열렸다.

5월 26일 김동수 열사가 다니던 조선대학교 교정에 세워진 추모비 앞에는 당시 같이 활동했던 동문을 비롯해 행법 스님, 효진 스님, 오원재 김동수열사기념사업회 및 조선대학교불교학생회동문회장,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 김신영 총학생회장, 이경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등 100여 대중이 동참했다.

지광 김동수 열사는 1980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남지부장이었다. 당시 군부에 의해 예비검속자로 수배된 후 목포로 피신해 있다가 계엄군의 학살만행 소식을 듣고 광주로 돌아와 학생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5월 27일 도청을 사수하다 계엄군 총탄에 의해 산화한 후 망월동 묘역에 묻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즐겁고 신나는 여름불교학교 "바른길을 찾아라 붓다고!"

제59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즐겁고 신나는 여름불교학교-바른길을 찾아라 붓다고!"라는 주제로 **제59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노래하고, 율동하고, 체험하며, 뛰고 즐기는 사이 어느새 여름불교학교의 고민이 사라집니다!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통하여 법회, 여름불교학교, 템플스테이의 질을 높이고, 계층포교 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꾸몄습니다. 강습회에서 동참하시면 여름불교학교를 준비하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주 제 : 즐겁고 신나는 여름불교학교 "바른길을 찾아라 붓다고!"
2 일 시 : **2017년 6월 17일 (토) 오전 9시 ~ 오후 6시**
3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9길 35)
4 대 상 : 계층법회 및 불교학교 지도자, 템플스테이 실무담당자, 포교사 등
5 참가비 : 5만원 (사전 접수 시 / 당일접수 6만원)
입금계좌번호 - 국민 610301-04-132532 / 농협 053-01-267940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참가비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 참가비 입금 미확인 시 당일접수 참가비 적용
※ 환불은 사전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신 분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교재와 기념품으로 대체하여 발송
※ 단체별 10인 이상 접수 시 10% 할인 / 제주도, 군종병 3만원 ※ 본회 정기 후원회원은 무료

6 일정표

시 간	내 용
09:00~09:30	접 수
09:30~10:00	입 재 식
10:00~11:00	[강의①] 다 함께 Singalong!!!
11:00~12:00	[강의②] 찬불가 율동의 활용과 실제
12:00~13:00	점 심 공 양
13:00~15:30	[강의③] 체험활동 즐거운 체험 붓다고!
15:30~15:50	휴 식
15:50~17:30	[강의④] 레크리에이션의 활용과 실제 - 대동한마당
17:30~18:00	회 향 식

※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접수 : 선착순 100명

접수방법
※ 사전접수 마감 : **2017년 6월 13일(화) 오후 6시까지**
※ 인터넷(이메일), 팩스 접수 후 참가비 입금
▷다음까페에서 안내문 다운, 작성 후 이메일 접수
다음까페 - http://cafe.daum.net/burec
E-mail - burec@daum.net
▷첨부된 안내문을 작성하여 팩스 접수
Fax. 02-738-7863
▷스마트하게 카카오톡으로 신청하기
플러스친구에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검색, 친구추가
▷전화 접수 가능 : ☎ 02-738-7860

8 준비물 : 개인 물컵, 필기도구
9 문의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사무국(02-738-7860 / 02-739-4967)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일어나 앉아라. 그대들에게 잠은 무슨 이익이 있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 받는 이에게 잠이 웬 말인가.
일어나 앉아라. 평안을 얻기 위해 일념으로 배우라.

– 숫타니파타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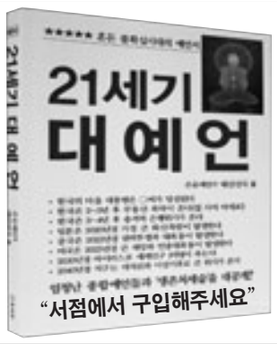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허리선생 혜경」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저렴한 천도재로 영가가 천도되게 맞춤 천도 합니다
천도재·49재·점안식
이 인연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010-2168-2800
011-850-0176



불사용 달마도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불사나 선물용으로 저렴하게 그려드립니다
규격 : 40cm×60cm / 가격 : 6,000원
(고급 족자에 그리면 15,000원)
10매 이상은 절 이름과 스님 법명을 넣어드립니다.
010-2953-8770
농협 919-02-137213 정휘춘
청암 달마원

관 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역학, 구궁, 오행, 당사주, 신살
배워서 상담하실
분들 전화주세요
010-4234-2536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석 하 명 리
논리로 푸는 사주 명리학
속성반 (기초부터 통변까지)
명리진로적성상담사 1급자격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010-2643-5685
부산경남지역 설운 합장

범음범패 교육
스님, 일반, 남·여 수시모집
바라, 나비춤, 사물 다루기, 살풀이, 극락무, 천도재, 49재, 점안식, 사찰행사
010-3413-5078
010-3653-5151
무상 합장

효림불교
모든 불교 용품
철거 및 법당정리
010-7538-3859
010-3403-1078
대표 임영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통철학
1개월 완성
– 바로 상담가능(책임지도)
– 불교 고승비급 전수
– 일반 사주학과는 다름
동국대 불교대학원 졸업 (석사)
010-3936-2295
정광 합장

명예박사학위
취득할 분
미국령상담. 학과자유선택. (철학, 문학, 정치학, 대체의학 등)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
070-8844-2030

배워야 산다
사찰, 포교당을 운영하시는 스님과 법사님 필수조건
명리+귀장술+원인사+조상
찾는법을 단기간에 책임지도
(무료로 배우면서 공양주 하실분 1분)
010-4540-0061
지리산 현담

부전스님 모십니다.
행자 모집합니다.
제반의식에 능통하신
스님 연락주세요.
(경북 문경)
010-8819-898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647-001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0-8721-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
031-641-631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원)
010-3618-6061

문두루 기도비법?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금강경 반야심경을 써드립니다
금니(순금99%)도 가능, 별도상담
금강경(10폭) 심경(단품, 6, 8폭)
한문과 불교를 공부할분 연락 바랍니다.
● 수강료 : 10만 (5명) 주 – 2회 화, 금 오후 4시
승려시인, 선화, 한학, 서예가
포항 남구 인덕동 262
010-3749-455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경주)
010-4749-6577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27년 전통의 길상불교예술원
(탱화, 단청, 불상 갤러리 운영 전문)
불교미술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불교예술원을 기획, 운영하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경북 경주시 보문로 402-31
(붓다의허브정원 : 탱화 불상 갤러리박물관)
010-5595-8533

비구니 스님 , 보살님 방사드림
(1인 1거주, 아파트형 25평)
조용한 산사에서 요양하실 분 / 수행처가 마땅하지 않은 분 / 사찰에서 여생을 보내실 분
양산 통도사 부근
010-4640-4747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8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식)
352-0943-7979-03 농협(정보식)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전문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중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읍 무애암, 충북 보은읍 만선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차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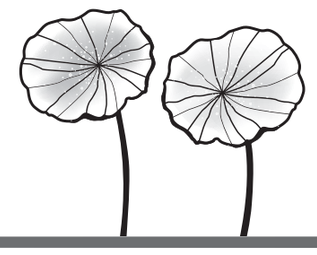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만약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다면 그가 곧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를 슬기롭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것이다.

- 법구경 -



서울시 포교원 안내

- 서울시 중랑구
- 총 3층의 2층 74.64㎡ (약23평)
- 방 1, 주방, 법당, 실내욕실 등
- 가액 : 보 2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2600만원
- 물건사진 : www.010-3426-9393.com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010-3426-9393 / 02-449-0284

상주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다포법당.산신각.요사채
- 토지 2.000㎡
- 주변이산. 교통편리. .안정되고아늑한 사찰
- 양도가액 : 5억1천만원(융자가능조정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 (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충주시내 사찰 소개합니다.

- 부지총면적 : 957㎡ (289평)
- 건물총면적 : 207.03㎡ (62.6평)
- 가액 : 7억 2천만원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26(상봉동 128-4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경남주변환경최상
◎ 부지 : 60평 ◎ 면적 : 1000평,산세수려
◎ 법당 : 25평 ◎ 법당 : 30평,차량진입
◎ 요사 : 30평 ◎ 요사 : 30평 외 2채
◎ 양도가 : 6억 5천 ◎ 양도가 : 9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 60년된 사찰
- 종교부지 911평
- 목조 건물
- 대웅전 15평, 지장전 11평
- 요사채 23평(황토 목조건물)
- 가액 : 4억(대출 2억 2천) (승계가능)

010-6628-8271

사찰(급)안내

- 제천 중심가 사찰
- 토지 250㎡. 한옥요사채58㎡ .법당48㎡
- 이동인구많으며 깨끗하고 위치좋음
- 방편상담 최고자리 남향임
- 가액 : 1억6천만(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이천
- 부지 : 450평, 대지 3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외 1동(120평)
- 산속, 차량진입, 경관수려
- 가액 : 3억 7천

010-4586-4525

토 굴 안 내

- 위치 : 원주시 부론면 소재
- 여주IC, 문막IC에서15분거리
- 대지180평, 전75평, 건평30평
- 난방 : 심야보일러
- 대문까지 포장도로, 주차장시설
- 스님 토굴용으로 최적
- 가액 : 1억 5천만원

010-7345-1674

서울시 사찰 안내

- 위치: 서울시 강동구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인접
- 토지 137 ㎡(약41평) 건물 2층 1층요사 2층 법당
- 방4개 주방 공양간 화장길3개 등
- 가액 : 8억 5천만

010-3426-9393(포교원전문)
02-449-0284

삼 보 사 찰 안 내

무료 부동산 상담해 드립니다 법률

- 위치 : 사하구 / 대지 : 750평 / 법당 : 5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양도액 : 25억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12억
- 위치 : 김해 / 대지 : 2,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25억

오랜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사찰,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은데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주시면 빠른 시일에 성사 시키겠습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찰(급)안내

- 위치 : 불국사 부근.
- 대지200평.건평40평.
- 법당, 요사채,방3개,친견실, 공양간,샤워실,화장실2개, 밖에 남,여 화장실 건평18평
- 산신,용왕,나반,대중공양간, 용왕연못,7층탑등,시설일체, 최고입지 조건 갖춘 암자임
- 가액 : 2억5천 사전전화요망

010-5427-369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시내중심가 도심포교 최적지
- 마당 정원이 있는 한옥 기와집, 단독주택
- 법당(시설완비), 방2개, 주방1개, 욕실, 화장실, 창고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800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010-6603-1456

지리산 암자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 마천(지리산)
- 대지 510㎡ 법당 약10평정도
- 건물앞 바로 계곡 공기 물 산세 최고 2층에 앉아 흐르는 물 바라보면 지상낙원임
- 기도도량으로 보살님 법사님 환영
- 둘레길에 위치하며 등산객 많음
- 버스종점 위치 좋음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283-7733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 정선읍 사찰
- 부지 약 1,700평 대웅전1, 삼성각1, 부처님 진신사리 있음
- 대형돌탑 높이 9m30, 둘레 10m3, 108돌탑, 요사채2, 정자각1, 심야전기 보일러, 태양광열설치, 대형주차장완비
- 집기일체 법회 바로 가능
- 읍내거리 10분
- 가액: 17억

033-562-044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일월산지역
- 총평수 1,000평, 대지 500평, 농지 500평 요사채 30평, 완공 3년
- 사정상 법당은 미완공, 토목공사 완료
- 앞마당에 계곡물 흐르고 1급수 청정지역
- 가액 : 2억 4천, 절충가능

010-5424-4969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 부지 : 12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목조, 단청)
- 요사채 : 60평 ● 기타 : 산신각
- 가액 : 3억 9천만원
- 특징 : 도심인근에 위치한 기도정진할 도량

- 위치 : 경북 상주시 소재
- 부지 : 50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단청) ● 요사채 : 2동 50평
- 기타 : 산신각, 입불 등
- 가액 : 2억 5천만원
- 특징 : 산사의 조용한 사찰로 기도정진할 도량입니다

동 진 불 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북천
- 총부지 : 임야 2,000평
- 건물 : 법당 16평, 요사 30평, 조립판넬구조
- 자연경관 수려하고 공기좋고! 이명산, 지방문화제 마애불있고 북천 코스모스축제 하는 곳
- 가액 : 2억 1,000천 대출 7,500백 안고 1억 3,500백

010-7188-7723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599번지
- 대지 129평, 법당 17평
- 아미타도량, 관음, 지장,소불 104위
- 거실, 주방, 방 2, 욕실 2 경내돌탑 수려함
- 가액 : 8,400만원

010-8503-5769
054-430-576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대지 : 150평(반지하)
- 법당, 산신각, 칠성각 약70평
- 스님친견실, 주지실, 종무소, 외 방 3개, 공양간, 욕실, 다용도실, 텃밭
- 완전 몸 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3억

010-6717-68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동대동
- 연 450만원, 보증금 500만원
- 신축건물 2층 트인 전망

010-5438-0138

사찰(절암자)터 양도 상담 전문

- 양도 양수관계 경력이 많습니다
- 전화주시면 성실 상담합니다

불자공인중개사 공신공인중개사
010-3570-0025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770-2
(사)607-46-11892

토 굴 안 내

- 위치 : 원주 신림IC 15분
- 대지 : 650평
- 건평 : 60평, 창고 : 20평
- 환상적 전망, 넓은 주차장 뒤 바로 산 지근거리에 강있음
- 토굴로는 최적입니다
- 가액 : 4억 5천

010-6399-337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cm,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3884-0122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내 구산동
- 아파트 상가 3층 80평
- 법당1, 공양간1, 상담실1 교실1, 방2
- 가액: 보증금 2,5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5669-1414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 173평
- 법당 : 25평
- 요사채 : 28평
- 가액 : 1억 8천

010-2376-5411
041-557-778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연산동
- 종교부지 120평
- 대웅전, 삼성각, 용왕당, 호신불당
- 5㎡ 옥탑, 주차장, 부처님 진신사리2과 100년 넘은 안정된 사찰로 사시사철 천연수 철철
- 가액 : 4억 5천

010-2720-1580

수양관(암자) 안내

- 위치 : 대전시내 보문산
- 대지 : 98평, 건물 40평
- 약수우물 있고, 돌탑 있음
- 대학병원5분, 역전10분거리
- 시설물 : 부처님3존불, 탱화3존,
- 살림 약 5천만원상당(드립니다)
- 가액 : 2억7천만원에서 1억 빼드립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010-5407-8034

도심사찰 임대 안내

- 위치 : 부산시
- 평수 : 70평(2층건물)
- 1층 : 30평 방3개 공양실 2층 : 25평 법당 (삼존불, 간단 탱화)
- 주차장 및 제반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3천 월80만원

051-413-3318

비구니스님 요사채 분양 안내

300여년전에 방장스님이 계셨던 참선도량 기도 영험도량 광흥사에서 요사채를 지어 분양 하고자합니다. 대중스님네가 모여 수행, 정진하는 도량이 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경북 울진 온정면 덕산리)
대한불교조계종 광흥사 주지 합장

054-788-7672
010-8573-6353

토굴 분양 안내

따뜻한 남쪽나라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남해에 삼재가 침범하지 못하는 길지에 지어진 토굴에 입주하실 복 있는 인연자를 모십니다.

토굴특징

1 자연재난(지진, 태풍, 해일)과 전쟁 사변 등으로 전기, 수도, 가스 등이 단절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구비 되어 있는 아궁이와 온돌 구조 이며 자연수 등이 갖춰진 건물입니다.

2 유명 풍수가들이 극찬한 지세와 지기를 머금은 명당이며 말기암 환자나 난치병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연 치유될 수 있는 환경과 주변 뒷산에 산약초가 자생하는 지역입니다.

3 또 심우도(尋牛圖) 길이 조성되어서 걷기 명상 할 수 있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분양내용 (선착순 분양)

- 1개동 건물면적 30156㎡. 대지지분 156㎡
- 총 7개동 ■ 아궁이 10㎡ (9.1평)
- 1개동 분양가 : 일억원
- 주소지 :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581-2
- 별채 : 2층 건물 면적 197.27㎡ / 대지면적 1,042㎡
- 양도가액 : 5억원

연락처 : 010-8913-0062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염주세트 (10㎜)
30,800원 (무료배송)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 (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주문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암자(급)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동해면
- 부지면적: 444㎡(134.31평) 건물면적: 228.82㎡(69.22평)
- 법당 약20평, 산신각 3평, 상담실3평 공양간 16평, 요사채 2층 16평 창고2, 욕실3, 넓은주차공간
- 한적하고 조용하며 마을과 외진곳에 자리한 암자
- 가액:1억 5천(대출 3천만원 포함)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010-3034-2011(스님 직)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면적 : 3층 약 40평
- 금액 : 보 1천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참고 : 정확히 10년 운영 했음 쉬고 싶어 양도함. 다양한 생활방편을 갖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

02)571-91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1140평
- 주차장 20대이상
- 건물 : 대웅전 30평, 요사채(방 7칸), 스님친견실 60평
- 창고, 산신각, 일주문

010-2498-789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지사동 목련시장 옆
- 평수 : 40평(3층건물 중 3층 전체사용)
- 구성 : 삼존불, 인등, 범종 집기일체
- 특징 : 건물내시설비 및 집기류 총1천만 월세 16년째 운영함 스님께서 연로하셔서 양도합니다
- 가액: 보증금1천만원 월세35만원

연락처 : 010-8576-8019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평화1길 전통시장 번화가
- 약 50평(3층 건물 3층) 즉시 법회가능(최상급)
- 보증금 1,500만,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 법회, 포교, 상담, 주변환경최적

010-3118-1174

암 자 안 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 대지 : 125평
- 법당 : 30평, 요사 : 20평
- 가액 : 4억 5천

010-3899-2296

명상 하면 무조건 좋을까?… 답은 'NO'

린달·브리튼 교수 연구논문
명상 부정적 측면 밝혀

우리는 언론이나 서적 등 일반 매체를 통해 명상의 장점에 대해 끊임없이 듣는다.

명상이 주는 이로운 점은 무엇일까. 일단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면 알파파가 생성돼 뇌파에 맑은 정신을 갖게 해주며, 좀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고 통증을 완화시켜준다. 또한 명상은 정신과 신체를 이완시켜주는 것 외에도 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불안함을 완화시키기도 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명상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통해 의사, 기업전문가들에게 명상의 잠재력을 설득시키려고 건강과 관련된 주장을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명상이 주는 이로운 점이 많지만, 반드시 평화와 사랑, 행복 등 긍정적 측면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인터넷 언론 쿼츠닷컴(qz.com)은 명상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쿼츠닷컴은 "선불교는 명상을 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뒤틀린 인식을 설명하는 단어를 갖고 있다. 일본에서는 '마교(魔境, 마경)'라 불리며 '악마가 사는 세계'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인



명상이 주는 이로운 점이 많이 밝혀졌지만, 반드시 평화와 사랑 · 행복 등 긍정적 측면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사진출처=쿼츠닷컴

60명 서양 불교 명상가 인터뷰
"명상, 평화 · 행복만 주지 않아"
불안 · 메스꺼움 등 느끼기도 해
더 나은 명상법 찾기 위한 과정

선사(禪師) 필립 카플루는 마교와 마주하는 순간을 '마음 속 깊은 곳의 스트레스를 끌어올려 닦아내는 과정과 같다'고 묘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쿼츠닷컴은 "하지만 명상을 하면서 겪는 극도의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순간에 대해서는 연구 논문이나 과학적 문헌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대학교 종교학 초빙교수인 자레드 린달과 심리학 교수인 윌로비 브리튼은 최근 명상에 대한 다양한 현상을 주제로 연구 논문을 펴냈다. 자레드 린달은 "명상이 긍정적이고 이로운 점을 갖고 있다 해도 명상이 갖고 있을지 모르는 부정적인 부분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효과에 대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두 교수는 논문을 위해 명상하며 힘든 문제들을 겪은 60명 서양 불교 명상가들을 인터뷰했다. 회사원, 전업주부를 비롯해 명상지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들은 평생 1만 시간 이상 명상에 시간을 할애한 사람들이었다. 명상의 종류는 위빠사나, 선불교, 티베트 불교 모두를 포함했다.

두 교수는 인지 · 감각 · 감정 · 신체적 행동 및 자아의식 등 7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참가자가 명상을 하면서 겪은 예상치 못한 경험과 예상한 경험들을 추려냈다. 참가자가 명상을 하면서 느낀 경험 중에는 불안감과 두려움, 비자발적인 경련과 완전한 고립감, 과민함, 메스꺼움, 성급함 등의 감정이 있었다.

연구에 따르면 고통의 수준은 가벼운 수준에서부터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쿼츠닷컴은 "이 연구는 놀라운 사실"이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네 명상센터 안에서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설문 조사 응답자들은 명상을 하면서 겪는 일을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사실 린달과 브리튼은 설문지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들은 빼고 명상가들의 경험에 대한 해석을 내포하는 도전적(challenging)이라는 단어를 넣어 설문을 했다.

린달과 브리튼은 "이 연구의 목적은 명상을 하면서 겪는 원치 않는 반응에 대한 일반적 패턴을 찾는 것"이라며 "누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는지, 어떤 특수한 요인이 포함돼있는지, 그리고 명상을 하며 고군분투 하는 사람들에게 명상지도자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 더 좋은 명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스리랑카, 무슬림 공격 불교 수장 추적

불교 강경파 BBS 지도자 나나사라 '출국금지 명령'

스리랑카 내에서 불교 강경파와 무슬림 간의 갈등으로 긴장이 촉발되고 있다. 최근 한 불교 강경파 지도자가 이슬람 사원 및 무슬림 행사에 대한 공격을 감행,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스리랑카 정부가 종교 혐오 범죄에 대한 진압에 나선 것.

카타르의 위성방송 알자지라는 "지난 2주간 스리랑카에서 무슬림에 대한 공격이 급증했다"며 "이러한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불교 강경파 지도자들에 대한 색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5월 27일 전했다.

스리랑카 경찰은 불교 강경파 집단 Bodu Bala Sena(BBS)의 수장 갈라고다떼테 나나사라(Galagodaatte Gnanasara)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 중이다.

경찰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나나사라의 출국금지 조치가 법원에서 결정됐다"며 "그는 정의의 방해, 증오 발언, 타 종교에 대한 혐오 범죄로 수배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2주간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이슬람 사원 및 무슬림 행사에 대한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불교 강경파 집단 수장 고다떼테 나나사라(Galagodaatte Gnanasara). 사진출처=야후뉴스

경찰에 따르면 나나사라 스님의 혐오 발언에 대한 불만 접수가 12건 이상이다. 또 나나사라는 이미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딜란 타 비타나지 BBS 대변인은 "나나사라 스님이 암살될 것을 걱정해 우리가 은신시켰다"면서 "스님은 현재 비밀 장소에 거처 중"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다. BBS는 무슬림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인구 2000만 명 중 10% 미만이 무슬림이다. 박아름 기자



달리트 150명이 자신의 존엄성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불교에 귀의하기로 결심해 개종을 신청했지만 해당 지역 정부 기관에서 이를 거절했다고 알려졌다. 출처=힌두스탄타임즈

불교 개종 신청 달리트 150명 거절당해

인도 정부 "개종 신청 접수 되지 않아" 해명

인도의 달리트 150명이 불교로 개종 신청을 했지만 정부에서 거절되는 일이 발생했다.

인도언론 힌두스탄타임즈는 5월 27일(현지시간) "달리트 150명이 자신의 존엄성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불교에 귀의하기로 결심해 개종을 신청했지만 해당 지역 정부 기관에서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달리트는 인도 카스트 계급 중 최하 계급인 수드라에도 속하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을 일컫는다.

바라티야 바드 소사이어티 회장인 갸네드라 무리야는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10일 150명의 달리트인들이 불교로 개종을 신청했다"며 "원래는 수백 명의 달리트인들이 불교 개종 의사를 밝혔지만 이들의 주장은 인도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기관에서는 불교 개종을 신청하는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역 담당 판사인 핀키 조왈은 "해당일에 불교에 귀의할 때 치르는 의식인 '딕샤' 같은 행사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관계자는 갸네드라 무리야 회장 불교 종교 지도자 및 달리트 지도자를 만나 "어떠한 불교 개종 행사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미얀마 "로힝야 인공청소, UN조사단 거부"

유엔인권이사회, 5월 30일 국제조사단 구성 완료

미얀마 정부가 유엔이 로힝야족에 대한 인공청소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한 국제조사단의 활동을 거부했다고 미얀마타임스가 5월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저 타이 미얀마 국가자문역실 사무총장은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 인공청소 조사 관련)유엔의 결의와 국제조사단 파견을 거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가 로힝야족 인공청소 의혹을 규명할 국제조사단 구성을 표결로 정한 것에 대해 격렬히 반발한 바 있다. 이번 입장 발표도 강경한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5월 30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국제조사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인도 출신의 변호사 겸 여성 인권운동가인 인디라 자이싱, 스리랑카의 라디카 쿠마라스 와미 前 유엔 특별보고관, 호주 인권운동가 크리스토퍼 도미니크 등 3명으로 구성됐다. 3명의 전문가들은 조만간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로힝야족 인공청소 의혹 조사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한 유엔인권이사회 움직임에 대해 미얀마 정부는 조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가동하고 있는 만큼 유엔의 개입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저 타이 사무총장은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인공청소 시도 관련 조사를 비롯해 라카인주의 문제 관련 장기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제1부통령이 이끄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며 "그 뿐 아니라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다양한 해법 중 우리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얀마 정부는 유엔이 로힝야족에 대한 인공청소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한 국제조사단의 활동을 거부했다. 사진은 박해로 인해 임시 가옥에서 머물고 있는 로힝야족 모습. 사진출처=로이터

이어 "(로힝야족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인권탄압 주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면서 "다만 국제사회의 개입은 미얀마 정부의 노력에 도움이 되는 선에서 이뤄져야한다. 우리는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 활동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은 방글라데시계 불법 이민자 취급을 받으며 박해받아 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LEADER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5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의식

부처님 당시의 상좌부 출가의식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와 종교법인 세계불교 법왕청에서는 400여 군소종단을 불문 어느종단 스님이든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 먹물옷 다시금 여미며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대승적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정부의 종교성과 미얀마 연방승가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법왕이신 우꾸마라 종정큰스님을 대화상을 모시고 구족계를 내려주실 三師 7尊證 大元老 큰스님들과 500여 증명 존증아사리들의 독경속에 상좌부 불교승려로 거듭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법석, 국제불교 금강계단을 마련했습니다.

구족계 계첩을 미얀마 연방승가회에서 정식 수여함

- 일 시 : 10월 11일 출발 6박 7일 일정
- 신청기간 : 7월 31일까지
- 참가서류 : 사진 부착된 이력서 1통 여권
- 참가신청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우. 03158
- 장 소 : 미얀마정부 종교성내 양곤승가대학 5일간 입교함
- 문 의 : 011-229-6061

■ 주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 세계불교법왕청 / ■ 후원 :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 미얀마 연방승가회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

샐리 켐튼(명상 강사 · 저널리스트)

〈14〉 3주 도약 프로그램

온 마음으로 헌신할 때 변화 찾아온다

깊은 명상 상태로 들어가겠다는 결심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다.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차원이 깊어져도 여전히 더 깊이 들어가고자 결심한다. 우리가 날마다 결심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주고 집중하지 않으면 이번 달의 결심이 다음 달의 불안으로 변질된다. 우리는 매일 의지를 새롭게 다지면서 동기부여를 다시 한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 짧은 인생에서 오는 기회는 또 얼마인지,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자신의 중심에서 벗어났을 때 받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내면세계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속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자신에게 되뇐다.

그러나 수련이 강렬할 때도 있고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다. 명상을 하다가 잠 속으로 빠지기도 하고, 수련을 습관처럼 받아들이거나 일상의 기계적인 틀에 갇히기도 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별도의 시간을 내서 '도약' 해야 한다.

당신은 내면의 참자아와 내면세계의 부름을 듣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도약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의식을 가로막는 벽이 곧 무너져 내리고 의식으로 향한 문들이 열릴 것을 감지한다. 그래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 "이번 주, 이번 달, 올해에는 좀 더 열심히 명상을 하겠어. 그래서 기필코 한 단계 도약하고야 말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열심히 수련한다.

'무기력' 이라는 군대를 성공적으로 무찔러본 사람이라면, 모든 것은 얼마만큼 헌신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 것이다. 온 마음을 다해 계획이나 목표에 헌신하고자 하면 우주가 당신을 위해 변하기 시작한다. 길이 열리고 일이 순탄하게 풀려간다. 특히 무한히 흐르고 확장하는 내면의 우주를 다루는 명상 속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내면의 의식은 무한히 창조적이기 때문에 단 한 번만이라도 마음을 굳게 먹으면 마법과도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도약의 1단계는 굳은 의지를 내는 것이다. 의지는 열정적이고 진지할 때 강력한 도구가 된다.

전통적으로 깊은 명상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한적한 곳에 머무르면서 수행하는 안거(安居)를 했다. 다음에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안거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을 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안거를 위해 따로 시간을 마련해야만 한다. 주어진 일이 너무 많아서 단 몇 분의 시간도 내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하루, 한 달에 하루만이라도 안거 시간을 갖도록 한다.

도약 프로그램을 집에서 하는 경우라면 집 안에 따로 공간을 마련해 수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새롭게 하루 계획표를 짜서 안거 공간에서 실행하고, 수련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수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준비 단계

■ 서약하기

· 가능하다면 매일 1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명상한다.

· 수련 중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명상일지에 기록하고, 매주 시간을 따로 내서 자신의 체험을 읽으며 묵상한다.

· 명상에 도움이 되는 정신세계에 대한 책을 매일 10분 이상 읽는다.

■ 명상 시간 정하기

저마다 명상하기에 좋은 시간이 따로 있다. 항상 이른 아침이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아침저녁으로 그 기운이 다르고, 그에 따라 기운의 장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전통적으로 명상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산디아(sandhya, 낮과 밤이 바뀌며 그 기운 또한 바뀌는 시간대)다.

산디아는 3가지가 있다. 아침의 산디아는 일출 직전부터 직후까지 새벽 시간대다. 정오의 산디아는 오전이 오후로 바뀌는 시간대로, 대략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다. 저녁의 산디아는 일몰 직전부터 직후까지, 어둠이 깔리는 시간대다.

■ 생활규칙

· 이른 아침에 명상한다면 시간에 맞춰 편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일찍 잠자리에 든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정신을 고양하는 글을 읽거나 만트라를 염송한다.

· 잠들기 전과 잠에서 깨어날 때 만트라를 염송하거나 호흡에 의식을 모은다.

도약 위해 굳은 의지 내고
수련하는 습관 들여야 효과
수행자들 안거처럼 시간 내
하루라도 명상에 빠져보자

· 아침이 되면 즉각 일어난다.

·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샤워하거나 세수한다.

· 식사량을 조절한다.

· 사회생활을 관리한다.

· 독서, 텔레비전 시청, 영화 관람 등을 조절한다.

· 일과 중 틈을 내어 만트라 염송, 묵상, 요가 호흡과 같은 수련을 한다.

■ 시작 전날 할 일

3주 집중수련에 들어가기 전날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마음의 준비를 한다. 명상을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동안 해왔던 자신의 명상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질문에 대한 답과 집중수련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명상일지에 적는다.

1주–내면의 진동으로 들어가기

■ 만트라의 진동으로 명상하기

만트라의 염송으로 시작한다. 만트라와 호흡을 맞춘다. 만트라 음의 뜻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만트라 음의 기운과 진동에 집중한다.

■ 가슴 공간에서 명상하기

호흡의 리듬을 따라가며, 들숨이 가슴 부위에서 사라지는 공간과 날숨이 몸 밖에서 사라지는 공간에 집중하라. 떠올랐다가 가라앉는 생각들은 모두 의식으로 만들어졌음을 이해하고 생각들을 호흡 속에 녹여내라.

■ 호흡 사이의 틈새에 들어가기

호흡의 흐름에 의식을 모은다. 숨을 들이쉬면서 순수하고 정묘한 의식을 들이쉰다고 느낀다. 숨을 내쉬면서 생각을 내보낸다고 느낀다.

■ 명상 마무리하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명상에서 나온다. 느긋하게 앉아서 미묘한 여운을 음미한다. 주위에 넉넉한 공간이 있으면 송장자세로 몇 분 동안 편안히 눕는다. 명상이 끝나고 잠시 쉴 때 비로소 명상의 성과가 모두 소화 · 흡수된다.

명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체험한 바를 기록한다. 체험이 상당히 미묘한 데가 있으면 잠시 묵상하면서 적절한 단어와 언어를 찾아본다. 1주차가 끝날 때까지 아침저녁으로 이 명상 수련을 계속한다.

2주–의식 명상하기

■ 아는 자가 되어라

편안하게 앉아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자각해본다. 몸 안의 감각들을 알아차린다. 호흡을 알아차린다. 자기 기운의 느낌을 알아차린다. 마음속의 생각이나 영상, 비평, 불평 등의 흐름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나' 라는 에고의 느낌을 알아차린다. 참자아와 관조하는 의식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아는 자 속에서 휴식하라. '관조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거나 '나는 누구인가' 등의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 자신의 각성을 명상하라

호흡에 의식을 모으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그대로 따라간다. 숨을 내쉴 때마다 몸의 긴장, 두려움, 한계의식을 놓는다. 생각이 떠오르면 숨을 내쉬면서 그 생각을 내보낸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날숨으로 생각과 긴장, 두려움, 한계의식을 내보낸다. 각성으로 몸, 호흡, 생각을 인식하고, 이 각성을 알아차려라. 생각이 올라오고, 의식이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면 그 생각과 대상을 날숨으로 내보내고 다시 각성에 의식을 모은다.

3주–헌신 명상

■ 사랑으로 호흡하기

호흡이 들어오고 나갈 때 호흡에 의식을 모아라. 공중에 떠도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느낌과 사랑으로 호흡한다. 숨을 들이쉬면 사랑으로 몸이 충만해진다고 느끼고, 숨을 내쉬면 그 애정이 몸 전체를 관통해 밖으로 나간다고 느낀다.

■ 헌신적인 만트라 염송하기

· 만트라를 가슴 안에 있는 연인에게 헌정하거나 신의 가슴에 놓는다는 느낌으로 염송한다.

· 만트로 음 하나하나가 가슴 안에 있는 연인에게 헌정하는 꽃이라고 상상한다.

· 만트라를 염송하면서 '만트라는 신이다' '만트라는 신성한 참자아다' 라는 느낌으로 한다.

■ 신성한 가슴에서 휴식하기

자신의 의식을 호흡에 모으면서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공간에 있는 각성을 느낀다. 지금 여기서 수련하는 가슴은 육체적 가슴이 아니라 들숨이 마지막으로 가닿는 자리로 가슴 안쪽에 있는 정묘한 센터를 가리킨다.

만트라를 염송하듯 자신에게 아주 부드럽게 말한다. "나의 가슴은 신의 가슴이다." "나의 가슴은 우주의 가슴이다." 한 문장을 말하고 나서, '나의 가슴은 신의 가슴이다. 아주의 가슴이다' 라는 생각을 품고 자신의 내면에 생긴 공간에서 휴식한다. 신의 가슴에서 안식한다고 느낀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신의 가슴으로 녹아든다고 느낀다.

〈끝〉

이 글은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 (한문화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종 도 모 집

문화관광부 허가 2009-2호 / 제2014-9호 / 등기번호 230121-0003919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종 정 승천 진성 대종사
총무원장 야숙 여몽

총무부원장 석담 성우 총무부장 원담 진원 교무부장 현진 영현 재무부장 현경 대암
호법부장 현수 대선 사회부장 서법 자광 포교부장 성담 해선
사무처장 이민숙 사무국장 장백선

불조의 혜명을 받들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정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승가의 길을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제방의 스님들과 인연있는 불제자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수희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3장, 사찰(법당)사진
■ 문 의 : 총무원 - 인천 서구 가정동 494-26 원각사
전화 032)578-2122. 010-5002-7392(총무원장)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총 무 원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

이 세상살이 만사가 다 한마음으로써 빚어지는 겁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큰스님 자력과 통신력, 광력, 전력 그런 것이 다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로 믿고 실천을 하는 데에 멋진 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멋진 게"라는 거는 묘법이란 뜻입니다. 묘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불가사의한 법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거예요. 뭐, 불가사의하다 이러고 아주 위로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안 해 보셔서, 들어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모두들 그런 거죠.

나는 어떤 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장면 한 그릇을 못 먹어 봤다면…, 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자장면 만드는 거 있죠? 그거 예전에 자장면 한 그릇 먹어 본 지가 아마 근 십 년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국수로다가 해서 그걸 하니 무슨 맛이 나요? 그러니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그 자장면 참 맛 좋았어.' 그런데 그걸 먹어 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다면 생각이 납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깐 여러분은 항상 여기 오셔서 비디오로 하는 거나마 열심히 들으시고 열심히 들으심으로써 이 속의 업식들이 전부 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이 듣는 순간 이 수십억의 의식들이 들어요. 듣는 대로 그대로 반영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음으로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럼 질문 없으세요?


그림 · 최주현

질문자1(여) 이렇게 가까이서 스님을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십 년 넘게 혼자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전혀 가르치지 못하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만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질문도 아니고 그냥 넋두리 같습니다만 좌우지간 저는 비디오를 볼 때마다 저 스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은 그것이 제 소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큰스님 예, 예. 좋아요. 그 생각을 하셨으니 앞으로는 잘되실 겁니다. 그 생각이 바로 여러 가지를 빚어 낼 수 있는 동기가 되니까요. 그 정성스런 마음, 바로 나를 내가 낮추는 그런 마음이 말입니다. 자기가 남을 가르치고 그런다 해서 자만과 오만 이런 걸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죠. 이건 금물이죠. 지렁이 생명이나 벌레 생명이나 우리의 생명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고, 날아다니는 새, 다람쥐 이런 것들도 하나도 우리 생명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업신여기고 한대서야 말이 됩니까? 이건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업신여기면 업신여기는 대로 벌써 내 앞에 딱 다가옵니다. 그 사람한테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해 가지고 자기가 그 음파를 집어먹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오지요. 딴 사람한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한생각으로 때로는 신장이 되시고 때로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약사가 되시고 관세음이 되시고 아촉이 되시고, 문수가 되고 보현이 되고 칠성이 되고 지장이 되고 아미타가 되고 이렇게 많은, 그 용신, 지신까지 이렇게 되시는데, 그게 어떻게 한마음으로써 그렇게 여러 가지를 다 하시게 됐느냐 이거를 한번 따져 보세요. 자기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 음파가 가다가도 벌써 그냥 자기한테로 파고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응신이 나쁘게 나갔기 때문에 그 응신이 신장으로서 다가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 좀 더 활발하고 좀 의기양양하게 사실 의향이 있다면, 그리고 몸들도 건강하게, 안팎을 건강하게 가지고 사시려면 오만과 자만, 아상 이런 거는, 나라는 존재, '내가 권세가 있다.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아예 집어내 버려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애들이 아, 지금 장관이 왔는데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쪽박같이 그냥 많이 모여 있는데. "아, 백일기도도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장관이 따로 있고 평민이 따로 있고 거지가 따로 있느냐. 시간 돼서 들어오시게 해라." 그랬죠. 아니, 중이 뭐 그렇게 목이 말라서 그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하하. 무슨 권세를 얻으려고 그러겠습니까, 돈을 벌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뭣노라고 써 붙였습니까? 왜 마음을 컴컴하게 해서 항상 컴컴하게 살게 합니까?

또 질문 없으실까요? 아이, 그냥 앉아서 하세요.

질문자2(여) 스님, 이 친구분이 연세가 두 살 높은 선배이신데 지금 병으로 누워 계시면서 '하, 나는 죽을 운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병이 깨끗이 낫게 좀 안 되겠습니까, 스님?

큰스님 대신 밥 먹어 줄 수는 없죠. 하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서어서…, 연세가 몇이신진 몰라도요.

질문자2(여) 79살입니다.

큰스님 그러면 옷 벗을 때도 됐습니다그려. 하하하. 난 어떤 땐 그럽니다. 연세 물어봐서 80이 넘었다고 그러면 "아이, 이제 가실 때도 됐는데, 그 자손들 속 썩이시네." 허허허, 이럽니다. 그러니까 자손들도 좀 생각해야죠. 또 건강하게 살다 돌아가시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고통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 어떤 때는 정말 진정 고쳐 드릴 마음이 있어도 "내가 무슨 의사입니까?" 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내 주는 데에 아주 100%가 달라집니다. 우리 이 스님네들이 마음을 내 주는 것도 아주 100%가 달라집니다. 이 큰 산이 있기 때문에 얕은 산은 빛을 못 봐서 그렇지. 하하하. 응달이 져서. 만약에 높은 산이 그냥 응달이 지게 이럭하고 있지 않으면 얕은 산이 얕은 산이 아닐 텐데 그렇게 돼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찬가지로 생각하시고 그저 믿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하하. 또 질문하실 것 없으세요? 고통은 안 받으시고, 고통스럽게는 안 가시게 하시는 것이 좋겠군요.

질문자3(여) 스님, 저는 미국에 온 지 한두 달 좀 넘었는데 한국에 있는 식구들이 고통을 받고 여기서는 여기대로 그래서요. 잘못 온 게 아닌가 싶어서 가야 되는 건지 그대로 머물러야 되는 건지, 모두 고통스럽게 살아서 말씀드리려고….

큰스님 그것도 여기 와서 고통스럽게 고생하는 것만치만 한국에서 서로 마음을 의합해서 열심히 뛰신다면 여기 미국보다 못하지 않을 텐데요.

질문자3(여) 예. 그래서 여기 오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왔는데 아직 그저 그렇고요.

큰스님 뭐, 낫기야 낫겠지만요, 들어오시

☞ A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한계를 지어 놓지 마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하세요

☞ A17면에서 계속

면 누가 영주권을 척 해 줍니까? 누가 그렇게 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이 말도 못하죠. 그리고 또 한 식구가 모여서 살지 못하니…. 그러니까 그 시일이 얼마만큼 걸려서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되면 어떡하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 도로 나가시는 게 100% 낫겠습니다. 집안이 그래도 기반이 잡혀 있는 저거라, 그래도 가면 살 수 있어요.

질문자3(여)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리고 안양 선원에 나오세요.

질문자3(여) 예.

큰스님 아, 여기서 까마득한데 어떻게 해! 허허. 그래, 또 질문 없으세요?

질문자4(남)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불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책을 좀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습니다. 성철 스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어떤 덕이라든가 선을 베풀었을 때에 다시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장사꾼이지 덕이나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것이 참된 덕이고 또 선이며, 또 어느 때에 보면 무슨 역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은 것에 의문이 갑니다. 과연 스님께서도 주역을 인정을 하고 계시고 또 사주, 명리학 쪽 뭐, 그런 학문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계시는지요.

큰스님 난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어떠한 물건이 와서 파산을 시킨다 이렇게 한다면 파산을 못하게 하는 자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후년에는, 후년 후후년에는 불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예언을 한다 합시다. 그런다면 그 뜻을 몰라서 그렇지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각자 모두가.

그리고 또 성철 스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그것도 어저께 내가 말씀드린 거죠. "자식들한테 조건 있이 사랑합니까?" 하고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와 부처님이 조건 없이 응해 주시는 자비가 다르지 않다고요. 그게 진짜 무주상 보시라고. 이름해서 그것도. 부모가 자식 기를 때 무슨 '무주상 보시다' 이러고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뒤를 두고 뭐, 지금 모든 사람이 웬만하면 다 합니다. 꼭 조건을 붙이고 합니다. 자식을 기를 때도 "너는 잘돼라. 잘되는 게 내 소원이다." 하, 이렇게 조건을 붙입니다. 하하하….

그런데 우린 안 그렇습니다. 조건을 붙여 놓으면 더 잘되려야 잘될 수도 없고 더 못되려야 못될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한계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한계를 지어 놓지 마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시라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질문하시는 것도, 그 역학이다 뭐다 하는 것도…, 옛날에도 "예언자는 소인이로다." 이런 말을 한 예가 있죠. 이 세상이 공해서 돌아가는데 이거를 딱 잡아 놓고 '어느 해에는 이렇게 되고 어느 해에는 이렇게 된다' 이걸 해 놓으면 그게 그대로 있습니까? 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또 있습니다. 살림살이를 요렇게 저렇게 쓸모 있게 놨는데 딴 사람이 들어와 보니깐 자기 마음에 맞지 않거든. 또 이렇게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예언자는 소인이로다." 이런 겁니다. 역학이 주로 그런 게 많지요. 그렇죠?

질문자4(남) 글쎄, 역학인도 아니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명(命)을 알아야 군자니라." 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과연 그 명이 어떠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운명을 알아야 된다는 말인지, 또….

큰스님 이 운명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이름 지을 것도 없어요. 인연의 법칙이죠, 예.

> **부모가 자식들한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와**
> **부처님이 조건 없이 응해 주시는 자비가 다르지 않다.**
> **그게 진짜 무주상 보시다.**

그걸 거추장스럽게 운명을 거기다 붙여서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회사에도 사장이 없으면 직원이 없고 직원이 없으면 사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면 평등하고 또 안에 들어가서 보면 직원은 직원대로 있고 사장은 사장대로 있습디다. 안 그렇습니까? 사장이 없으면 직원이 못 벌어먹고 살고 직원이 없으면 사장이 못 벌어먹고 살고 이러니 평등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깥에선 안에 들어가 보면 직원은 직원이고 사장은 사장이다 이겁니다.

질문자5(남)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듣기로도 그렇고 제가 본 바로도 그렇고 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빈 몸으로 왔다가 빈 몸으로 간다고, 또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살자면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거처할 집이 있어야 하고, 또 다들 선한 의지를 갖고 어떤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악한 의지를 갖지 않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아니면 해도 또 잘 안 풀리죠, 뜻대로. 그렇다면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 욕심의 한계는 어디까지며, 생활하는 데서 이건 욕심이다, 이건 욕심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로서는 확연하게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선한 의지로 어떤 일을 좀 더 나아지게 하고 이렇게 추구하는 것도 욕심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건지 의문이 되는군요.

큰스님 어이구 참! 애들하고 집이 없는데 어떻게 집 걱정을 안 해요? 아이 참 내! 세상을 그대로 살면서 자기는 관리인이라는 것만 아시라니까. 그 주인의 시자일 뿐이고. 누가 사랑을 하지 말라나, 돈을 갖지 말라나, 집을 갖지 말라나. 그 말만 해도 알아듣겠죠? 그러면서 그대로 사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에서 "악하게 살지 마라." 이런 것은 악이 별다른 게 아니라, 악한 것도 악한 것이지마는 자녀들하고도 악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고 나가서 안 들어오거나 이래도요, 공부를 잘못하거나. 이거 한국에선 더합니다.

부모가 그냥 공부 공부 공부, 아주 상상에 빠진 거 같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공부 공부 하지 마라." 공부에 진저리가 나서 들어오면 "어디서 배고프지 않게 뭘 먹었느냐? 피곤하지 않으냐? 배고프면 뭘 좀 먹고 피곤한데 좀 쉬어라." 이러고 이 마음속에다 '쟤 공부 좀 열심히 잘하게끔, 마음잡아서 잘하게끔 당신밖에는 해결 못해.' 하고 맡겨 놓고 거죽으로 말은 부드럽게 해 줘라 이런 소립니다. 그래야 이득이 있고 공덕이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이 말로다가 그냥 다르르르 해 버리고 그러면, 냉랭하면 눈치 봤다가 그냥 또 달아나가요. 그러니 점점점점 속이 썩고 이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악하다는 것이 별난 악이 아니라 그저 남한테 무조건 잘, 이익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나한테…. 이 공을 쳐 보세요. 공을 딱 칠 때는 공이 나한테 돌아오지 절대로 그 벽에 딱 파묻히는 게 없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걸리지 마시고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인제는 내가 관리인만 되겠다. 그저 마음의 주인이 다 알아서 할 거고, 집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 또 이 집 없다는 생각에서 이 업식들도 다 알고 내 주인공도 알고 있으니까 어느 때 생겨도 생기겠지.' 하고 거기다 맡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나와야지 집이 강제적으로 어디서 나옵니까? 또요?

질문자6(남) 저는 안양에서 공부를 하다가 여기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불법밖에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쪽으로는 세속적 욕망 속에서, 두 가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큰스님의 큰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큰스님 일체 만법, 일체 모든 과학이나 천체물리학 또는 철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이런 것이 다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 만사가 다 한마음으로써 빚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핵심을 배우는 거고 그 핵심에 의해서 가지가지 나가는 건 여러분이 그거는 알아서, 이것만 딱 쥐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그건 저절로 생깁니다. 자기 마음먹는 대로 저절로 생겨요. 원 핵심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좀, 뭡니까? 다람쥐가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 많이 오셨다 가셨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 마음잡은 그 자리에서, 핵심 속에서 다 과목이 나갑니다. 자기 할 수 있는 과목이 나옵니다. 틀림없어요.

사회자 질문이 더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받을까요? 한 분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자7(남) 저는 미국에 와 있는 동안에 아버님께서 중풍으로 고생을 하시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음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하루 저녁에 관을 했습니다. '빨리 아버님의 옷을 벗겨 주십사.' 하고 관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가는 걸 보니까 큰놈은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작은놈은 다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감히 큰스님의 흉내를 냈구나. 아직 공부가 덜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관을 한 것조차 죄가 돼서 제가 한 거는 불효고 살인이고, 스님이 하셨을 때는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루 저녁 관하는 것 자체로 죄인이 되고 불효가 된 것을 큰스님께 말씀을 드리면 좀 감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큰스님 연세가 몇이신데요?

질문자7(남) 여든이 넘으셨습니다.

큰스님 그것도 자손으로서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뭐, 죄가 아닙니다.

질문자7(남) 글쎄, 마음공부를 몰랐더라면 그 생각도 못했을 텐데 조금 아는 것이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큰스님 그렇더라도 자식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저 고생을 안 하시다가, 고생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옷을 벗어도 편안하게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관하셨어야죠. 그러면 자식도 아프다는 소리 안 할 테고. '너도 자식을 길러 봐라.' 그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허허허.

질문자7(남) 예, 바로 그게 제가 걸리더라고요.

큰스님 아, 지게에 지고 갔다가 지게 도로 가져온 아들 보고선…. 하여튼, 오늘 참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요담에 제가 또 오게 되면 더 좀 공부가 되셔서 이 마음의 혼란을 다 괭개쳐 버리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면 몇천 년, 몇만 년 사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생 살 것을 남한테 그렇게 거북한 생각에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모두를 다 벗어나셔서 평온하게 사십시오. 이 모두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내내, 내가 죽어서 영혼도 또 태어나서 또 그게 붙는단 말입니다. 아주 졸졸이 졸졸이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게 바로 업식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정자 난자를 받아서 그 본인의 영혼이 들어가서 삼합이 한데 합쳐지는데 그 영혼이 한데 합쳐지는 동시에 업식도 마저 거기 딸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 하나 받는데 몸속에 있는 모든 업식들도 다 거기, 본래 짊어지고 나온다는 게 그겁니다. 이 몸속에 다 짊어지고 나와요. 아주 이 집에다 잔뜩 넣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자라면서 이 업식들도 그냥 같이 자라죠.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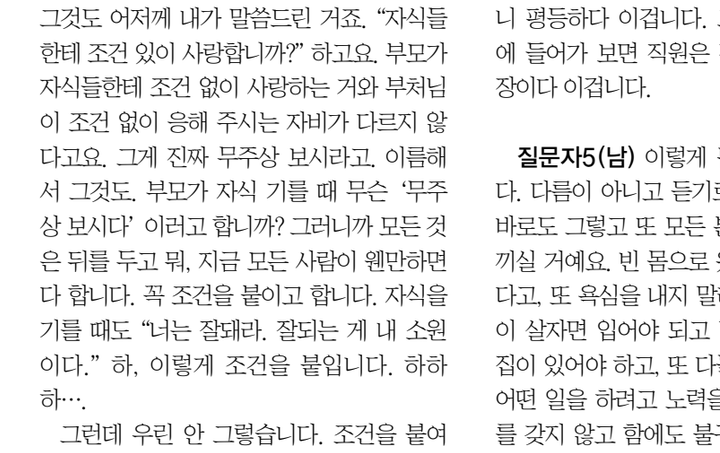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어디서 왔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됐고 진화돼서 또 이렇게 나왔구나.' 하는 거를 수천, 수억 겁 년 전으로 돌아가 볼 때 '바로 그 네가 애당초에 최초에 생긴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배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하하. 증명할 수 있는 재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은 모습이 다르게 또 나오고 또 다르게 나오고 하겠지만 최초에 생긴 유래를 말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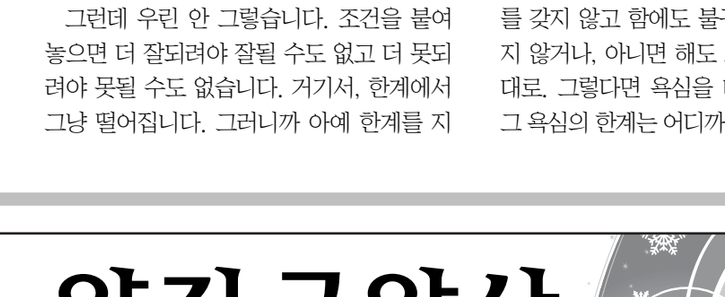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92년 6월 21일 뉴욕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지 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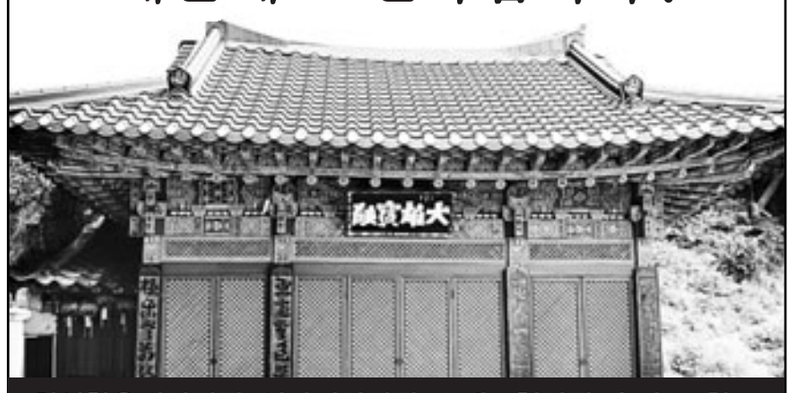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 경상도 : 010-4187-0062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 불자 세상보기 |



선업 스님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유명인들의 한 마디

가수 김장훈 씨가 보여준
노 대통령 추모제서 막말
영향력 있는 공인의 실수

서구서도 공인 막말 문제
1년간 막말 인사 시상하는
'발 속의 입' 이란 賞 있어

"사실에 맞는 말하라"는
부처님 가르침 상기하길

영어인 리더십을 한글로 옮길 때 적절한 말이 무엇인지 고민한 적이 있다. 어느 날 "영향력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말을 듣고 손뼉을 쳤다. 납득이 가는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 중 꽤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자리에 오르기를 희망하고 노력하고 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사람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을 띠는 자리에 있으면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공인이라고 칭하는데, 특히나 이런 공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은 가히 폭발적인 수준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사실 좋은 행동이나 좋은 말 한마디를 해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은 별로 표가 나지 않지만 나쁜 행동 거친 말 한마디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 일은 너무나도 많다. 최근의 경우만 보더라도 가수 김장훈 씨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故 노무현 대통령 추모 무대에서 무대에 올라 경찰들을 욕해 문제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도 대통령의 신분으로 기자를 비롯한 본인의 취향에 거슬리는 이들에게 막말대잔치를 벌여 많은 이들을 당혹하게 만든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로 계속 시끄럽다.

이런 점으로 보아, 공인이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라도 좀 더 생각을 한 연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공인들의 정제되지 않은 언어사용의 문제점은 서구에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공인의 지위 망각형 언어사용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영국에 본부를 둔 '쉬운 말 쓰기 운동(Plain English Campaign)' 본부에서는 세계 유명 정치인과 사업가 중 한 해 동안 '말실수'와 '이해 안 되는 발언' 등을 많이 한 이에게 주는 불명예스러운 상인 'Foot in Mouth Award'를 매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입 속의 발'이라는 상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입에 걸레를 문' 언어 사용은 제발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도 교단의 영향력 있는 장로의 언사가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 상황에서 부처님의 말씀은 단호하다.

"비록 나이가 들어서 80살이나 90살이나 100살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그가 시기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유익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법에 어긋나게 말하고 율에 저촉되는 말을 하며, 그리고 시의적절하지 않고 이유가 분명하지 못하고 (특정한 주제에) 제한되어 있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고 담아둘 만하지 못한 말을 하는 자라면, 그는 단지 '어리석은 장로'라는 이름을 얻을 뿐이다."〈우루웰라 경2(A4:22)〉

그리고 "올바른 때에 말하고 사실에 맞는 말을 하며, 유용한 말을 하고 가르침(法)에 합당한 말을 하며, 계율(律)에 맞는 말을 하되 가치 있는 말을 적당한 때에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의미 있도록"하고 "부드럽고 귀에 듣기 좋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와 닿고, 점잖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 받고, 많은 사람에게 유쾌한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러한 말을 하라"고 신신 당부를 하고 있다.

요사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거나 공공장소나 방송에서 쏟아낸 막말로 대중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연예인, 정치인, 방송인들의 사건 사고가 너무 잦다. 매체의 실시간화에 힘입어 공인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된 지금, 유명인들이 '리더'의 자리에 합당한 언행과 행실을 보여주는 '모델링'의 존재로 이 사회에서 기능해 주었으면 좋겠다.



특별기고

대은 스님 태고종 종회 총무분과위원장

직선제, 태고종 살릴 유일한 길

현행 태고종 총무원장의 선거제도는 종도의 대표자인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제도로써 한계지점에 봉착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금권선거와 과열, 혼탁선거, 계파 등 정치세력에 의한 담합 내지 야합을 들 수 있다.

그 대안으로 평등한 참종권 확보를 통한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태고종의 직선제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 종도가 직선제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종도의 화합과 종무에 크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태고종은 지금까지 몇몇 지도자의 능력으로 이끌어 왔다. 태고종은 사설사암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총무원의 통제가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혜명을 잇고자 하는 우리 스님들이 자발적으로 서원을 발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종단의 분담금, 의무금 문제만 하더라도 많은 종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태고종 종도들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불법유시로 사찰에서 나온 분규 1세대의 경우 단합력이라도 있었지만 2세대, 3세대를 거듭하며 애종심이 결여된 상태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지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태고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데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직선제로 수용해 민주화가 크게 진작됐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동안의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태고종도 직선제를 도입하면 분명한 장점이 있다.

가장 먼저 대중공의의 현대적 실현이 가능하단 점이다. 종도의 참종권 확대는 시대적 과제다. 종도들이 종단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종단의 능력은 배가 되고,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두 번째는 종단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한 대표자 선출이 가능하기에 종단 대표자의 대표성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강화된 대표성을 기반으로 각종 종책 구현에 있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계파정치에 의해 종도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종도들의 입장과 어긋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으로도 종단 대표자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종단 내에서도 수행경력이 낮은 이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입산 3년부터 5년까지 된 종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종단이 화합하고 다시 전통종단의 위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종단의 힘으로 직선제 선거를 원만하게 이루어 낼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국가가 각 선거구를 만들어 선거를 치르듯 종단도 지역별 선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해결될 것이다. 총무원장 선거 뿐만 아니라 향후 중앙종회의원, 지방종무원장, 지방중앙종회의원선거 등도 직선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사회에서는 태고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슬아슬하다고 안타깝다며 말하는 분들이 많다. 이러한 때 태고종 종도들이 심기일전해 지혜를 모은다면 다시금 전통종단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해결 방안에 바로 '직선제'가 있다. 그것이 지금 어려움에 직면한 태고종을 살릴 유일한 대안이다.

社說

종교인 과세, 이젠 실행하자

2018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재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과세 2년 유예를 포함, 교회나 종교단체에 대한 탈세 제보 시 국세청 대신 소속 종단·종파에 세무조사를 이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에서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일단 진화에 나섰다. 불교계와 가톨릭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본지가 취재한 조계종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문제는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들이다. 이들은 "각 종단마다 가진 고유한 영역과 환경을 제대로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만한 과세 기준을 정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나오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가 '세금'임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공평 과세는 조세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경제민주화를 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적혀 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종교가 조세 정책에서 혜택을 받는 이유가 지금은 불분명하다.

참고로 김진표 위원장은 수원 모 교회 장로이자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장을 맡고 있다. 시대에 역행하는 그의 발언이 어긋한 신심(信心)서 비롯된 것이 아니길 바란다.

불교계, 적극적인 남북대화 나서야

건축계에는 한가지 원칙이 있다. 바로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 더 단단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럽게 짓는 것이다.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유연함이 건물을 더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비밀이 이 원칙에 숨겨져 있다.

병서인 〈삼략〉에도 이런 대목이 있다. '부드러움은 능히 굳셈을 제어하고, 약한 것은 능히 강함을 제어한다'는 말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에 있어서도 이처럼 부드러움은 중요하다. 특히 나라의 처세는 더욱 그러하다.

북핵 위기 속에 남북 종교인들이 6월 17~20일 평양에서 접촉하기로 뜻을 모았다. 남북 종교인들의 만남은 2015년 11월 금강산에서 열린 종교인대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니 세간의 이목이 몰리고 있다.

최근 정부는 북한 인도적 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및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의 대북 접촉을 잇따라 승인하며 민간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를 불러 모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 내 대북교류 및 인도지원 단체인 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나누며하나되기 등도 정부 방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종교인들의 남북교류는 앞서 밝힌 우리나라에 일종의 '유연함'을 더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탈출구 없는 강대강의 끝이 결국 파국일 뿐이란 점을 모든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의 일촉즉발 국면에서도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서희의 지혜가 바로 유연함에 있다. 법정 스님은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드는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이다'고 말했다. 북핵 위기 속에서 불교계도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민간교류의 물꼬를 터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 속에 녹아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易理作名法
(역리작명법)
(당신도 작명대가가 될 수 있다)

이름을 한번 잘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일반인들은 작명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함부로 작명하고 개명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옛말에 자식을 낳으면 먼저 그 이름 바르게 지어주어야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타고난 사주에 맞추어 지어야 한다. 본서에는 이름에 쓰면 절대로 안 되는 불용문자(不用文字)를 수록하였기 때문에 작명과 개명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법원이 선정한 인명용한자(人名用漢字) 8,142자 전부를 수록하였다.

易理作名法 (503쪽) 著者 : 孫中山 會長 (전, 대구미래대학 강사)
서점판매가 : 40,000원 (스님 판매특가 : 34,000원)
■ 입금계좌 : 기업은행 530-002326-01-014 (예금주 : 손상용)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10-9391-5699

국내외 한국불교대학
지원 모집

회주 無一 우학 큰스님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안내
1 3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을 때 인정하고 공부 지원함.
2 한국불교대학 정규시간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제공함.
3 2년 과정을 공부 마치면 2년 전법사증 수여.
4 전법사증을 받으시면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동문 신도로 인정함.
5 국내외 도량의 통학 1시간 이내는 지원 설립 할 수 없음.
6 1년에 한 번 정도 감포도량 무일선원 & 세계명상센터에서 회주 無一 우학 큰스님과 합동 명상 힐링캠프 개최.
7 교재를 구입한 신도만 정식 동문으로, 꼭 교재가 있어야 공부가 가능함.
8 CD 또는 TAPE의 발송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무단 복재를 절대 금지, 2개월 마다 모아서 반납해야함.
9 공부할 장소는 지원의 대표(지원장)가 알아서 하고, 장소 구입 및 자체 회비 등 운영에 관한 모든 재정 권한은 지원장에게 있으며, 한국불교대학 본부는 간섭하지 않음.
10 20명 이상이 되면 분원으로 승격하고, 큰 공간이 만들어지면 도량으로 승격함.

• 문의 : 053-474-8228 (담당 : 대구큰절 종무팀장 수향)

※ 감포도량 무일선원 & 세계명상센터 명상힐링학교 모집

사) 해동불교 조계종 총무원
종도 모집

총무원장 : 혜암

불조의 혜명을 함께
갈구 하면서, 제방의 스님들과
원만한 승가의 길을
함께하실 대덕스님을 모십니다

010-8224-1688

전북 익산시 왕궁면 시대길 73-26 영천사
천년고찰 암반수 영험도량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그림 족자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아 서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만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십장생이 들어간

16나한도(18나한) 달마도 족자

작품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화백의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합니다.

■ 그 림 만 : 70㎝ × 폭 44㎝ | ■ 판매가 : 각 70,000원
■ 족자포함 : 120㎝ × 폭 54㎝ | ■ 판매가 : 각 100,000원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나한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지입니다. 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연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합니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 분 한 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이 영원한 수호신을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16나한도



달마도

● 16나한도를 구입하시면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드립니다.

현불샵 ☎ 02)2004-8213, 010-6701-7709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카이스트 물리학도 스님이 된 까닭은?

테마人 도연 스님(봉은사 청년부 지도법사)



카이스트에서 학업을 과감히 중단하고 출가의 길을 선택한 도연 스님. 어디선가 좌절하고 있을 청춘들을 위해 자신의 방황 스토리를 기꺼이 내놓는 스님의 모습에서 부루나 존자의 모습을 본다.



2006년 카이스트 휴학 후 출가
'성적을 위한 공부' 에 회의 느껴
"행복하지 못할 거란 불안감"
교회 가르침서 해답 찾지 못해
명상 후 1년만 수행해보자 결심

출가 6년 만에 찾아온 고비
탁발 수행 · 학업생활 병행 중
2011년 학사경고 받아 방황
부모님도 "이제 그만하라" 설득
1달간 수행 중단… 초발심 되새겨

카이스트에 다니다 말고 스님이 됐다고? 대체 무슨 연유에서 일까?

몇 해 전 카이스트를 10년 만에 졸업해 화제가 된 스님이 있다. '10년 만에 졸업' 도 '카이스트' 도 이슈의 대상이 아니었다. 입학 때는 노벨상을 꿈꾸던 물리학도가 졸업 때는 승복을 입은 수행자가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놀라움의 대상이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일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일류대학을 제쳐두고 스님이 됐다니, '도대체 왜?' 란 물음이 절로 따라 나온다.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도연 스님이다. 10년 동안 도연 스님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

5월 29일 서울 동국대 교정에서 만난 스님은 "단지 그곳에 자신이 찾던 행복이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선망하는 곳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인가. 궁금증과 함께 인터뷰를 시작했다.

삶에 회의감 들 때 부처님법 만나

"고2때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일념하나로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국립대학을 가야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삭발도 했어요. 대학을 가고 싶은 이유는 단순했어요. 좋은 대학을 가야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막상 대학에 오니 생각과는 너무 달랐어요. 또 성적을 위한 공부를 해야 했죠."

책상 앞에 앉아 집중할수록 코너에 몰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영영 행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러던 중 불교를 만났다. 사실 스님은 출가 직전까지 '신실한' 개신교 신자였다. '불교' 를 떠올리면 향냄새 때문에 그리 좋은 인상은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불교와의 인연이 깊었을까. 20살 청춘의 스님이 삶의 회의에 빠져있을 때 불교가 나타났다.

"교회를 매우 열심히 다녔어요. 하지만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제게 궁극적 해결책을 가져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 포교당에서 수행하는 젊은 스님들을 봤는데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스님들을 따라 명상을 하게 됐는데 그 순간 막연히 행복할 수 있단 확신을 느꼈어요."

스님은 그 길로 법상종에서 출가해 '석하' 란 법명을 받았다. 1학년을 막 마친 2006년 초였다. 부모님과 지인들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스님의 결단을 막을 도리는 없었다. 스님 표현에 의하면 '출가를 저지르고야 만 것' 이다.

처음에는 1년만 수행해볼 생각이었다. 당장 삶의 탈출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삶 속 문제들의 해답을 찾아보고 그 답을 구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어디 수행이 하루아침에 끝날 일인가. 1년이 지났을 때 스님은 수행과 깨달음은 삶 전체를 두고 닦아야하는 일이란 걸 깨달았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빨리빨리 하고 다른 걸 또 하는 습성이 있었어요. 수행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죠. 근데 막상 그게 아니더라고요. 삶의 문제들은 일평생을 두고 산적해 있습니다. '수행은 끝이 없다' 는 말을 몸소 느꼈어요. 하면 할수록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6년간 수행에 전념한 후 2011년 학교로 돌아왔지만, 스님으로서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다보니 쉽지 않았다. 생활비, 책값, 교통비 등을 탁발을 통해 자급자족하다보니 공부할 시간은 더더욱 부족했다. 스님의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다' 는 유혹이 꿈틀거렸다.

"일주일의 절반을 선원에서 지내다보니 과제할 시간은커녕, 탁발도 수행도 해야 하니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도 이제 그만하고 돌아오란 말씀을 계속 하셨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고비였네요."

실제로 스님으로서 생활도 그만뒀다. 수행도 일절 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공부만 했다. 그렇게 한 달을 일반 학생으로서 살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도연 스님은 다시 서울 포교당으로 돌아왔다. 떠나지 않기로 마음먹으니 처음 포교당에 왔던 그 순간 일어났던 초발심이 타올랐다.

청춘의 기로서 출가… '청춘을 말하다'

10여년 가까이 법상종에 몸을 담았던 스님은 카이스트를 졸업한 다음해인 2016년, 現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에게 계를 받고 조계종 행자로서 생활을 시작했다. 이유는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란 대승불교에서 보살행을 실천하기 위함이었다.

"선학과 경전을 체계적이고 깊이있게 배우고 싶었어요. 선지식을 만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상구보리) 또 개인적인 공부와 수행으로부터 배운 부처님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하화중생)"

물론 다시 행자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부담도 있었다. 하지만 힘든 행자생활도 도반들과 함께하니 그야말로 모든 날이 좋았다. 사미계를 받은 후에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었다. 도연 스님에게 배움은 언제나 새롭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박원자의 '인생을 바꾼 108배'

B4 출판 남궁선의 〈불교로 바라본 생태철학〉

B6 기획연재 '간사이 아줌마' 의 일본사찰 엿보기

“불교는 삶의 해결책 제공하는 탁월한 종교”



도연 스님이 동국대 중앙도서관에서 활짝 웃어 보이고 있다. 스님은 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과에 입학한 후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어 즐겁다고 말했다.



도연 스님의 카이스트 졸업사진. 스님은 2015년 10년 만에 카이스트를 졸업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도연 스님’ B1면에서 계속

현재는 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과 1학년 학생이다.

스님의 책가방을 잠시 들어보니 돌덩이를 몇 개 넣어둔 게 틀림없는 것 같았다. 안에 뭐가 들었냐고 여쭈니, 집에 가서 보고 싶은 책이 있는데 혹시 책이 없어서 못 볼까봐 어렸을 때부터 늘 모든 책을 짊어지고 다녔다고 한다. “사실 안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라며 수줍게 웃지만, 강의가 없던 그날도 도서관에 가려고 학교에 왔다는 스님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엿볼 수 있었다.

“원효 스님, 보조 지눌 스님, 서산 대사 등 큰 스님들의 가르침과 사상을 배우는 게 가장 흥미롭습니다. 불교는 공부하면 할수록 삶의 해결책을 제공해주는 탁월한 종교란 걸 알게 돼요.”

아무리 공부에 욕심 많던 스님이라지만 산스크리트어는 여전히 어렵기만하다. 공부할 내용도 너무 방대해서 쉽지 않다며 멋쩍게 웃는 모습이 영락없는 학생이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문득 스님의 ‘청춘’이 궁금해졌다. 스님은 청춘을 ‘홀로서기’ 그리고 ‘출가정신’이라고 정의했다.

“20대로 들어서면서 인간은 홀로 서야하는 시기를 맞게 되죠.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안식처였다면 이때부터는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안식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독립’입니다. 또 자신만의 삶의 가치관을 갖는 ‘정신의 독립’도 함께 해야 진정한 홀로서기입니다. 스님들만 출가하는 게 아니에요. ‘스물에 미련해지지 않으려면 부모를 떠나야하고, 마흔에 어리석지 않으려면 스승을 떠나야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2016년 조계종으로 종단 변경
10여년 대한불교법상종에 몸담아
‘自利利他’ 뜻 품고 조계종 行
인도철학 전공하며 ‘자기수양’
명상클래스 열어 대승불교 실천

청춘… ‘홀로서기’ ‘출가정신’
20대 들어서면 ‘마음의 독립’ 필요
‘정신 독립’도 해야 진정한 홀로서기
“행복은 결코 획일화 되지 않아”
5월 책 〈누구나 한 번은…〉 발간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20대를 보내서였을까. 청춘의 한 가운데서 출가한 도연 스님은 ‘포기=좌절’의 굴레 속 이 시대 젊은이들의 고민을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스님은 연애, 결혼, 좋은 대학, 대기업 취업 등 자신 앞에 놓인 과제들 중 어차피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해야한다면 ‘지혜롭게 포기하라’고 말한다.

“4포 세대, 7포 세대, N포 세대란 말 많잖아요. 그런데 포기한다고 해서 꼭 좌절해야할 필요는 없어요. 전 학교를 포기하고 출가했었는걸요. 그 자체로 슬픈 일이 아니에요. 포기했을 때 오히려 더 높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해요. 물질적 가치를 포기함으로써 정신적 가치, 궁극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지혜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행복은 결코 획일화된 것이 아닙니다.”

스님의 말은 ‘남들 다 가려고 하는 곳에 내 행복도 있는 건 아니다’라는, 당연하지만 외면했던 사실을 깨닫게 했다.

“누군가에 도움 되는 삶 살고파”

도연 스님이 출가한 후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을까. 어느 하나의 에피소드가 답변으로 돌아오겠거니 질문했는데 스님은 ‘명상할 때’ ‘걸림 없는 삶을 산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을 때’라고 답했다. 자세히 보면 결국 스님은 매 순간 행복하다.

“일반 사람들처럼 대학을 졸업해 직장에서 조직생활을 했다면 저와 잘 안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님으로서 저는 세속에서보다 조금 더 유연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시켜서, 또는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빨리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것을 스님은 ‘걸림 없는 삶’이라고 표현한다.

무엇보다 행복한 순간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방황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다. 내 고난이 누군가에게 힘이 줄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하니 ‘힘들었지만 허투루 산 것은 아니구나’란 생각도 든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 스님의 가장 큰 화두도 ‘나와 남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길’을 찾는 것, 즉 자리이타행이다.

“이 세상 누구나 자신을 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자기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욕심에만 머물지 않고 주변에도 도움이 돼야겠지요. 반드시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해야만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씩 배우면서 또 조금씩 베풀어야 내게 기쁨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늘 회향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않겠어요?”

이번 5월, 책 〈누구나 한 번은 집을 떠난다〉를 낸 것도 같은 이유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 떠나려는 20~30대 청년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절망과 회의, 좌절 등 경험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미니 스님이 책을 발간하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행복으로 이르는 길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겁낼 일이 없었다. 책을 쓰는 것 뿐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명상클래스도 막 문을 열었다.

“SNS를 통해 명상하고 싶은 사람을 제가 직접 모집해요. 따로 장소가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대관해서 5월 27일에 1회 명상클래스를 열었어요. 15명이나 오셨어요.(웃음) 제가 부처님법을 알려줌으로써 누군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보다 보람찬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님의 목표는 훗날 ‘마음의 행복을 주는’ 명상아카데미를 여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불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행복을 원하는 누구나에게 문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도연 스님은 일반인들에게 절 문턱을 낮추는 것이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기만의 삶의 길을 찾아가기에도 버거운 때에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골똘히 고민하는 이 젊은 스님에게서 한국 불교의 밝은 미래를 본다.

글=박아름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도연 스님은?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며 세계적인 물리학자를 꿈꿨으나 자신에게는 그 길이 행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돌연 출가, 10년 동안 탁발과 참선 · 위빠사나 명상을 중심으로 수행해 왔다. 2012년부터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각종 연구소와 서울 홍대의 명상센터에서 에너지 명상 및 참선을 지도했다. 외교부 산하 NGO단체 ‘세계시민학교’와 서울시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 ‘숲속작은학교’에서 봉사했다.

10년 가까이 대한불교법상종에서 승려로 지낸 뒤 2016년 직지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하며 조계종 승려가 됐다. 현재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어린이 · 대학생 · 청년부 지도법사로 활동 중이다.



도연 스님이 5월 발간한 책 〈누구나 한 번은 집을 떠난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젊은이여, 절수행으로 미래 불안 떨치길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⑪ 2030세대의 절 수행



그림 · 박구원

젊음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딸과 함께 20여 일 동안 나라밖 여행을 다녀왔다. 서유럽의 이 도시, 저 도시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여행하다 보니, 만사를 다 잊고 이국의 정취에 젖을 수 있어 좋았다. 그러나 이번 여행에서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딸의 새로운 면을 발견한 일이었다.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딸에게는 이번 여행이 어디에 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자유로운 여행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모녀 사이라도 적지 않은 날들을 하루 24시간 함께 있으면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는데 괜한 기우였다. 집에서는 내가 보호자였지만 역할이 바뀐 낯선 여행지에서 딸아이는 내 보호자 노릇과 가이드 역할을 능숙하고 충실하게 해냈다. 걷기보다는 차타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체력이 약하다 싶어 과연 잘 다닐 수 있을까 염려했는데, 여행하는 내내 먼저 일어나 준비하고 정확하게 여행지를 잘 찾아 안내했다. 산에 오르기를 좋아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나를 위해 쇼핑하는 것이 즐거운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았다. 오랜 시간 잘 걷고 무엇이든 잘 먹고, 동행자인 엄마는 물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절 바르고 친절했다. 모르는 것은 좇아다니면서 묻고 바로 해결했다. 적극적이고 씩씩했다. 평소 좀 더 적극적이고 경쾌했으면 하고 아쉬워했던 딸아이의 모습은 거기에 없었다. 딸과 여행을 하면서 깨달았다.

"아, 사람은 자신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저절로 잠재된 제 실력을 발휘하게 되어있구나!"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그러한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삶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라봐주면 되는 것이다. 인생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부모들에게 말한다. 자식이 잘 못된 길로 가는 것만 바로 잡아주는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그에게 맡기라고. 그런데 참, 그게 어렵다. 조금 늦게 일어나면, 저렇게 게을러서 전쟁터와도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한다. 책을 좀 더 많이 읽으면 좋을 텐데, 시간을 좀 더 알뜰히 썼으면 좋을 텐데 등등의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모든 것이 괜한 걱정이라는 것을 나의 딸은 이번 여행길에서 보여주었다. 그냥 젊음 자체만으로 충분히 완성되어 있는 존재였고 넘치도록 아름다웠다. 그리고 엄마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개척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부모는 그야말로 자식이 지혜와 자비를 구족한 부처와 다름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그가 서서히 꽃피워나가는 것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숲속의 나무들이 제 스스로 자라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말이 그렇지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휴대폰에 아이들 이름 뒤에 '부처님'을 붙여 저장해 놓고 있다. 전화를 받을 때 '부처님'을 눈으로 보며 전화를 받는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면 매번 자식을 부처로만 바라보는 일은 아직 요원하다. 자식을 위해 수없이 108배를 하고 3천배를 했지만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딸 얘기로 서두가 길었다. 젊은이들이 108배를 하면 정말 큰 힘을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이다. 몇 회에 걸쳐 젊은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한다.

미래가 불안한 젊은이들에게 108배를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 남편의 전화를 받았다. 인터넷 뉴스에 난 젊은이의 소식을 들었느냐면서 전해준 소식은 자식을 둔 부모로서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였다. 한 어머니가 공무원 시험에 연거푸 세 번을 실패한 아들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태우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모르면 몰라도 어머니는 한없이 위축되어 있었을 자식을 위로했을 것이다. 너는 아직 젊고 기회는 또 있다고,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그런데 아들은 잠시 들른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갔다가 영영 어머니 곁으로 돌아오지 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십대 중반의 나이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스스로 버렸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랍고 가슴이 덜컥했던 것은 공시생사이트에서 이 기사를 본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반응이다. '자살을 미화할 수는 없지만 그 심정만은 이해가 된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저 공시생들이 보인 반응을 보며 이러한 가슴 아픈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 앞에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에서 오래 강의를 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젊은이들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남편은 우울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젊은이들을 위한 108배 이야기를 썼으면 좋겠다고 했다. 인간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존재인지, 살아있어 꿈을 품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충분히 아름다움 존재인지를 108배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조언까지 해주었다. 남편도 꾸준히 108배를 해오고 있는 터라 108배로 얻는 희망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체로 삶은 불안하다. 변화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삶의 당연한 이 이치를 젊은이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 내가 노력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을까봐 두렵고, 겨우 얻은 지금의 안전함이 깨질까봐 두렵다. 그래서 두려움의 덩어리가 희망의 그것보다 더 커질 때 그 무게에 눌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두려움은 내가 관념으로 형상화시켜 만들어낸 것일 뿐 실체가 없다. 108배는 자신이 만들어낸 두려움이 허상임을 깨닫게 하고 자신이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몸을 움직여 만들어진 정화의 힘 때문이다.

불안한 마음은 현재에 집중하지 않을 때 발생해

한배 한배하며 평정심 찾아

생전에 청빈한 율사로 이름을 떨친 해인사 지족암의 일타 스님은 자애롭기로 이름이 난 수행자이셨다. 요즘은 고시공부를 주로 도심의 고시촌에서 한다는데, 예전엔 많이들 절 암자에서 준비했다. 시끌벅적한 도시와 멀리 떨어져 조용한 지족암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타스님은 밤낮 방에 들어앉아 고시공부를 하고 있는 창백한 얼굴의 젊은이들에게 매일 아침 예불 시간에 108배를 하도록 권했다.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면서 합격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을 가졌던 그들은 108배를 하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 결과 대다수가 무난히 시험에 합격했다. 야구선수 박찬호씨가 미국에 프로야구리그에 진출해 최고의 투수로 활동할 때, 승부에 대한 불안감을 매일 108배를 하는 것으로 다스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현재에 집중할 때 불안감이 사라진다

17년 동안 줄곧 '깍뚜기', '만년 3등' 소리를 줄곧 들으면서 본업인 노래보다는 예능에 출연해왔던 코요테의 김종민씨. 그가 지난해 2016년 KBS 연예대상을 받았다. 일간지 기자가 "지금 전성기라고 해도 언젠가는 슬럼프가 또 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방송에서 사자성어 맞추기 퀴즈를 하던 중 질문자가 "오매?"하자 "가!"로 대답하고(정답은 오매불망), "미인?"하자 "박멸"이라고 대답했던(정답은 미인박명) 그다. 이처럼 늘 대중에게 어리숙한 바보로 비쳤던 그가 저 기자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했을까.

"단순해지는 거다! 뭐가 안 풀릴 땐 일단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몸을 열심히 쓰면서 부딪쳐보는 거다. 그렇게 하루 종일 고되게 부딪쳐보고 집에 돌아갈 때쯤이면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뭐 어쩌겠어?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문제가 풀린다. 실력도 그렇게 는다."

그러면서 그는 팔굽혀펴기를 예로 들었다.

"10개까지는 할 수 있다. 거기에 하나를 더해 11개를 만드는 게 정말 힘든데, 죽을힘을 다하면 11개를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12개, 13개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걱정 안한다. 11개를 일단 만들어 놓으면 뭐든 될 테니까"

20대 후반, 30대 초에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불안해서 사업에 손을 댔다가 몇 번이나 망한 적이 있다는 그가 팔굽혀펴기를 예로 들어 인생의 핵심을 설파한 것처럼, 108배도 그렇다. 처음엔 108배 하기도 힘들지만 그 산을 넘어서고, 1080배, 3천배를 하다보면 그가 말한 것처럼 뭐가 돼도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 몸을 움직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감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절 108번 하는 것도 힘들었던 자신이 3천배를 해냈다는 쾌감을 맛보았을 때, 무엇이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이는 수행이 무슨 극기 훈련도 아니고 그렇게 3천배를 수없이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다. 당연히 극기 훈련이다. 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무엇을 넘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성철스님은 자신을 극기하는 자만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일갈하셨다.

지금 현재에 집중할 때 안심을 얻는다. 다시 말해 불안감을 확실하게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재의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난 과거에 매달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마음이 가 있으면 마음도 몸도 무겁다. 가볍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있다. 절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젊은 도반이 홀로 삼보일배를 하며 설악산 봉정암에 올라갈 때의 일이다. 밤이 늦은 시각, 깊은 산중에서 폭설을 만났다. 눈보라 속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때마침 머리에 두르고 있던 헤드라이트도 꺼져버렸다. 예상치 못한 일 앞에 당연히 두려움이 몰려왔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생각했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에만 집중한 것이었다. 뭔가 불안하다 싶으면 마음이 현재에 있지 않을 때다. 현재에 깨어 있게 하는 수행이 108배다.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지혜의 보고 佛書





업사상과 연기법 바탕한 생태문제 해결책 담다



불교로 바라본 생태철학

남궁선 지음 | 민족사 펴냄 | 2만 2천원

생태문제 위기 불교적 시각서 분석해
생태문제 원인은 인간의 탐진치 때문
인간 욕망서 벗어나 공생하는 것이 답
근원적 해법은 자비심 확산에 있어

생태 · 환경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책을 사유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불교로 바라본 생태철학〉의 저자는 생태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다고 한다. 불교를 통해 생명 존중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부터다. 그는 인류와 지구 생명체 전체의 생존의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 오늘날의 생태 위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의왕(醫王)인 부처님의 지혜를 빌렸다. 그래서 불교의 연기법과 업 사상을 토대로 하고 그 밖의 여러 자료를 섭렵해 이번 책 〈불교로 바라본 생태철학〉을 완성하게 됐다.

서양서 태동한 기존의 생태학은 서양인들이 주도적으로 전개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태문제를 다룬 대부분의 학문은 서양적인 사고와 그들의 전통문화에 근거해 연구됐고, 그들의 연구 경향에 맞춰서 논리를 개발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서양 생태철학의 이해나 분석보다는 불교 사상에 입각해 생태문제를 다룬다. 왜냐하면 기존 생태철학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서양인들의 자연관이나 생명관만 갖고는 생태문제의 해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연기법(緣起法)을 근간으로 3법인(三法印)을 주창하면서 4성제(四聖諦)를 통해 인류가 갖는 고통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업사상이 불교에 도입돼 채용된 것도 이에 뿌리를 둔다. 장구한 불교의 역사 속에서 업에 대한 논의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책서는 생태문제를 불교적인 시각서 조명하기 위한 자료로 초기불교 경전을 비롯해 시대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이후의 경전과 논서(論書)를 자료로 선택했다.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 등에 보도된 시사성 있는 자료를 참조해 현재 나타난 생태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려 한다.

인간의 행위서 비롯된 생태계 위기를 들여다보기 위해 우선 인간 행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는 오늘날 생태 위기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무지와 욕망(貪心)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자연을 착취해서 편하게 살려는 탐욕과 유한한 지구의 자원을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합작한 결과가 바로 생태문제라는 것이다. 저자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생태위기가 초래됐다면, 불교의 업에 대한 분석은 생태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말한다.

불교에서는 탐(貪) · 진(瞋) · 치(癡) 삼독(三毒)이 모든 업의 원인이라 본다. 이 중에서도 무명(無明, 癡)이 더 근원적이라 생각해 무명을 12연기의 근본 원인으로 삼았다. 갈애나 무명은 번뇌의 일종으로서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마음속에 잠재한 심리 상태를 말한다. 업은 잠재되어 있는 갈애나 무명이 표면화되어 심리활동이나 신체활동으로 나타난 것을 말한다.

중생은 사물을 실재 그대로 알지 못하기(無明) 때문에 업을 만든다. 무명 속의 인간들은 한시적 생명을 누리는 현재의 자기를 상주불변의 자아로 착각해 즐거운 감각만을 추구하려는 끝없는 욕망으로 새로운 업을 짓는 것이다. 저자는 무명으로부터 시작되는 업의 진행 과정을 12연기를 통해 살핀다. 그리고 이를 생태학에 적용시켜 생태계의 상호의존성 순환성 · 항상성을 있는 그대로 볼 줄 모르는 게 바로 생태적 무명이라고 꼬집는다.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이 가져온 재해가 나날이 지난날의 기록을 갱신하는 지금, 생태위기는 어떤 질병이나 전쟁보다도 인류 생존에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왜 이런 생태환경서 살게 됐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인간의 욕망 충족을 전제로 하는 경제문제가 아니라, 모든 생물종의 공존공생을 논하는 생태문제다. 그러나 인간 우선주의로 자연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한 우리는 인간과 자연의 상의상관성(相依相關性)을 염두에 두지 않기 쉽다. 이러한 문제를 불교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보자는 것이 이 책의 대주제이다.

불교의 생명관은 나와 남이 서로 다른 둘이 아니고(自他不二), 자연과 내가 서로 분리된 둘이 아니라는(依正不二) 가치관서 출발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기론적 생명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생태계의 생명체들은 서로 의존하면서(相互依存)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를 도우면서(相依相資) 공존한다는 생명관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다른 생명체를 자기 몸과 분리할 수 없는 연속체의 개념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자연현상을 들여다보면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들은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하면서 각자 나름의 역할이 있다. 어느 생명체도 소홀히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생산자(producer)인 식물류는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빛을 이용하여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생산하고, 이들이 생산하는 유기물은 생산자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자와 분해자의 에너지원이 된다.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그리고 잡식동물은 그 에너지원을 소비하는 소비자(consumer)이다. 분해자(decomposer)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말한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물질을 얻으며 생산자가 필요로 하는 무기물을 공급해 주는 이들 분해자는, 식물이나 동물의 사체(死體) 또는 이들의 배설물 등을 분해함으로써 생태계의 물질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생태계는 이들 생산자 · 소비자 · 분해자들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의해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할 수 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이들 생산자 · 소비자 · 분해자의 역할 분담에 의존하여서만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과학기술은 이런 생태계 구성원들 각자의 역할을 무시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여 자연을 오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그를 이용하는 데만 몰두함으로써 생태계의 순환을 파괴한다.

순환은 모든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원리다. 생태계 파괴는 이런 순환 고리를 단절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들이 공존공생하지 않으면, 즉 생태계가 순환하지 않으면 지구의 항상성은 유지될 수 없으며, 인간은 자멸할 것이다. 한번 소멸되는 생물종은 복구가 불가능하고, 이미 교란된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길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것이 지금 당장 우리가 〈불교로 바라본 생태철학〉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통을 해결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현 생태문제로 인한 고통의 해결에 불교의 지혜를 빌려 그 타개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자는 실천을 중요시하는 불교의 근본이념을 현 시점에서 재조명하여 생태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책은 업사상에 대한 교학 차원의 연구에서 벗어나, 업의 근본원인인 탐욕 · 분노 · 어리석음(貪瞋癡)을 생태위기의 발생 원인과 연관 지어 분석하고, 업의 행위에 따른 분류법인 신 · 구 · 의(身口意) 3업(三業)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생태적 접근을 시도한다.

저자는 불교의 업사상을 현 시대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 이를 생태문제에 적용,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생태파괴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 · 진 · 치가 밖으로 표출된 것이다. 그러므로 생태문제의 근원적인 해법은 우리 마음에서 탐 · 진 · 치를 소멸시키고 자비심을 확산시키는 데 있다.

둘째, 생태적 윤리관을 확립해야 한다. 소비지향적 윤리관 대신 생태윤리관의 정립을 위하여 새로운 법적 · 제도적 장치가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생태계의 안정성은 모든 동식물의 종 다양성에 의한 공존과 공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체생명에 대한 불살생보다는 종의 소멸 방지에 초점을 둔 불살생관으로 생태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서구지향적인 식생활 문화와 소비지향의 문화를 지양(止揚)해야 한다. 과도한 에너지와 곡물이 투입되는 양축산업이 생태계에 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육중심 식생활 문화에서 채식 위주의 식생활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생태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비주의문화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체제의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생태문제는 인구의 팽창 억제 내지는 감소가 없이는 개선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인구증가율이 높은 개도국의 인구팽창 억제는 물론이고 인구의 증가가 없는 나라에서도 소비지향적 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 한다면 인구의 감소는 필수적이다.

여섯째, 생태문제는 사유체계의 논리적인 완벽성보다 실천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생태문제의 원인과 해법은 다인다과(多因多果)의 원칙에 입각하여 개인생활의 변화(不共業)와 사회제도적 · 문화적(共業) 관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어떤 인류문명의 발전도 자연과의 조화를 무시한 채 생태계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곱째, 현대 인류는 불교에서 주장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一切衆生悉有佛性)'는 불성관에 입각해 현대사회가 지향하는 인간중심주의의 모순점을 과감하게 시정하고 모든 생태구성원들이 공생 공존할 수 있는 생태중심의 사회가 바로 정토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도서, 명상음반,
불교용품 전문
운주사



미아리고개
• 성신여대
아리랑고개
• 4호선 성신여대입구 3번출구
동일하이빌 지하1층 운주사
• 성북구청

www.unjusa.com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Tel. 02-3672-7181



면발광 LED 인등



법당장엄일체
수미단 닫집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장엄을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프랑스 국립도서관 지하에 갇힌 세계 최초 금속활자 '직지'의 비밀

영화 '직지코드' 6월 28일 개봉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 '직지'
숨겨진 역사 찾는 추적 다큐

직지 보관된 프랑스 국립도서관
제작진에 직지 열람 허락 안 해
기상천외한 취재 과정 담아 눈길
정지영 감독 등 '실력파' 제작진

서양 최초의 금속활자 구텐베르크는 직지(직지심체요절)로부터 영향을 받았을까? 이 물음에서 시작된 궁금증은 꼬리를 물어 프랑스 국립도서관 지하에 갇힌 직지의 비밀을 파헤치기에 이른다. 유럽 5개국 7개 도시를 순회하며 현존하는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 직지의 역사적 비밀을 찾아 헤매는 추적 다큐멘터리 '직지코드'가 6월 28일 개봉된다.

직지는 역대 불조사들의 어록 등을 담고 있는 불전이다. 1377년 고려 흥덕사에서 인쇄됐는데, 이는 독일의 구텐베르크 금속활자 인쇄본보다 약 70년 앞선 때다.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에 보관돼 있다.

영화 '직지코드'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지하에 보관된 우리 문화재 직지를 찾아 나서며 그동안 숨겨졌던 역사를 추적해가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제작진은 '구텐베르크의 서양 최초 금속활자 발명은 당시 동양 최고의 문명국 고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흥미로운 가설을 세우고 여정을 시작한다.

특히 직지의 열람을 허락하지 않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석연찮은 반응에 더욱 집요하게 파고드는 제작진의 기상천외한 취재 과정은 극영화를 뛰어넘는 긴장감과 희열을 더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 5개국 7개 도시에서 로케이션이 진행됐다. 앞서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며 호평을 받았다.

홀리가든 측은 "동서양 금속활자 문명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프랑스 파리부터 이탈리아, 로마 등 유럽 각국과 한국을 오가는 제작진의 여정은 다큐멘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생생한 에너지를 고스란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영화는 2012년 김명호 前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의 실제 석궁테러사건을 영화화한 법정스릴러로 평단과 대중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부러진 화살'을 연출했던 정지영 감독이 총괄 제작을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지영 감독은 냉철하고 뚜렷한 주제의식의 작품들로 우리 사회에 묵직한 화두를 제시하는 대표 지성파 감독으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이번 영화의 메가폰을 잡은 우광훈 감독과 함께 유럽 5개국 7개 도시 대장정을 완수한 제작진은 천안함 사건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천안함 프로젝터'(2013)로 주목받았던 실력파 군단이다.

총괄제작 정지영 · 연출 우광훈 감독에 더해 제작진의 탄탄한 취재력이 '직지코드'에서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감독 우광훈 · 데이빗 레드맨, 제작 아우라픽처스, 배급 엣나인필름, 러닝타임 102분.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현존하는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 직지의 역사적 비밀을 찾아 헤매는 추적 다큐멘터리 '직지코드'가 6월 28일 개봉된다. 사진은 '직지코드' 스틸컷. 홀리가든 제공.

국립중앙博 6월 '큐레이터와 대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와 7시 2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6월 한 달간 큐레이터 대화는 특별전 '선인들의 마음, 보물이 되다'와 '아라비아의 길'을 큐레이터가 직접 해설하는 시간으로 이뤄진다. 특히 '선인들의 마음, 보물이 되다'는 서화 · 서적 · 도자 · 금속공예 등 다양한 국보와 보물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로, 큐레이터와 대화에서는 전시품의 미적가치와 지정사유, 지정관련 정책 등을 설명한다.

또한 특별전 '아라비아의 길-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와 문화' 전시설명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오아시스와 사막에 핀 여러 문명들, 이슬람교의 발생부터 20세기 초 사우디아라비아 건국에 이르기까지 아라비아의 역사 등에 대해 들을 수 있다.

세부 주제와 일정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www.museum.go.kr) 참조. (02)2077-9455 박아름 기자

불교문화의 寶庫 '둔황 예술' 서울서 장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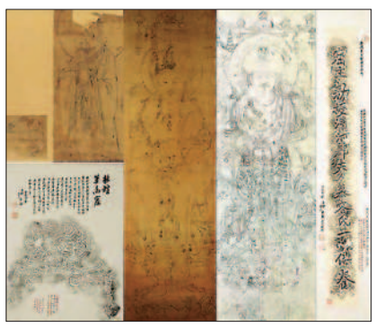
〈보고〉

주한 중국문화원,
'둔황 예술전' 6월 10일까지

불교 문화재의 보고이자 실크로드의 관문이었던 중국 간쑤성 둔황 예술의 극치가 서울에서 펼쳐진다.

'실크로드:문명 융합의 기억-둔황예술문헌전'이 서울 종로구 주한 중국문화원에서 6월 10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전시는 중국의 '일대일로' 문화 전략 일환으로 둔황의 문화 예술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둔황은 기원전 2세기 한나라 사신 장건이 개척한 실크로드의 중심 도시로, 각지 문화가 만나던 동서양 교류의 거점 지역이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진 4세기부터 둔황 지역엔 수많은 승려가 거쳐가면서 불교 예술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특히 불상이 많아 '천불동'으로 불리는 막고굴은 약 500개 굴로 이뤄진 세계 최대 불교 예술 유적지로 널리 알려진다.



이번 전시에 출품되는 둔황막고굴 벽화 밑그림 및 탁본들. 왼쪽부터 불교조상:천수관음보살과 파수선(부분), 불교조상:양지관음보살, 보살(연필본), 불교조상:벽화탁본 공양인 머리말2, 왼쪽 아래는 오대시기 귀부인 봉관 머리장식 탁본. 주한 중국문화원 제공

이번 전시에서는 장대천(1899~1983)이 막고굴에서 그림 공부를 하던 1940년대에 그린 밑그림을 비롯해 1940~1950년대에 막고굴의 옛 모습을 담은 원판 사진, 1940년대 막고굴의 벽화 및 둔황에서 벽돌로 탁본한 탁편 등 전시된다. 탁편 중에서는 둔황 61호굴의 오대(907~960) 시기 작품으로 봉황 형태 머리 장식과 새 무늬가 돋보이는 공양인상 등이 선보여진다.

이뿐 아니라 2000년 이상 이어온 실크로드를 통한 문명교류의 역사적 흔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둔황을 소재로 한 현대 화가들의 회화 등 50여 작품도 전시된다. 4D로 재현한 둔황 비천(하늘을 나는 선인 그림)과 둔황 다큐멘터리도 감상할 수 있다.

'크고(敦) 성대하다(煌)'는 뜻의 돈황은 한국에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유명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와는 인연이 깊다. 20세기 초 17호 석굴 장경동에서 발굴된 2만 여점 유물 속에서 세계 4대 여행기로 평가받는 통일신라 승려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됐다. 최근에는 삼국시대 한반도 사람들을 묘사한 돈황 벽화가 40개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박아름 기자

천년 황금빛의 비밀 '수은도금'

법련사 불일비술관, 6월 21~27일 오세종 초대전

법련사 불일미술관은 오세종 작가의 '천년 황금빛의 비밀 수은도금' 展을 6월 21~27일 2관에서 개최한다.

오세종 작가는 '금동불'이란 말을 처음 듣고 왜 금동불이라 하는지, 또 청동불과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해하던 차에 감은사 사리함과 백제 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를 만났다. 오 작가는 두 유물의 찬란한 황금빛의 비밀이 왕수(진한 염산+질산)를 거쳐 나온 금사리를 수은에 입히는 아말감도금법이란 것을 알게 됐고 이에 매료됐다. 이후 꾸준히 옻칠과 아말감도금 기법을 활용, 다수의 작품을 선보여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 작가가 새롭게 수은도금처리한 부여 능산리 출토 '백제금동대향로' '고종황제 어새' '상원사 봉황보당' 등 15점의 작품이 소개된다.

오세종 작가는 문화재수리기능공으로서 올해 예산 수덕사의 목조삼세불(보물 제1381호)의 보수 및 생옻칠 개금 작업을 실시했다. 1979년 4월 불교미술에 입문, 1993년 제14회 불교미술대전 입선 및 2000년 제25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서 〈수은도금 금강저〉로 입선한 바 있다. 현재 문화재 기능인협회 재정이사를 맡고 있다.



상원사 봉황보당

박아름 기자

참기 힘든 치아통증, 거친 피부
피부·치아 건강제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십니까?
참기힘든 치아 통증, 치아건강 백세인생
거친피부, 노화촉진, 피부건강, 청춘인생
약사여래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원력으로
건강하여지니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료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아토피, 피부알레르기,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등
치아피부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010-6332-6070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철 골조로
사찰 신축 전문
지붕개량 전문
장점
• 목조보다 50% 비용 절감
• 지진에 강함
• 비틀림이 없음
• 공사기간 단축
대수건설 010-3911-1775. 011-9726-9288

사색의 佛像서 한·일 교류사를 만나다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⑩ 고류지와 닌나지

고류지(廣隆寺)

교토는 나라보다 더 늦은 시기에 창건된 절이 많지만 고류지는 603년에 건립된 사찰로 교토에서 가장 오래 된 절이다. 또 쇼토쿠타이시(聖德太子)가 건립한 호류지(法隆寺), 주구지(中宮寺)등 일본 7대사(日本 7 大寺)의 하나이다. 원래 명칭이 하치오카데라(蜂岡寺), 하타노키미데라(秦公寺) 등 몇 개 있었지만 오늘날은 고류지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니혼쇼키(日本書紀)에 의하면 도래인 하타노가와카쓰(秦河勝)가 쇼토쿠타이시한테 불상을 하사받고 이 불상을 본존으로 사찰을 건립한 것이 고류지의 시작이라고 한다.

창건 당시는 규모가 큰 사찰이었으나 화재나 전란 등 어려움을 겪어서인지 지금은 창건 당시보다 작아졌다. 현재 고류지는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고 입구인 난다이몬(南大門) 바로 앞에는 참배길이 아니라 자동차나 노면전차가 왕래하는 큰 길이 있다. 게다가 경내도 넓지 않아서 옛날 호장한 사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도 내가 고류지를 교토 지역 사찰 중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장 오래된 사찰이여서가 아니다. 도래인 하타 씨와 연관있는 사찰이고 일본 불상 가운데 한국인들에게 가장 친근한 느낌이 드는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봉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난다이몬에서 들어가면 가장 뒤쪽에 신레이호덴(新靈寶殿)이라는 건물이 있고 아스카 시대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비롯한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가마쿠라 시대의 불상이 상설전시로 공개되어 있다. 고류지 팜플렛에 의하면 신레이호덴에는 국보 20점, 중요문화재 48점이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국보로 지정된 목조미륵보살반가사유상 두 분도 안치되어 있다. 한 분은 보관(寶冠)미륵, 또 한 분은 얼굴이 우는 것처럼 보여서 '우는 미륵'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관미륵의 아름답고 이지적인 얼굴, 깊이 사색하는 사유의 자세,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불상이다. 어디서 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신라에서 전해진 것 아니면 일본에서 도래불사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관미륵은 일본에 있는 불상가운데 특히 좋아하는 불상이다. 사랑스럽고 청년처럼 젊어보이고 너무 인간적이다. 신레이호덴에 가서 보관미륵을 만나면 영원히 앞에 서있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서울에 거주했을 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반가사유상을 만나는 것 또한 한국 생활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고류지의 반가사유상이 옛날의 한반도와 일본의 깊은 관계를 현대의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용히 알려주는 것 같다.

신레이호덴에는 또 한일 간의 깊은 관계를 알려주는 도래인 하타 노가와카쓰 부부의 조각상이 안치되어 있다. 여기서 도래인 하타 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고류지, 교토 대표적인 관광지인 아라시야마(嵐山)지역이 교토시 우쿄구(右京區)에 위치한다. 우쿄는 원래 가쓰라가와(桂川) 강의 범람이 많은 지역이었다.

여기에 하타씨가 집단으로 도래했고 최신기술을 구사해 강에 제방을 쌓아 농지화했기 때문에 우쿄는 비옥한 땅이 되었다. 하타 씨는 농사, 제방 외에도 양조, 양잠, 베짜기 등 신기술을 일본에 전했으며 일본고대 사회가 발달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타 씨를 '하타' 라고 발음하는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故우에다마사아키(上田正昭)의 〈도래渡來の고대사古代史〉에 의하면 하타씨 가운데 베짜기를 맡아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직(機織)의 일본 발음인 '하타오리' 의 하타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 비단을 산스크리트어로 '하타' 라고 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고도 한다. 또 도래인이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한국어 '바다' 가 '하타' 가 되었다라는 주장도 있다. 경상북도에 있는 옛날지명인 '파단(波旦)' 이 일본에서 '하타' 가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저자 우에다 교수님은 이 주장에 동의한다.

818년 고류지는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때 고류지를 재건한 사람도 역시 하타 씨 출신인 도쇼(道昌) 스님이었다. 도쇼 스님이 강에 다리를 놓거나 홍수대책으로 제방을 개축하거나 민중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를 두고 사람들은 교키(行基) 스님의 재래(환생)라고 칭찬했다. 아라시야마에 도쇼 스님의 공을 기념한 석비가 있다. 또 고류지 신레이호덴에는 도쇼 스님이

목조반가사유상 봉안처 고류지
신라 渡來 佛母가 조성 추정돼
한일 불교 깊은 우호관계 확인
닌나지, 日황실 사찰의 대표격

제작했다고 전하는 허공장보살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닌나지(仁和寺)

우즈마사 고류지역에서 노면전차를 타고 가타비라노쓰지 역에서 기타노하쿠바이초(北野白梅町)행으로 갈아타야 한다. 오무로닌나지(御室仁和寺)역에서 내리면 북쪽방향으로 닌나지의 훌륭한 문이 보인다.

닌나지가 위치한 이 곳은 헤이안 시대 초기부터 경승지(景勝地)로 알려져 있고 많은 귀족이 별장을 지었다고 한다. 여기에 886년 고코(光孝) 천황이 사찰을 발원했다. 그러나 이듬해 고코 천황이 세상을 떠나자 천황의 아들인 우다(宇多) 천황이 아버님 유지를 받들어서 888년 사찰을 개창했다. 당시의 연호인 '닌나(仁和)' 가 닌나지라는 사찰 이름으로 붙여진 이유다. 우다 천황이 897년 31세때 왕위를 아들에게 양위하고 899년에는 출가해서 법황(法皇)이 되었고 904년 닌나지에 어실을 만들었다. 여기의 법황이란 출가 태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법황이 거주하는 곳을 오무로(御室)라고 부르는데 '닌나지에 있는 오무로' 가 '오무로가 있는 닌나지' 가 되어 이후로는 '오무로' 가 닌나지 일대의 지명이 되었다.

닌나지는 대표적인 몬제키(門跡) 사원(寺院)으로 알려져 있다. 몬제키란 황실이나 귀족이 대대로 주지를 맡아오는 사찰 또는 이런 주지를 가리키는 말이고 우다 천황이 출가해서 닌나지 주지인 오무로 몬제키가 된 것이 몬제키의 시작이다. 닌나지는 19세기 후반까지 황실이나 귀족의 자손들이 주지를 맡아서 이어져 온 격식이 높은 사찰이다. 황실과의 관계 또한 깊다.

헤이안 시대 후기에는 닌나지 본사를 중심으로 주변엔 닌나지 말사나 황실이 발원한 사찰이 잇따라 건립되어 오무로 일대는 크고 작은 사찰이 많은 지역이 되었다. 12세기 초에 위용을 자랑하던 닌나지 가람이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재건되었고, 주변 말사 가운데 사라진 곳도 있었지만 닌나지 전체적으로는 융성했다.

그러나 지금은 번성했던 닌나지 당시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무로마치 시대 후기인 1467년에 전국의 슈고다이묘(守護大名)가 동군, 서군으로 나뉘어 싸우는 오닌노란(應仁の亂)이라는 큰 전란이 벌어졌다. 슈고다이묘란 원래 가마쿠라 시대 때 바쿠후(幕府) 무가정권의 정청(政廳)이 지방마다 배치한 군사, 경찰을 담당하는 슈고(守護)가 무로마치 시대에 들어 권력을 확장한 결과 영주화된 것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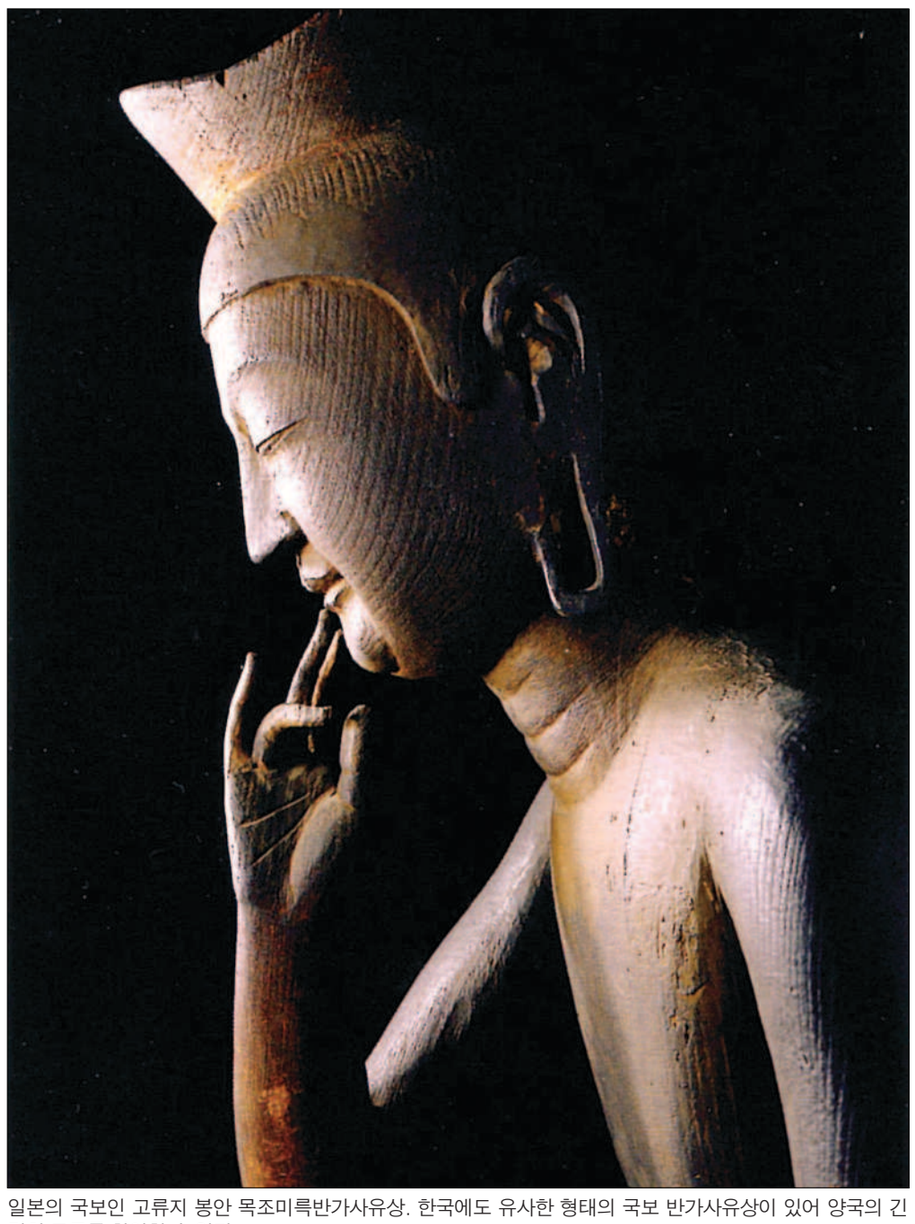
오닌노란은 병사 약 27만 명이 교토에서 약 11년에 걸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 일본 역사상 최대급 전란이었다. 닌나지에 진지가 있던 서군을 향해 동군이 쳐들어오고 그로 인해 닌나지는 오무로를 비롯한 당탑이 다 타버리고 온통 잿더미로 변했다.

닌나지 재건이 시작된 것은 에도 시대에 들어서부터다. 17세기 에도막부 3대장군인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가 닌나지 재건을 위해 지원했다. 당시 개축하고 있었던 교토 고쇼(京都 御所)에서 기존건물을 하사받고 닌나지로 옮겼다. 현재 닌나지 금당이 고쇼 시신덴(紫宸殿)을 옮겨 놓은 것인데 당시의 궁전건축 특징을 보여주는 건물로 정말 귀중하다. 금당뿐만 아니라 닌나지는 전체적으로 우아하고 일본미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황실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그 연유라고 할 수 있다. 평소 닌나지의 금당에는 못들어가지만 교토문화재 특별공개 기간 중에 닌나지를 방문한다면 예불을 드릴 수 있다.

닌나지 입구인 니오몬(二王門)으로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보이는 곳이 고텐(御殿)이다. 고텐은 역대 몬제키가 거주했던 곳이며 고텐을 관람하면 일본 황실의 품격을 바로 느낄 수 있다. 고텐에 있는 신덴(宸殿)은 에도시대 고쇼에서 하사받은 건물을 옮긴 것이나 19세기 말에 화재로 소실되었고 20세기 초 재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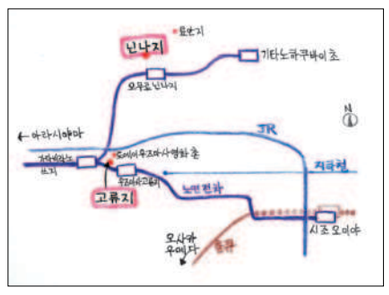
고텐에서 신덴 외에도 건물이 몇 개 더 있는데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회랑을 따라 걸으면 마치 궁전에 들어와있는 느낌이 든다. 교토에서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있는 사찰이 많지만 이렇게 황실궁전의 우아함을 느낄 수 있는 사찰은 닌나지뿐이라고 생각한다. 오중탑을 차경으로 한 고텐정원도 정말 예쁘다.

마지막으로 닌나지 대명사처럼 유명한 오무로자쿠라(御室櫻) 소개를 하지 않으면 닌나지 소개를 했다고 할 수 없다. 오무로자쿠라는 키가 아주 작으면서 보통의 벚꽃보다 꽃잎이 살짝 크지만 개화는 교토에서 가장 늦다. 오무로자쿠라의 개화 절정기에는 오중탑이 마치 벚꽃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모습으로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이다. 오무로자쿠라가 만개한 시기에 맞춰서 닌나지를 방문하면 교토의 우아함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국보인 고류지 봉안 목조미륵반가사유상. 한국에도 유사한 형태의 국보 반가사유상이 있어 양국의 긴밀한 교류를 확인할 수 있다.

고류지 · 닌나지 주변 볼거리



고류지, 닌나지 주변에는 킨카쿠지(金閣寺), 료안지(龍安寺)를 비롯해 볼거리가 많다. 아라시야마도 가까워 이 지역에서 하루 종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고류지 북쪽엔 도에이우즈마사영화촌(東映太秦映?村)이라는 테마파크가 있다. 영화촌에는 영화사 촬영소의 대하사극 세트장이 공개되어 있고 에도시대 거리풍경을 체험할 수 있다.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는 현장을 직접 볼 수도 있고 대하사극 의장을 입어볼 수 있는 체험 등 기획이 풍부하다.

이 지역의 교통 수단은 노면 전차이다.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지만 킨카쿠지나 료안지를 경유해서 닌나지에 오는 버스는 이용승객이 많아서 불편할 수 있다.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마지막

누구나 각자에게 주어진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 원고, 마지막 무대, 마지막 취재, 마지막 출근, 마지막 강의…. 누구나 한 번은 각자의 마지막을 만나야 한다. 새들에게 마지막 날갯짓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오늘'이 몇 번 쯤 남았을까. 푸른 하늘이 몇 번 쯤 남았을까. 모두 후회 없는 마지막이기를….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⑪ 100살 비구스님의 전생

모든 결과는 내 행동서 비롯된다

왕사성에 복증(福增)이라는 장자가 있었는데 100살의 할아버지였습니다. 100살이라면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나이입니다. 그러나 복증 할아버지는 주책 바가지여서 존경은 커녕 남의 놀림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출가를 하면 공덕이 크다는 말을 듣고, 부처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니 마침 부처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뜻을 말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속이 상한 그는 할아버지답지 않게 정사의 큰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침 부처님이 정사로 들어오시다가 복증 할아버지를 보셨습니다. "그 나이에 출가를 하시겠다니 참으로 장하십니다."

부처님은 복증 할아버지를 크게 칭찬하시고, 신통제일의 목련 존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출가시켜서, 가르치도록 일러주셨습니다.

복증 할아버지는 100살에 비구스님이 된 것이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나 복증 비구는 마음에 맞지 않는다며 주책없이 젊은 스님들과 자주 다투었습니다. 어느 날은 젊은 스님과 다툰 뒤, 분을 참지 못해서 강물에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자살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통제일 목련 존자가 이걸 모를 리 없지요. 목련은 신통력으로 복증 비구를 강에서 건져 언덕에 올려놓았습니다. 목련은 주책없는 이 노인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하다가 그의 전생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나를 스승으로 잘 배워야 합니다. 도를 얻는 길을 가르쳐 드리죠. 내 옷자락을 잡으세요."

스승 목련은 자기 옷자락을 복증 비구가 잡게 한 다음 신통력으로 허공을 날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며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구경시켰습니다.

그 모두를 지나서 높다란 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뼈로 된 산이었습니다. 스승 목련은 복증 비구를 데리고 뼈의 산에 올랐습니다.

"높지요? 이 뼈의 산은 복증 비구의 전생의 뼈무더기입니다."

복증은 너무 놀라서 불쑥, 머리털이 솟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승님. 지금 저의 심장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 뼈산이 저의 전생의 뼈무더기라면 그 내력을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 목련이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전에 복증 당신은 큰 나라의 왕이었지요. 그런데 놀이를 너무 즐기는 주책없는 왕이었어요."

스승 목련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어느 날 주착없는 왕이 주사위놀이를 벌였는데 왕의 편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왕이 소리치고 있는 그때에 송사가 들어왔습니다. "대왕 마마.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 하나를 붙잡아 왔습니다. 재판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신하가 와서 여쭈었습니다.

놀이에 정신이 팔린 왕이 말했습니다. "지금 주사위놀이에서 내 편이 이기고 있소. 자리를 떠날 수 없으니, 신하들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살인자라면 사형에 처해야겠지."



그림 · 강병호

명령을 받은 우두머리 신하는 아래 신하를 모아서 의논하고, 잡혀 온 사람을 사형에 처한 다음, 왕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잘했소. 살인자라면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지." 놀이에 빠진 왕은 신하의 보고를 받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진짜 살인자가 잡혀왔습니다. 애매한 사람을 살인의 죄를 씌워 죽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죄 없는 사람을 죽였군!"

왕은 크게 뉘우치며 며칠 밤을 고민에 빠졌습니다. 놀이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애매한 사람을 죽였다. 백성의 어버이가 돼야할 왕이 살인을 했다. 나 혼자만 지옥에 가야 할 판이다!"

번민을 하던 왕은 왕의 자리를 버리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지키고, 열심히 수도를 했습니다. 그 갚음으로 겨우 지옥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지옥은 면했지만 그는, 바다의 큰 물고기 마가라의 몸을 받았습니다. 몸길이가 7백유순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섬의 크기였습니다. 온갖 물고기가 마가라의 몸을 물어뜯었습니다. 가려움을 견딜 수 없어서 마가라는 바닷가의 큰 산에다 몸을 문질렀습니다. 피가 흘러서 바다를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큰 바람이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바다에는 산 같은 파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가라는 파도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오는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5백 상인을 태운 큰 배가 파도에 휩쓸려 마가라의 입으로 밀려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가 마가라의 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모두 부처님 명호를 부르시오! 부처님께 구원을 청하시오!" 그러자 일제히 "나무관세음보살"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이라니?' 마가라는 놀라며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마가라가 입을 닫았다. 우리는 살았다"고 하며 상인들이 기뻐했습니다. 배에 탔던 500명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스승 목련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다시 이 뼈의 산을 보시오. 7백 유순 마가라의 뼈무더기요. 마가라는 500명의 생명을 구해준 공덕으로 왕사성 복증 장자의 몸을 받았지요, 100세의 수명을 누리는 것도 마가라 물고기 때의 공덕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구가 되셨으니, 자질구레한 일에는 마음을 두지 말고 큰 도를 이루어 부처가 되세요."

"예, 예!" 대답한 100살의 복증 비구는, 지난 잘못을 깨닫고 열심히 도를 닦았습니다. 주책바가지 성품도 말짱하게 가시고, 얼마 뒤 곧 아라한과를 이루었습니다. 〈법원주림(法苑珠林), 사녀편(士女篇)〉



마음을 여는 불자들의 쇼핑몰 현불샵

현불샵 OPENMARKET이 불자여러분과 함께합니다

wwww.hyunbulshop.com

박태원 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비취목걸이 180,000원
비 취 팔 찌 80,000원
크기 : 약 8.5㎜ / 색상 : 진옥색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녁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 × 65 × 135㎜ 15만원
「중」 110 × 80 × 160㎜ 20만원
「대」 140 × 95 × 200㎜ 25만원

■ 재질 : 청동







쑥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위업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아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할인 행사
~~100,000원~~ → 90,000원



수제 햄머 Hammer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① 드립퍼



② NY900 유광



③ S800 유광



④ 스푼



①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 × 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②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105(W) × 120(h) × 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③ **S800 유광**(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90(W) × 140(h) × 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④ **스 푼**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능인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 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기반방석 내부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여 가방에 담아보관할 수있습니다.

제 품 설 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